山嶽
江河
都邑
樓閣
亭榭
眺望

杜諺 卷三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三

山嶽 古詩三首 律詩三首

望嶽

岱宗夫何如齊魯靑未了 岱宗은泰山ㅣ니東岳ㅣ라○岱宗은엇뎨라齊와魯ㅅ싸해프른비치몯디아니ᄒᆞ엿ᄂᆞ니오 造化鍾神秀陰陽割昏曉 鍾은聚也ㅣ라割은分也ㅣ니泰山ㅣ高大ᄒᆞ야日月의出沒이迭爲昏曉也ㅣ라○造化ㅣ神秀ᄒᆞ믈뫼햇고陰과陽괘어드우며ᄇᆞᆯ고믈ᄂᆞᆫ홧도다

盪胸生曾雲決眥入歸鳥 盪胸은層雲之氣ㅣ盪滌胸襟也ㅣ

라入歸鳥ᄂᆞᆫ決裂目眥而望ᄒᆞ야入于鳥之歸處也ㅣ라○層層히나ᄂᆞᆫ구루메가ᄉᆞᄆᆞᆷ蕩히ᄒᆞ고눈시우를ᄢᅢ여디게ᄠᅧ가ᄂᆞᆫ새게드리ᄇᆞ라노라 會當凌絕頂

一覽衆山小 모로매노픈그테올아뭀뫼히져고ᄆᆞᆯᄒᆞᆫ번보리라라

望嶽

南嶽配朱鳥秩禮自百王 南嶽은衡山ㅣ오朱鳥ᄂᆞᆫ南方之星ㅣ라○南岳ㅣ朱鳥을配對ᄒᆞ얏ᄂᆞ니祭祀애秩禮ᄂᆞᆫ百王ᄋᆞ로브터ᄒᆞ矣다 歘吸

領地靈鴻洞半炎方 歘吸은神化ㅣᄲᆞᄅᆞᆯ시라鴻洞은相連貟ㅣ라○歘吸ᄒᆞ야ᄯᅡ햇百靈을거느렛고서르니어더운ᄯᅡ햇半만ᄒᆞ얏도다 邦家用

祀典在德非馨香 書에黍稷ㅣ非馨ㅣ라明德ㅣ惟馨ㅣ라ᄒᆞ다ᄋᆞᄂᆞ라해셔祭祀ᄒᆞ요ᄆᆞᆯᄡᅳ샤ᄆᆞᆫ德에잇ᄂᆞᆫ디라ᄒᆞᆫ갓馨香ㅣ아니니라 巡守何寂

寞有虞今則亡 ○虞舜ㅣ巡守南方ᄒᆞ시니라巡守ᄒᆞ요미ᄌᆞ모괴외ᄒᆞ나有虞ㅣ이제업도다 洎吾隘世網行邁越瀟湘 내게미처

時世人法網ㅣ조ᄇᆞ니녜瀟湘ᄋᆞᆯ건나오라 渴日絶壁出漾舟清

光傍 渴日ᄋᆞᆫ言望日之出如渴也ㅣ라○渴望ᄒᆞᄂᆞᆫ나리노ᄑᆞᆫ石壁에돗ᄂᆞ니ᄆᆞᆯ곤빗ᄀᆞ의셔비를이어노라 祝融五峰尊峰峰次第昂 五峯ᄋᆞᆫ祝融紫蓋天柱石廩芙蓉也ㅣ라○祝融다ᄉᆞᆺ묏부리노ᄑᆞ니묏부리마다次第로구브며

울워렛도다 紫蓋獨不朝爭長嶪相望 爭長은言相峙而立ᄒᆞ니如相爭長也ㅣ라長은丁丈反ㅣ라嶪은山高貌ㅣ라○紫蓋ᄂᆞᆫᄒᆞᆫ올로來朝ᄒᆞ디아니ᄒᆞ야尊長호물ᄃᆞ토아구즈기서르ᄇᆞ라ᄂᆞᆺ다 恭聞魏夫人群仙扶翺翔 魏夫人은神仙ㅣ니祝融峯上애有魏夫人壇ᄒᆞ니라○恭敬ᄒᆞ야드로니魏夫人은뭀仙人ㅣ뫼셔ᄂᆞ소ᄂᆞᆺ다 有時五峯氣散風如飛霜 有時예다ᄉᆞᆺ뫼ㅅ부리옛氣運ㅣᄇᆞᄅᆞ매흐트니서리ᄂᆞᄂᆞᆫᄃᆞᆺ도다 牽迫限脩途未暇杖崇岡歸來覬命駕沐浴休玉堂 알퓌디나갈제길녀물비치이뫼해올아보디몯ᄒᆞ니오ᄂᆞᆯ야이뫼해와쉬노라니ᄅᆞ니

라○ᄂᆡ길티갈그지이쇼매ᄇᆞ티들여노ᄑᆞᆫ
뫼해막게디ᄑᆡ올아볼餘暇ㅣ엽다니도라
올제술위메여타오몰보아三嘆問府主曷
沐浴ᄒᆞ야玉堂애ᄉᆔ유라
以貧我皇府主ᄂᆞᆫ指潭州守也ㅣ라○세번嗟歎ᄒᆞ야府主ᄃᆞ려무ᄅᆞ노니
므스그로ᄡᅥ우리님금돕ᄉᆞ오리오牲璧忍衰俗神其思降祥
구ᄉᆞᆯ로禮神ᄒᆞᄂᆞᆫ거시라言俗雖衰薄ᄒᆞ나忍修牲璧而祀神ᄒᆞ면必降百祥ᄒᆞ리니이
貧助吾君之事ㅣ니라○犧牲과구스를衰俗을ᄎᆞ마ᄒᆞ라鬼神ㅣ祥瑞ᄂᆞ리오몰ᄉᆞ랑
ᄒᆞ리라

丈人山

自爲青城客不唾青城地 不唾地ᄂᆞᆫ敬之也ㅣ라○青城애나그내ᄃᆞ외요ᄆᆞ로브터青城ㅅᄯᅡ해춤밧디아니ᄒᆞ노마 爲愛丈人山丹梯近幽意 青城山ㅣ在蜀郡ᄒᆞ니爲五嶽애위두ᄒᆞᆯᄉᆡ일후믈丈人山ㅣ라ᄒᆞ다山有穴이通崑崙ᄒᆞ니仙人張道古의隱處ㅣ라○丈人山ᄋᆞᆯ爲ᄒᆞ야ᄉᆞ랑ᄒᆞ노니블근ᄃᆞ리幽隱ᄒᆞᆫᄠᅳ데갓갑도다 丈人祠西佳氣濃緣雲擬住最高峯 丈人ㅅ祠西에아ᄅᆞᆷ다온氣運이ᄃᆞᆺ거우니구무믈바라안직노ᄑᆞᆫ묏부리예가잇고져너기노라 掃除白髮黃精在君看他時來雪容 黃精草믈久服ᄒᆞ면輕身延年ᄒᆞᄂᆞ니라藐姑射山애有神人ᄒᆞ니肌膚ㅣ若

氷雪ᄒᆞ니 이 눈도로 져믄 아ᄌᆞᄅᆞᆫ니ᄅᆞ니라 ○ ᄒᆡᆫ 머리ᄅᆞᆯ ᄡᅳ러ᄇᆞ릴 黃精이 잇ᄂᆞ니 그듸ᄂᆞᆫ 다ᄅᆞᆫ ᄢᅴ 氷雪 ᄀᆞᆺᄒᆞᆫ 양ᄌᆞᄅᆞᆯ 보라

望嶽

西嶽峻嶒竦處尊 諸峯羅立似兒孫 西岳은 華山이라 峻嶒은 重疊皃ㅣ라 言諸峯이 羅列其下ㅣ 如兒孫之侍父祖也ㅣ니라 ○ 西岳ㅣ 노파 구즉ᄒᆞᆫ ᄯᅡ히 尊ᄒᆞ니 여러 묏부리 버러 셔시니 兒孫이 ᄀᆞᆮ도다

安得仙人九節杖 拄到玉女洗頭盆 列仙傳에 有九節蒼藤竹杖ᄒᆞ니라 華山上에 有石盆ᄒᆞ니 可容水數斛이니 俗呼玉女의 洗頭盆이라 ○ 엇뎨 仙人의 아홉

ᄋᆞ뒤 막대ᄅᆞᆯ 어티디 ᄑᆡ 玉女의 머리 싯ᄂᆞᆫ 盆에 니르러 가려뇨

車箱入谷無歸路 箭栝通天有一門

車箱谷ᄋᆞᆫ 深不可測이오 箭栝峯ᄋᆞᆫ 우희 궁기 잇ᄂᆞ니 하ᄂᆞᆯ 보ᄂᆞ니라 ○車箱ㅅ 고ᄅᆡ 드러갈 길히 업스니 箭栝앤 하ᄂᆞᆯ해 ᄉᆞᄆᆞᆺᄎᆞᆫ ᄒᆞᆫ 門ㅣ 잇ᄂᆞ니라

稍待秋風涼冷後 高尋白帝問真源

白帝ᄂᆞᆫ 西方之帝라 ○ᄀᆞᅀᆞᆯ ᄇᆞᄅᆞ미 서늘ᄒᆞᆫ 後ᄅᆞᆯ 져기 기드려 白帝ᄅᆞᆯ 노피 ᄎᆞ자가 真實ㅅ 츨흘 무ᄅᆞ리라

、白塩山 在夔州ᄒᆞ니라

卓立群峯外 蟠根積水邊

뭇 묏부리 밧긔 구즈기 셔고 답사ᄒᆞ

롮고위불휘서렷도다 他皆任厚地 爾獨近高天 티ᄂᆞ뫼ᄒᆞᆫ

다돈거운ᄯᅡᄒᆞᆯ므던히너겨ᄂᆞᆯ네ᄒᆞᆫ올로노ᄑᆞᆫ하ᄂᆞᆯ헤갓갑도다 白榜千家

邑 清秋萬估船 白榜은縣額을以白爲牌也ㅣ라이ᄂᆞᆫ이뫼히夔州잇고

뫼고외비와이쇼ᄂᆞᆯ니ᄅᆞ니라○힌額牓ᄒᆞᆫᄌᆞᄅᆞᆫ집고올히오ᄆᆞᆯᄀᆞᆫᄀᆞ올희一萬흥졍ᄒᆞ

ᄂᆞᆫ비로다 詞人取佳句 刻畫竟誰傳 欲用佳句ᄒᆞ야詠此山而

刻畫其形容ᄒᆞ나終難傳播ㅣ니甚言作詩之不易也ㅣ라○글ᄒᆞᆯ사ᄅᆞ미됴ᄒᆞᆫ글句를

엇ᄂᆞ니칙畫ᄒᆞᆫ돌ᄆᆞᄎᆞ매뉘傳ᄒᆞ가오

、天寶初애南曹小司寇인舅ㅣ於我大

夫人ㅅ堂下애累土爲山호ᄃᆡ一簣예盈尺ᄒᆞ야以代彼朽木ᄒᆞ야承諸焚香甆甌ᄒᆞ니甌ㅣ甚安矣리라旁植慈竹ᄒᆞ니蓋玆數峰이嶔岑嬋娟ᄒᆞ야宛有塵外數致ᄒᆞᆯ시乃不知興之所至ᄒᆞ야而作是詩ᄒᆞ노라

남ᄀᆞ로香爐노ᄒᆞᆫ臺ᄅᆞᆯᄆᆡᆼᄀᆞ니석거ᄂᆞᆯ이제假山ᄆᆡᆼᄀᆞ라香爐ᄅᆞᆯ노ᄒᆞ니라○天寶人ᄎᆡ어믜南曹人小司寇人ᄠᅳ슬ᄒᆞᆫ아자비우리어마님집아래ᄒᆞᆯ골뫼화뫼ᄒᆞᆯᄆᆡᆼᄀᆞ로되ᄒᆞᆫ그르제자히ᄎᆞ게ᄒᆞ야ᄲᅴ텨서근남ᄀᆞᆯ代ᄒᆞ고香퓌우ᄂᆞᆫ구윤甌ᄅᆞᆯ노ᄒᆞ니

甚히便安ᄒᆞ도다ᄒᆞ니 에慈竹올시 ᄆᆞ니 이 두어 峯이 㑼㑼ᄒᆞ며 고와 宛然
히 드틀 밧긔 두어 景致ㅣ 이실시 興의 나 ᄅᆞ려오 몰아다 몯ᄒᆞ야 이 그를 짓노라

一簣功盈尺三峯意出群 簣ᄂᆞᆫ 홁 담ᄂᆞᆫ 그르 시라 ○ ᄒᆞᆫ 그르세 功이 자히 차니 세 묏부 리 ᄲᅳ에 무레 나나도다

望中疑在野幽處欲生雲 ᄇᆞ라ᄂᆞᆫ 가온대 미햇ᄂᆞᆫ가 疑心ᄒᆞ노 니 幽深ᄒᆞᆫ ᄯᅡ해 구루미 나고져 ᄒᆞᄂᆞᆺ다

慈竹春陰覆香爐曉勢分 慈竹ᄋᆞᆫ 竹名ㅣ니 卽子母竹이라 ○ 慈竹의 봄ᄀᆞᄂᆞᆯ히 두펏ᄂᆞ니 香炉앳 새뱃 양저ᄂᆞᆫ 호ᄂᆞᆺ다

惟南將獻壽佳氣日氤氳 詩예 如南山之壽ㅣ라 ᄒᆞ다 ○ 南 山ᄋᆞ로 목수믈 밧ᄌᆞᆸ노니 됴ᄒᆞᆫ 氣

運이나날엷의엿도다

江河 陂池溪潭附 律詩十五首 古詩九首

三川觀水漲二十韻 三川縣이屬鄜州ᄒᆞ니라

我經華原來不復見平陸 華原ᄋᆞᆫ郡名이라此ᄂᆞᆫ言爲水이所淩也ㅣ라○내華原올디나오니任平ᄒᆞᆫ무틀보디몯ᄒᆞ리로다

北上惟土山連天走窮谷 北녀그로올오니오직ᄒᆞᆰ뫼히로소니하ᄂᆞᆯ해니어기곤묏고리ᄃᆞ랏도다

火雲無時出飛電常在目 이ᄂᆞᆫ더운구루미ᄎᆔ고비당상오몰니ᄅᆞ니라○더운구루미ᄢᅵ니업시나고ᄂᆞᆫ번게상녜누네잇도

다 自多窮岫雨行潦相豗䆊 豗ᄂᆞᆫ 呼回反ᄒᆞ니 水相擊也ㅣ라 ○기픈뫼해비해오모로보티길헤므리서르다딜힛도다 蓊匌川氣黃

群流會空曲 蓊은烏孔反이오匌은口荅反ᄒᆞ니言氣之盛也ㅣ라 ○蓊匌ᄒᆞᆫ내ᄒᆡᆺ氣運이누르니믈ᄒᆞᆫᄅᆞᆫ므리뷘구븨로몯ᄂᆞ다 清晨望高浪忽

謂陰崖踣 踣은蒲北反ᄒᆞ니蹶也ㅣ라言高浪이如陰崖之踣也ㅣ라 ○몰고아ᄎᆞᆷ미노ᄑᆞᆫ믌겨를ᄇᆞ라고忽然히어드운빙에업더디는가너교라 恐泥竄

蛟龍登危聚麋鹿 泥滯ᄒᆞᆯ가저허蛟龍ㅣ수머나가고노ᄑᆞᆫ뒤올아사ᄉᆞ미모ᄃᆡᆺ도다 枯查卷拔樹磊磈共充塞 磊ᄂᆞᆫ洛罪反ᄒᆞ고磈

눈口罪反ᄒᆞ니沙石也ㅣ니言水勢飄蕩ᄒᆞ
야枯槎沙石이同隘塞也ㅣ라○이운들구
른ᄡᅢ혀인남기거두믿몟ᄂᆞ
니돌과다뭇充塞ᄒᆞ얏도다 聲吹鬼神下勢
閱人代速 ㅣ오水聲ㅣ吹動ᄒᆞ니如鬼神之來下
水勢ㅣ懸流ᄒᆞ니如人世之
迅速也ㅣ라○믌소리불이니鬼神이ᄂᆞ려
오ᄂᆞᆫ듯고양ᄌᆞ롤보니사ᄅᆞ미代ㅣ섈론듯
도다 不有萬穴歸何以尊四瀆 四瀆ᄋᆞᆫ江河淮
濟니라言萬穴
之水ㅣ會歸四瀆故로四瀆ㅣ為之尊大也
ㅣ라○萬穴人므리가미잇디아니ᄒᆞ면엇
데ᄡᅧ四瀆이
尊ᄒᆞ리오 及觀泉源漲反懼江海覆 이므
리밀
며가먼江海ㅣ엽틸가ᄒᆞ니水漲이盛호몰
니루니라○泉源의밀여슈믈보매미치도

루ᄒᆡ 江海ㅣ 엽틸가 젓노라

漂沙折去岸 漱壑松栢禿 ᄠᅳᄂᆞᆫ 믈애 ᄂᆞᆫ 두들기 ᄲᅥ티 가ᄂᆞ니 묏고ᄅᆞᆯ 시스니 솔와 잣괘 무듸도다

乘陵破山門 回幹裂地軸 地有三千六百軸ᄒᆞ니라ㅇ 侵陵ᄒᆞ야 묏門을 허러ᄇᆞ리고 두르힐훠 地軸을 믜혀ᄇᆞ리ᄂᆞ다

交洛赴洪河 及關豈信宿 關ᄋᆞᆫ 瀍關也ㅣ라 再宿曰信ㅣ라ㅇ 洛水에 섯기 큰 ᄀᆞᄅᆞᄆᆞ로 가ᄂᆞ니 關애 미처 가묘 엇뎨 여러 밤 자리오

應沉數州沒 如聽萬室哭 당당이 두어 고올ᄒᆞᆯ ᄃᆞ마 沒ᄒᆞ리로소니 萬室의 우는 소리를 듣논 ᄃᆞᆺᄒᆞ도다

穢濁殊未清 風濤怒猶蓄 言汚濁之物ㅣ未盡滌蕩故로 風濤이 猶怒而不已也ㅣ라ㅇ

더럽고 흐린 거시 ᄭᅵ장 ᄆᆞᆰ디 몯ᄒᆞ니 ᄇᆞᄅᆞ매 믌겨리 怒호미 오히려 답사혓도다 何

時通舟車陰氣不黲黷 어느 지긔 비와 술위 도ᄂᆞ미 通ᄒᆞ야 陰氣 어듭디 아니ᄒᆞ려뇨

浮生有蕩汨吾道正羈束 言當世之亂ᄒᆞ야 吾道ㅣ拘束而不得伸也ㅣ라 ○ ᄠᅳᆫ 人生애 두루 ᄃᆞ뇨미 잇고 내의 道ᄂᆞᆫ 正히 얽ᄆᆡ윤 ᄃᆞᆺᄒᆞ도다

人寰難容身石壁滑側足 言天地雖大而若無所容이오 山石ㅣ滑而不得安行ᄒᆞ니 感傷之言也ㅣ라 ○ 사ᄅᆞᆷ 사ᄂᆞᆫ ᄯᅡ해도 ᄆᆞᆷ 容納호미 어렵고 石壁도 믯그러워 바ᄅᆞᆯ 기우려 ᄇᆞᆲ노라

雲雷屯不已艱險路更跼 跼ᄋᆞᆫ 渠玉反ᄒᆞ니 曲也ㅣ라 ○ 구룸과 울에왜 屯聚ᄒᆞ요ᄆᆞᆯ 마디 아니ᄒᆞᄂᆞ니

어려운길헤다 ᄉᆞ므로구퓨라 普天無川梁欲濟願水縮 너븐

하ᄅᆞᆯ해내해ᄃᆞ리업스니건너고져 ᄒᆞ야므리ᄲᅵ와디여ᄒᆞ야願ᄒᆞ노라 因悲中

林士未脫葬魚腹 此ᄂᆞᆫ言有沉溺之患也ㅣ 라○수플가온ᄃᆡ잇ᄂᆞᆫ軍

士ㅣ믌고기ᄇᆡ예무류믈버서 나디몯ᄒᆞ몰지즈로슬로라 擧頭向青天

安得騎鴻鵠 머리ᄅᆞᆯ드러프른하ᄅᆞᆯᄒᆞᆯ向ᄒᆞ 야보노니엇뎨시러곰鴻鵠올

타가 려뇨

奉同郭給事의 湯東靈湫作ᄒᆞ노 라

東山氣鴻濛宮殿居上頭 라 東山ᄋᆞᆫ驪山也ㅣ 라鴻濛ᄋᆞᆫ廣大貌

ㅣ라 ○東山애 氣運이 펴 뒷ᄂᆞ
니 宮殿이 웃그제 잇도다 君來必十月
樹羽臨九州 玄宗ㅣ 每年十月에 幸溫湯ᄒᆞ
더시니라 樹羽ᄂᆞᆫ 立羽葆蓋也
ㅣ라 ○님금미 오샤ᄆᆞᆫ 반ᄃᆞ기 十月에 ᄒᆞ시
ᄂᆞ니 셰옛ᄂᆞᆫ 羽葆이 아홉 ᄀᆞ올ᄒᆞᆯ ᄃᆡ렛도다
陰火煮玉泉 噴薄漲巖幽 陰火ᄂᆞᆫ 溫泉이 더
우미 ᄊᆞᆺ소 갯브리
글히ᄂᆞᆫ ᄃᆞᆺᄒᆞᆯ시라 ○陰火ㅣ 玉 ᄀᆞᆺᄐᆞᆫ 泉을
글히ᄂᆞ니 ᄲᅮᆷ겨 바회 幽深ᄒᆞᆫ ᄃᆡ 밀엣도다 有
時浴赤日光 抱空中樓 有時예 블근 나리 沐
浴ᄒᆞᄂᆞ니 비치 空中
ㅅ 樓의 ᄢᅳ
리옛도다 閶風入轍迹 曠原延冥搜 閶風曠
原은 崑
崙ㅅ 東北 脚名ㅣ니 言玄宗遊幸驪山ㅣ 若
遊崑崙而冥搜也ㅣ라 ○閶風이 술위자최

예ᄃᆞᄂᆞ니 騣原이 먼 ᄃᆡ 拂天萬乘動觀水百 ᄎᆞᄌᆞ몰 延引ᄒᆞᄂᆞ다

丈湫 湫ᄂᆞᆫ 池也ㅣ라○하ᄂᆞᆯ해 다ᄃᆞ저 萬乘 이 뮈여 므를 百丈인 모새 와 보시ᄂᆞ다

幽靈斯可恠王命官屬休 幽深靈異ᄒᆞ야 이 可히 奇恠ᄒᆞᆯ서 님그미 官屬ᄋᆞᆯ 命ᄒᆞ야 쉬시ᄂᆞ다

初聞龍用壯擘石摧林丘中

夜窟宅改移因風雨秋 처ᅀᅥᆷ의 드로니 龍이 ᄡᅳ미 健壯ᄒᆞ야 돌ᄒᆞᆯ ᄣᅢ티며 林丘ᄅᆞᆯ 믈허리티고 바미 사ᄂᆞᆫ ᄃᆡ 옮ᄂᆞᆫ ᄃᆡ 올마 오ᄆᆞᆯ ᄇᆞᄅᆞᆷ비 ᄀᆞᅀᆞᆯᄒᆞᆯ 因ᄒᆞ니라

倒懸瑤池影屈注滄江流 湫上向ᄂᆞᆫ 힛그르메 靈湫에 갓고로 비취여 실시라○瑤池예 그르메 갓고로 돌엿고 滄江ㅅ 흐르ᄂᆞᆫ 므리 굽구리ᅌ 오브어 오ᄂᆞ다

味如甘露漿揮手滑且柔 마시甘露漿ᄀᆞᆮᄒᆞ니소ᄂᆞ로ᄃᆞᆯ화보니ᄆᆞᆺ그럽고부드럽도다

翠旗澹偃蹇雲車紛少留 偃蹇은高負ㅣ라○프른旌旗ㅣ믈기偃蹇ᄒᆞ니구룸ᄀᆞᆮᄒᆞᆫ술위어즈러이져기머므놋다

簫鼓蕩四溟異香泱漭浮 泱ᄋᆞᆫ烏朗反ᄒᆞ고漭ᄋᆞᆫ模朗反ᄒᆞ니廣大負ㅣ라○피리와붑소리비바ᄅᆞ래뮈ᄂᆞ니奇異ᄒᆞᆫ香氣ㅣ너비볫또다

鮫人獻微綃曾祝沉豪牛 鮫人ᄋᆞᆫ見前註ᄒᆞ다曾ᄋᆞᆫ重也ㅣ라豪牛ᄂᆞᆫ似犛牛ᄒᆞ니言玄宗ㅣ幸靈湫而鮫人이獻綃ᄒᆞ고曾祝ㅣ沉牛以祭也ㅣ라○鮫人ㅣᄀᆞᄂᆞᆫ기블받ᄌᆞᆸᄂᆞ니여러祝史ᄂᆞᆫ굴근쇼ᄅᆞᆯ므레ᄃᆞᆷ놋다

百祥奔盛明古先

莫能儔온 가짓 祥瑞ㅣ 盛明ᄒᆞ신 제 뵈ᄂᆞ니 녯사ᄅᆞᆷ도 能히 굷디 몯ᄒᆞ리로다

陂陁金蝦蟆出見蓋有由 陂陁ᄂᆞᆫ 不平貌ㅣ라 金蝦蟆ᄂᆞᆫ 喩安祿山ᄒᆞ니라 ○ 두듥ᄒᆞᆫ 金두텁비 나 뵈요미 말믜 잇ᄂᆞ니라

至尊顧之笑王母不遣收復歸虛無底化作長黃虯 玄宗ㅣ 幸溫湯이어시ᄂᆞᆯ 楊國忠ㅣ 奏祿山ㅣ 必叛ᄒᆞ리니 命召則必不至니라 帝ㅣ 召ᄒᆞ신대 祿山ㅣ 知國忠之謀ᄒᆞ고 而至ᄒᆞ야ᄂᆞᆯ 帝ㅣ 見而大喜ᄒᆞ시고 貴妃亦寵愛之ᄒᆞ니 還歸而反故로 云出見之有由ㅣ라 ᄒᆞ며 化作黃虯ㅣ라 ᄒᆞ다 ○ 님그미 도라보아 우ㅡ시고 王母ㅣ ᄒᆡ여곰 잡돌 아니ᄒᆞ니 도로 밀엿 소업ᄒᆡ 가 긴 누른 龍ㅣ ᄃᆞ외니라

飄飄青

瑣郎文彩珊瑚鉤 漢制예 給事中ㅣ 暮入靑瑣門拜ᄒᆞᄂᆞ니라 ○ 氣運ㅣ 飄飄ᄒᆞᆫ 靑瑣門의 ᄃᆞ니ᄂᆞᆫ 郎官이 빗나미 珊瑚鉤 ᄀᆞᆮ도다

浩歌綠水曲 淸絶聽者愁 綠水ᄂᆞᆫ 曲名ㅣ니 以比給事之詩ᄒᆞ니 其詩ㅣ 淸雅絶倫ᄒᆞ야 聽者ㅣ 愁不能及也ㅣ라 ○ 綠水曲을 훤히 브르니 淸絶ᄒᆞ야 드르ᄂᆞᆫ 사ᄅᆞ미 시름ᄒᆞᄂᆞ다

渼陂行

岑參兄弟皆好奇 携我遠來遊渼陂 渼陂ᄂᆞᆫ 在鄠縣西ᄒᆞ니라 ○ 岑參의 兄弟ㅣ 다 奇異ᄒᆞ요ᄆᆞᆯ 즐겨 나ᄅᆞᆯ 더브러 머리 와 渼陂예 노ᄂᆞ다

天地黤慘忽異色 波濤萬頃堆琉璃 慘ᄋᆞᆫ 與黲同ᄒᆞ니 暗

色也ㅣ라 琉璃ᄂᆞᆫ 水色이 青瑩ㅣ라 ○하ᄂᆞᆯ과 ᄯᅡ쾌 어드워 忽然히 비치 다ᄅᆞ니 업거리 萬頃ㅣ나ᄒᆞᆫ 뒤 琉璃ㅣ 믈 어렷ᄂᆞᆫ 듯ᄒᆞ도다

琉璃汗漫泛舟入事殊

興極憂思集 琉璃ㅣ 어윈 뒤 비를 ᄲᅧ위드루니 이리 다ᄅᆞ며 興ㅣ ᄀᆞ장ᄒᆞ니 시름도 ᄋᆞᆫᄠᅳ디 몯ᄂᆞ다

鼉作鯨呑不復知惡風白浪何

嗟及 이ᄂᆞᆫ 시름나ᄂᆞᆫ 이ᄅᆞᆯ 니ᄅᆞ니라 ○鼉ㅣ 니러나며 고래 ᄉᆞᆷ규믈 任아디 몯ᄒᆞ리로소니 모딘 ᄇᆞᄅᆞᆷ과 ᄒᆡᆫ 믌겨리면 어느 嗟嘆ᄒᆞᆯ 미ᄎᆞ리오

主人錦帆相

爲開舟子喜甚無氛埃 ○主人은 指岑參ᄒᆞ니 主人ㅣ 錦ᄋᆞ로 ᄒᆞᆫ 빗돗ᄀᆞᆯ 서르 爲ᄒᆞ야 펴니 ᄇᆡ 달홀 사ᄅᆞ미 깃거ᄒᆞ고 ᄃᆞ트리 업도다

鳧鷖散亂

棹謳發綵管啁啾空翠來 올히 ᄂᆞᆯ히 혜여뎟고 빗히ᄂᆞᆫ 놀애나
고 絲管ㅣ 수으고 뷘 프른 거시 나아오놋도다 沉竿續蔓深莫測菱
葉荷花淨如拭 言用竿蔓ᄒᆞ야 測水之深也ㅣ라 ○대ᄅᆞᆯ ᄃᆞ므며 너추를
니어도 기픠ᄅᆞᆯ 測量티 몯ᄒᆞ리로소니 말왐 닙과 蓮ㅅ 곳괘 조호미 스ᄉᆞᆫ ᄃᆞᆺᄒᆞ도다 宛
在中流渤海淸下歸無極終南黑 言漢陂ㅣ 如渤海也
ㅣ라 ○믌가온대 渤海 ᄀᆞᆮᄒᆞᆫ ᄃᆡ 宛然히 이슈니 아래로 그지업시 가니 終南山이 거
머ᄒᆞ도다 半陂以南純浸山動影裊窕冲融間 裊窕
冲融은 皆言水深ᄒᆞ다 ○陂로 半 안ᄧᆞᆨ 南녁 근ᄃᆡ 뫼ᄒᆞᆯ ᄌᆞᆷ겻ᄂᆞ니 뮈닌 그르메 裊窕冲融ᄒᆞ

ᄒᆞᆫᄉᆞ이로다 船舷暝戞雲際寺水面月出藍田關

ᄇᆡ시우를나조ᄒᆡ雲際山ㅅ뎔로ᄀᆞ라가니水面에ᄃᆞ리藍田關에셔ᄠᅳᄂᆞ다 此時

驪龍亦吐珠馮夷擊鼓群龍趨 馮夷ᄂᆞᆫ河伯ㅣ라此及下

兩聯은皆言渼陂人景物也ㅣ라○이ᄢᅦ거믄龍ㅣᄯᅩ구스를비왇ᄂᆞ니馮夷ㅣ부플티고뭀龍ㅣᄃᆞ놋다

湘妃漢女出歌舞金支翠旗光有

無 金支ᄂᆞᆫ樂器上飾이라○湘妃漢女괘나놀애브르고춤츠ᄂᆞ니金支와翠旗ㅅ빗치이시락업스락ᄒᆞ놋도다

咫尺但愁雷雨至蒼茫不曉

神靈意 言此與龍居로相去ㅣ咫尺이니恐龍怒而雷雨ㅣ至也ㅣ라○咫尺ᄉᆞ이

예오직雷雨ㅣ올가시름ᄒᆞ노니아ᄋᆞ
라ᄒᆞ야神靈의ᄠᅳ들아디몯ᄒᆞ리로다 少壯
幾時奈老何向來哀樂何其多 처엄오니天地ㅣ어드워
비치다ᄅᆞ니向來옛所哀ㅣ오이욱고나리
몰가고장노니向來옛所樂也ㅣ라ᄋᆞ져믄
처근언마맛뵈니오늘ᄀᆞ메엇뎨ᄒᆞ려뇨
向來예슬프며즐거우미ᄌᆞ모하도다

渼陂西南臺

高臺面蒼陂六月風日冷 노ᄑᆞᆫ臺ㅣ프른陂水를面ᄒᆞ얏ᄂᆞ니
六月에ᄇᆞᄅᆞ매나리서늘ᄒᆞ도다 蒹葭離披去天水相與永
ᄀᆞ리ᄡᅳ러시가ᄂᆞ니하ᄂᆞᆯ콰믈왜서르다몯가도다 懷新目似擊接要

心已領생ᄉᆡᆼ홀 ᄉᆞ랑호미 누네 뵈 본ᄃᆞᆺᄒᆞ고 조ᄋᆞᄅᆞ왼 ᄉᆡᆼ홀 相接ᄒᆞ야 ᄆᆞᅀᆞ매 ᄒᆞ

마 연저 슈라 仿像識鮫人 空濛辨漁艇仿像은不明皃ㅣ라

空濛은若無而空ᄒᆞ며若有而濛ᄒᆞ니言難辨也ㅣ라○ᄉᆞᄆᆞ시鮫人을알오空濛ᄒᆞ고

기잡ᄂᆞᆫ ᄇᆡᄅᆞᆯ ᄀᆞᆯᄒᆡ노라 錯磨終南翠 顚倒白閣影終南白閣

은皆山名ㅣ니在長安ᄒᆞ니라○終南山ㅅ 프른 비치 섯ᄀᆞᆯ이고 白閣山ㅅ 그르메 갓고

로ᄃᆞ렛도다 嶒峯增光輝 乘陵惜俄頃增光輝ᄂᆞᆫ 뫼ㅅ 그르메

므레 드니 버치 펀펀히 더을시라 ○ 노ᄑᆞᆫ 묏 비치 더으니 凌犯ᄒᆞ야 ᄃᆞᆫ뇨ᄆᆞᆯ 져근덧도

앗겨ᄒᆞ노라 勞生愧嚴鄭 外物慕張邴人生ᄀᆞᆺ비 ᄃᆞᆫ뇨ᄆᆞᆯ 嚴

子陵과鄭子真을븟그리고萬物을밧
사모믈張良과邴曼容을思慕ᄒᆞ노라 世復
輕驊騮吾甘雜鼃黽 言世人ㅣ輕棄賢才故 로甘雜於小人也ㅣ라
○世人ㅣ또됴ᄒᆞᆫᄆᆞᄅᆞᆯ가ᄇᆡ야이너기ᄂᆞ니
내미구리서리예섯겨슈믈둘히너기노라
知歸俗可忽取適事莫並 言知歸山林ᄒᆞ니 世俗之累를可忽
이오取適於心則凡事ㅣ無可並於此者ㅣ
라○갈디를아로니世俗을어루므던히너
기리로다ᄆᆞᅀᆞ매마ᄌᆞ물取 ᄒᆞᄆᆞᆫ이리ᄀᆞᆯ오리업스리라 身退豈待官老
來苦便靜 모미믈러가ᄆᆞᆫ엇뎨벼슬ᄒᆞ믈기 둘워야ᄒᆞ리오늘거오매심히寂
靜ᄒᆞ몰便安 히너기노라 況資菱芡足庶結茅茨迥 言ᄂᆞᆫ 地예

多有菱芡可食之物ᄒᆞ니當結茅屋而居也ㅣ니라○ᄒᆞᆫ ᄆᆞᆯ며 발와 믈 資賴ᄒᆞ미 하니 거의 새지블 아ᄋᆞ라히 져오리라 從此具扁舟彌年逐清景일로 브터 져근 ᄇᆡ를 ᄀᆞ초ᄒᆞ야 ᄒᆡ ᄆᆞᆺ도록 ᄆᆞᆯᄀᆞᆫ 景을 ᄯᆞᄎᆞ리라

南池 在閬州ᄒᆞ니라

崢嶸巴閬間所向盡山谷 뫼노ᄑᆞᆫ 巴州 閬州ㅅ ᄉᆞ이예 向ᄒᆞ야 가논 ᄃᆡ 다 묏고리로다 安知有蒼地萬頃浸坤軸 ᄑᆞ른 모시 비븨 萬頃이 坤軸을 ᄌᆞᆷ마잇ᄂᆞᆫ ᄃᆞᆯ 어느 아리오 呀然閬城南枕帶巴江腹 呀ᄂᆞᆫ 虛加反ᄒᆞ니 張口皃ㅣ라○閬城人 南녀긔 입 벙으렛ᄂᆞᆫ ᄃᆞᆺ고 巴江人 비

ᄅᆞᆯ 뻬며 ᄯᅥᆨ찻도다

芰荷入異縣秔稻供比屋 言池水ㅣ有灌漑之利故로歲稔而供比屋之食이니라○말왐 ᄡᅡ 遷괘 다ᄅᆞᆫ ᄀᆞ올ᄒᆡ 드렛ᄂᆞ니 노ᄂᆡ욱궤ᄂᆞᆫ 집마다 이받ᄂᆞ다

皇天不無意美利戒止足高田失西成此物頗豐熟 言天意ㅣ欲人의止足ᄒᆞ야不使狼藉有餘利ᄒᆞᄂᆞ니高亢之田ㅣ歲或不熟ㅣ라도此秔稻則賴此水而必稔也ㅣ니라○큰 하ᄂᆞᆯ히 ᄠᅳ디 업디 아니ᄒᆞ니 아ᄅᆞᆷ나온 利ᄅᆞᆯ 止足ᄒᆞ라 警戒ᄒᆞ시ᄂᆞ니 노ᄑᆞᆫ 바티 ᄀᆞᄋᆞᆯ이ᄅᆞᆯ 일히도 이 거ᄉᆞᆫ ᄌᆞ모 해 닉ᄂᆞ니라

淸源多衆魚遠岸富喬木 ᄆᆞᆯᄀᆞᆫ ᄉᆡᆷ해 믌고기 하고 먼 두들겐 노ᄑᆞᆫ 남기 하도다

獨嘆楓香林春時好

顏色 楓香ㅅ 수프리 봀時節에 비치 됴호ᄆᆞᆯ ᄒᆞ올로 嗟嘆ᄒᆞ노라 南有漢

王祠終朝走巫祝 言巫祝ㅣ奔走祭漢高祖也ㅣ라○南녀긔 漢王ㅅ 祠廟ㅣ 잇ᄂᆞ니 아ᄎᆞ미 ᄆᆞᆺᄃᆞ록 스승ᄃᆞᆯ히 ᄃᆞ니ᄂᆞ다 歌舞散靈衣荒哉

舊風俗 靈衣ᄂᆞᆫ 神衣也ㅣ라○놀애 브르고 ᄎᆞᆷ처 靈衣ᄅᆞᆯ 펴ᄂᆞ니 荒淫ᄒᆞᆫ 뎌 녯 風俗ㅣ어 高堂亦明王魂魄猶正直不應空陂上

縹緲親酒食 노ᄑᆞᆫ 지븨 ᄯᅩ ᄇᆞᆯᄀᆞᆫ 님그미 겨시니 넉시 오히려 正直ᄒᆞ니 뷘 두듥 우희 아ᅀᆞ라히 酒食을 親近히 호미 맛당티 아니ᄒᆞ니라 溪祀自古昔

非唯一川瀆 言溪祀ㅣ 이ᄯᅡ ᄲᅮᆫ 아니라 뎌 브데니라○荒淫ᄒᆞᆫ 祭祀ㅣ 녜록

브터 ᄒᆞᄂᆞ니 ᄒᆞᆫ갓 ᄒᆞᆫ 川瀆ᄲᅮᆫ 아니니라 干戈浩茫茫地僻傷極目 干戈ㅣ 해야ᄋᆞ라 ᄒᆞ니 幽僻ᄒᆞᆫ ᄯᅡ해 슬허셔 ᄆᆞ장 ᄇᆞ라노라 平生江海興 遭亂身局促 局促ᄋᆞᆫ 不得伸之意라 ○平生애 江海예 갈 興心으로 亂ᄋᆞᆯ 맛나 더모ᄆᆞᆯ 구펫노라 駐馬問漁舟躊躇慰羈束 ᄆᆞᆯ 머믈워 고기잡ᄂᆞᆫ ᄇᆡᄅᆞᆯ 무러 머므러셔 얽ᄆᆡ여 ᄃᆞᆫ뇨ᄆᆞᆯ 慰勞ᄒᆞ노까

萬丈潭 在同谷縣ᄒᆞ니라

清溪含冥寞神物有顯晦 神物ᄋᆞᆫ 謂龍也ㅣ라 ○ ᄆᆞᆯᄀᆞᆫ 시내헤 어득호미 모ᄀᆞᆺᄂᆞ니 神奇ᄅᆞ윈 거시 나며 수므며 호미 잇도다 龍依積水蟠

龕壓萬丈內 龍ㅣ담사ᄒᆞᆫ 므ᄅᆞᆯ 보ᄃᆡ 서렛ᄂᆞ니 ᄀᆞᆷ기 萬丈ㅅ 안해 臨壓ᄒᆞ얏도다

蹋步陵垠堮側身下煙霧 垠堮은 潭邊也ㅣ라 ○ 어려이 가러 ᄀᆞᄋᆞ로 오ᄅᆞ고 모ᄆᆞᆯ 기우려 煙霧ㅅ 서리로 ᄂᆞ료라

前臨洪濤寬却立蒼石大 알ᄑᆞ로 臨ᄒᆞ니 큰 믌겨리 어위오 믈러셔 보니 ᄑᆞ른 돌히 크도다

山危一徑盡岸絕兩壁對 뫼히 노ᄑᆞᆫ ᄃᆡ ᄒᆞᆫ 길히 다ᄋᆞ고 두 둜기 그츤 ᄃᆡ 두 녁 石壁ㅣ 對ᄒᆞ얫도다

削成根虛無倒影垂澹瀨

瀨ᄂᆞᆫ 徒對反ᄒᆞ니 澹瀨ᄂᆞᆫ 循澹滟ㅣ니 水ㅣ 帶沙往來貟ㅣ라 ○ 갓가 일운 ᄃᆞᆺᄒᆞ야 霊無ᄒᆞᆫ 므레 불휘ᄒᆞ얫고 갓ᄀᆞ론 그르메ᄂᆞᆫ 믈ᄀᆞᆫ ᄃᆡ 드렛도다

黑知灣環底清

見光烱碎거믄 뒤란 믌 미틘 돌알오 ᄆᆞᆯᄀᆞᆫ 뒤란 비치 ᄇᆞᅀᆞᄎᆞ몰 보노라 孤
雲倒來深飛鳥不在外외ᄅᆞ온 구루미 기픈 뒤 갓고로 오ᄂᆞ니 ᄂᆞ
ᄂᆞᆫ 새ᄂᆞᆫ 밧긔 잇디 아니ᄒᆞ도다 高蘿成帷幄寒木疊旌旆노ᄑᆞᆫ
藤蘿ㅣ 帳과 집괘 ᄃᆞ외얫고 서늘ᄒᆞᆫ 남근 旌旆ㅣ 重疊ᄒᆞᆫ ᄃᆞᆺᄒᆞ도다 遠川曲通
流巖竇潛洩瀨먼 내ᄒᆡ 굽구뤼여 흘로미 通ᄒᆞ고 바횟 굼긔 ᄀᆞ마니 ᄃᆞ리
시어디 놋다 造幽無人境發興自我輩幽深ᄒᆞᆫ 사ᄅᆞᆷ 업슨 ᄯᅡ
해 나아오니 興心 나미 내 물로브테로다 告歸遺恨多將老斯遊
最도라가노라 告ᄒᆞ매 기튼 측ᄒᆞ미 하니 將ᄎᆞᆺ 늘구메 이어긔 노로미 ᄀᆞ장 됴토다

閑蔵蟄脩鱗出入巨石礙 다텨갈마긴비ᄂᆞ리수엣ᄂᆞ니나며드로매巨돌히ᄀᆞ리오놋다何當炎天過快意風雨會이ᄂᆞᆫ이쎄치위蟄蔵ᄒᆞ얏ᄂᆞ니어ᄂᆞ저그더운하ᄂᆞᆯᄒᆞᆯ갓나ᄇᆞᄅᆞᆷ비모도매快히ᄂᆞ라날고니ᄅᆞᆯ시라○어ᄂᆞ저그더운하ᄂᆞᆯ히디나오거든ᄇᆞᄅᆞᆷ과비왓모도매ᄠᅳ들훤히ᄒᆞᆯ고

泛溪

落景下高堂進舟泛回溪디ᄂᆞᆫ힛예노ᄑᆞᆫ堂애셔ᄂᆞ려ᄇᆡᄅᆞᆯ나오와횟돈시내예ᄠᅴ우라誰謂築居小未盡喬木西뉘築居ᄅᆞᆯ젹다니ᄅᆞ리오노ᄑᆞᆫ나못西ㅅ녀그다ᄋᆞ디아니ᄒᆞ얫도다遠郊信荒僻

秋色有餘凄면ᄃᆞ르히眞實ㄹ기ᄎᆞᆯ오幽僻ᄒᆞ니ᄀᆞᅀᆞᆳ비치서늘호미有餘ᄒᆞ도다

練練峯上雪纖纖雲表霓練練ᄋᆞᆫ白貌ㅣ라○ᄒᆡ여ᄒᆞᆫ닌뫼ㅅ부리우흿누니오ᄂᆞ닌구룸밧긧므지게로다

童戲左右岸罟弋畢提攜아ᄒᆡ돌히左右ㅅ두들게셔노ᄂᆞ니그믈와주살올다자밧도다

飜倒荷芰亂指揮徑路迷此ᄂᆞᆫ恐小紀의迷失道路ᄒᆞ야指揮之也ㅣ라○蓮과말와ᄆᆞᆯ두위텨어즈럽게ᄒᆞ고길희迷失호ᄆᆞᆯᄀᆞᄅᆞ치ᄂᆞ다

得魚已割鱗採藕不洗泥고기ᄅᆞᆯ어더ᄒᆞ마비느ᄅᆞᆯ비히고蓮ᄋᆞᆯᄏᆡ야ᄒᆞᆯᄀᆞᆯ싯디아니ᄒᆞᄂᆞ다

人情逐鮮美物賤事已睽言得魚而不食

鶁也ㅣ라○사ᄅᆞᄆᆡᄠᅳ디鮮美ᄒᆞᆫ게ᄉᆞᆯ짓ᄂᆞ
니物ㅣ早賤ᄒᆞ니이리ᄒᆞ마어그릇도다
吾村靄暝姿異舍鷄亦棲 우리ᄆᆞᄋᆞᆯ히나죗양지靄盛ᄒᆞ고다ᄅᆞᆫ지비도ᄃᆞᆰ기기셰오ᄂᆞ矣다
作蕭條欲何適出處庶可齊 이ᄂᆞᆫ出ᄂᆞᆫ과隱處ᄅᆞᆯᄒᆞᆫ가지로너겨富貴ᄒᆞᆫ모로ᄇᆡ가난ᄒᆞᆫ樂은이긔에마ᄅᆞᆯ디라니ᄅᆞᆯ시라○蕭條히어드러가고져ᄒᆞ미오出處ᄅᆞᆯ거의可히ᄀᆞᄌᆞ기ᄒᆞᆯ디로다
衣上見新月霜中登故畦 옷우희새ᄃᆞᆳ비ᄎᆞᆯ보고서리가온대녯이러모로ᄋᆞᆯ아가라
濁醪初自熟東城多鼓鼙 時예有東川民子璋之亂ᄒᆞ니라○흐린수리처엄니구므로브터東城에사호맷붑소리하도다

漲溪

當時浣花橋溪水纔尺餘 當時ㅅ浣花ㅅᄃᆞ리예 시냇믌기픠 아야라 자남ᄌᆞᆨᄒᆞ더니라 白石明可把水中有行車 此ᄂᆞᆫ皆言水淺之狀ᄒᆞ다○ 힌돌히 ᄇᆞᆯ가 可히자ᄇᆞ리오 믌가온ᄃᆡᄂᆞᆫ 술위 잇ᄂᆞ니라 秋夏忽泛溢豈唯入吾廬 此ᄂᆞᆫ言水漲ᄒᆞ다○녀름과 ᄀᆞᄋᆞᆯ히 忽然히 넚디니 엇뎨 오직 내 지븨 들ᄲᅮ니리오 蛟龍亦狼狽況是鼈與魚 狼狽ᄂᆞᆫ二獸名이니 相付而行ᄒᆞ되 失其一 則無據ᄒᆞᆯᄊᆡ 倉皇失據者ᄅᆞᆯ 謂之狼狽니라 ○蛟龍ㅣ ᄯᅩ 어려우니 ᄒᆞ믈며 기쟈래와 고기ᄯᆞ녀 玆晨已半落歸路

跬步蹤 半步曰跬ㅣ라 跬步蹤ᄂᆞᆫ 므리 기퍼 가디 몯ᄒᆞᆯ시라 ○ 이 아ᄎᆞ미 ᄒᆞ마 半만 므리 ᄲᅵ요ᄃᆡ 도라갈 길해 半 거름도 드크리 호라 馬嘶未敢動前有深填淤 ᄆᆞ리 우러셔 가티여 위ᄃᆞᆮ 몯ᄒᆞᄂᆞ니 알ᄑᆡ 기픈 즌ᄒᆞᆰ기 메엣도다 青屋東麻散亂床上書 집東녁 깃사ᄆᆞᆫ ᄑᆞ르렛고 床우흿 글워른 흐러어즈럽도다 不意遠山雨夜來復何如 먼 뫼햇 비ᄅᆞᆯ 너기디 아니ᄒᆞ다니 바ᄆᆡ 또 엇뎨ᄒᆞ고 我遊都市間晚憩必村墟乃知久行客終日思其居 村墟ᄂᆞᆫ 指草堂也라 ○ 내 都邑 저잿 ᄉᆞ이예셔 노니나가나 나조히 쉬유믈 반ᄃᆞ기 村墟에 가노니 오래 ᄃᆞᆫ니ᄂᆞᆫ 나그내 나리 몯

ᄃᆞ록 제사ᄂᆞᆫ 뎌 ᄉᆞ
랑ᄒᆞ몰 알와라

太平寺泉眼

招提憑高岡疎散連草莽 招提ᄂᆞᆫ 佛寺也ㅣ라 ○뎔 리 노ᄑᆞᆫ 뫼
헤 브텟ᄂᆞ니 훤ᄒᆞ야
ᄑᆞᆯ서리예 니엇도다 出泉枯柳根汲引歲月
古 이운 버ᄃᆞᆳ 불휘예셔 ᄉᆡ미 나ᄂᆞ니
기려 먹ᄂᆞᆫ ᄒᆡᄃᆞ리 오라도다 石間見海
眼天畔縈水府 海水ㅣ 地中ᄋᆞ로셔 소사나
니 눈 ᄀᆞᆮᄒᆞᆯᄉᆡ 海眼ㅣ라 ᄒᆞᄂᆞ니
泉脉ㅣ 하ᄂᆞᆳ ᄀᆞᆺ 水府에 버므리셔 잉어 기소
사나ᄂᆞ니라 ○ 돐 ᄉᆞ이예 바ᄅᆞᆳ 누늘 보니 하
ᄂᆞᆳ ᄀᆞᆺ 水府애
버므렛도다 廣深丈尺間宴息敢輕侮 너븨 와 기

픠와 丈ㅅ만 ᄒᆞᆫ ᄉᆞ이예 편안히 靑白二小蛇
쉬여셔 구티여 업시워리아

幽姿可時覩 프르니와 ᄒᆡᆫ 두 져근 ᄇᆡ야ᄆᆡ 幽 ᄒᆞᆫ 양ᄌᆞᄅᆞᆯ 어루 時時예 보리로
다

如綵氣或上 爛熳爲雲雨 실 ᄀᆞᆺᄐᆞᆫ 氣運ㅣ 시혹 오ᄅᆞ면 펴
뎌 구룸과 비ᄢᅵ ᄃᆞ외ᄂᆞ니라

山頭到山下 鑿井不盡土 不盡 土ᄂᆞᆫ 기피 ᄑᆞ디 아니ᄒᆞ야도 므리 곳 날시라 ○뫼ㅅ 그ᄐᆞ로셔 뫼ㅅ 아래 니르리 우믈 ᄑᆞ몰 ᄒᆞᆯ
골ᄃᆞ다 ᄒᆞᆫ더아 니ᄒᆞᄂᆞ니라

取供十方僧 香美勝牛乳 가져 다가
十方앳 즁을 이받ᄂᆞ니 香美 호ᄆᆡ 쇠져지라와 더으니라

北風起寒文 弱藻舒翠縷 北녁 ᄇᆞᄅᆞ매 치운 水文ㅣ 나ᄂᆞ니 보ᄃᆞ라온 말와 ᄆᆞᆫ 프른 시리 펫ᄂᆞᆫ

돗ᄒᆞ도다 明涵客衣淨細蕩林影趣 ᄇᆞᆰ기 나그내 오ᄉᆞᆯ 우려 조코 ᄀᆞᄂᆞ리 수픐 그르메ᄅᆞᆯ 이어 가놋다 何當宅下流餘潤通藥圃三春濕黃精一食生毛羽 黃精은 草名ㅣ ㅓ食之長生ᄒᆞᄂᆞ니라 生毛羽ᄂᆞᆫ 謂爲飛仙也ㅣ라 ○ 어느저 그 ᄂᆞ리 흘러 가ᄂᆞᆫ ᄃᆡ 사라셔 나ᄆᆞᆫ 저주미 藥圃애 ᄉᆞᄆᆞ차 三春에 黃精ㅣ 짓거든 ᄒᆞᆫ 번 머거 터리와 짓과ᄅᆞᆯ 나게 ᄒᆞ려뇨

、長江二首

衆水會涪萬瞿塘爭一門 瞿塘은 三峽之門ㅣ니라 ○ 믈ᄀᆞ리 涪州 萬州로 몯ᄂᆞ니 瞿塘애 ᄒᆞᆫ 門으로 ᄃᆞ토와 흐르놋다 朝宗人共挹盜

賊爾誰尊이ᄂᆞᆫ믈도바ᄅᆞᆯ로朝宗ᄒᆞᄂᆞ니盜賊가엇뎨골외ᄂᆞᆫ다니ᄅᆞ시라○바ᄅᆞᆯ로朝宗ᄒᆞ몰자ᄇᆞ미다挹取ᄒᆞᄂᆞ니盜賊아니ᄂᆞᆫ누ᄅᆞᆯ尊奉ᄒᆞᄂᆞᆫ다孤石隱

如馬高蘿垂飲猿ㅣ니灩澦石ㅣ高ㅣ二十丈許夏水ㅣ漲則沒而如馬ᄒᆞᄂᆞ니라나비藤蘿ᄅᆞᆯ자바ᄃᆞ리여飮水ᄒᆞᄂᆞ니라○외로왼돌ᄒᆞᆫ그윽ᄒᆞ야ᄆᆞᆯ곧고노ᄑᆞᆫ藤蘿엣믈먹ᄂᆞᆫ나비ᄃᆞ렛도다歸心異波浪何事即飛

飜도라가고져ᄒᆞᄂᆞᆫᄆᆞᅀᆞᄆᆞᆫ믌결와다ᄅᆞ거시ᄂᆡ므슷일로곳ᄂᆞ라두위잇ᄂᆞ뇨浩浩終不息乃知東極臨浩浩ᄂᆞᆫ水流皃ㅣ라言此水ㅣ必歸東海니라○浩浩ᄒᆞ야ᄆᆞᄎᆞ매긋디아니ᄒᆞᄂᆞ니東極에臨ᄒᆞ야갈고돌아노라衆

流歸海意萬國奉君心 믈흐르ᄂᆞᆫ므릐바ᄅᆞᆯ로가ᄂᆞᆫᄠᅳ디여萬國의님금을奉戴ᄒᆞᆫᄂᆞᆫᄆᆞᄋᆞ미로다 色借瀟湘闊聲驅灩澦深 비ᄎᆞᆫ瀟湘ㅅ너부믈빌오소리ᄂᆞᆫ灩澦ㅅ기픈ᄃᆡ모라가ᄂᆞ다 未辭添霧雨接上遇衣襟 霧雨의ᄯᅴ우믈마디아니ᄒᆞ니니어올아옷기ᄌᆞᆯ맛나ᄂᆞ다

、瞿塘兩崖

三峽傳何處雙崖壯此門 兩崖ㅣ對峙ᄒᆞ고中貫一江ᄒᆞ니望之如門ᄒᆞ니라이傳ᄒᆞ야니ᄅᆞᄂᆞᆫ디라 ○三峽을어듸ᄅᆞᆯ傳ᄒᆞ야니ᄅᆞᄂᆞ니오두비렛이門이健壯ᄒᆞ도다 入天猶石色穿水忽雲根 雲根요石也ㅣ

라○하ᄂᆞᆯ해드러도오히려돐비치오ᄆᆞᄅᆞᆯ돌위드리로ᄆᆞᆫ드사구룸블휘로다

孫攫髯虬古蛟龍窟宅尊 나ᄇᆞᆫ입거우지ᄅᆞᆯ외오蛟龍ᄋᆡ사논뒤납도다

羲和冬馭近愁畏日車翻 羲和의겨ᅀᅳᆯ駕馭호미이돌해갓가오니ᄒᆡᄐᆞᆫ술위두위틸가저허시름ᄒᆞ노라

、瞿塘懷古

西南萬壑注勍敵兩崖開 西南ᄋᆞ로萬壑앳므리븟ᄂᆞ니센비편ᄀᆞᆺᄒᆞᆫ두비렌여럿도다

地與山根裂江從月窟來 月窟ᄋᆞᆫ西方月沒處ㅣ라○ᄯᅡᄒᆞᆫ뫼불휘와다ᄆᆞᆺᄠᅥ디여ᄃᆞᆺ고ᄀᆞᄅᆞᄆᆞᆫ月窟로브터오놋다

削成

當白帝空曲隱陽臺 削成은言兩崖ㅣ如削成也ㅣ라○갓가일운듯ᄒᆞ야白帝城을當ᄒᆞ얏고뷘구비옌陽臺ㅣ그윽ᄒᆞ얏도다

疏鑿功雖美陶鈞力大哉 言禹의治水之功ㅣ雖美而天地의造化之力ㅣ大也ㅣ라○헌히ᄑᆞᆫ功ㅣ비록아ᄅᆞᆷ다오나造化의ᄆᆡᆼᄀᆞ론히미크도다

ㅡ 灩澦堆

巨石水中央江寒出水長 큰돌히믈가온ᄃᆡ로소니ᄀᆞᄅᆞᆷ비치서늘ᄒᆞ니므레 네와다기도다

沈牛荅雲雨如馬戒舟航 [illegible]ㅣ이므레비를비러비오나ᄯᅩ必沈牛ᄒᆞ야報荅ᄒᆞᄂᆞ니라이돌히믌밧긔몰한내와ᄃᆞ[illegible]

면벼ᄅᆞᆯ ᄒᆡ야ᄇᆞ리ᄂᆞ니라○쇼록ᄃᆞ마 雲雨를 報答ᄒᆞᄂᆞ니 몰곤거든 비ᄃᆞ료ᄆᆞᆯ 警戒ᄒᆞ라ᄂᆞ니

天意存傾覆神功接混茫 하ᄂᆞᆳᄠᅳ든 업더ᄇᆞ료ᄆᆞᆯ 뒷ᄂᆞ니 鬼神의 ᄆᆡᆼᄀᆞ론 功ᄋᆞᆫ 아ᄋᆞ라ᄒᆞᆫ 메니엇도다

干戈連解纜行止憶垂堂 垂堂은 謂坐堂外邊ㅣ니 千金之子ㅣ 猶畏墮而坐不垂堂ㅣ어ᄂᆞᆯ 甫ᄂᆞᆫ 有乘舟之危ᄒᆞᆯᄉᆡ ᄉᆞ랑ᄒᆞ리라○干戈ㅅ 서리예 니어 빗주를 글어 ᄃᆞ니노니 녀며 말며 ᄒᆞᄆᆡ 堂ㅅᄀᆞ애 안조ᄆᆞᆯ ᄉᆞ랑ᄒᆞ노라

灩澦

灩澦既沒孤根深西來水多愁太陰 灩澦ㅣ ᄒᆞ마 ᄌᆞᆷ

겨외로온불휘기프니西ㅅ녀그로셔오江 / 눈므리하니기어드오믈시름ᄒᆞ노라

天漢鳥雙去風雨時時龍一吟ᄀᄅᆞᆶ하ᄂᆞᆯ / 히아ᄃᆞᆨᄒᆞ

나새ᄃᆞᆯ콤ᄂᆞ라가고ᄇᆞᄅᆞᆷ비예 / ᄂᆞᆫ時時예龍ㅣᄒᆞᆫ번우놋다

四首估客商胡淚滿襟이ᄂᆞᆫ므리어려운ᄉᆞᄅᆞᆷ / 니ᄅᆞ니라○비ᄐᆞᆫ사ᄅᆞᆷ

ᄅᆞᆷ과고기잡ᄂᆞᆫᄉᆞᄅᆞᄆᆞᆫ놀래블러셔머리ᄅᆞᆯ / 모로혀보고흥졍ᄒᆞᄂᆞ나그내와흥졍ᄒᆞᆯ되ᄂᆞᆫ

눖므리옷기제 / ㅣᄃᆞᆺᄒᆞ도다

寄語舟航惡年少休翻鹽井

橫黃金言翻賣井鹽而橫得黃金ㅣ必有覆 / 舟之患也ㅣ라○비예모단저믈사

ᄅᆞᆷᄃᆞ려ᄇᆞ리마ᄅᆞᆯ브티노니鹽井을 / 두위이저黃金을橫得ᄒᆞ디말라

、渡江

春江不可渡二月已風濤 봄ᄀᆞᄅᆞᄆᆞᆯ 可히 건너디 몯ᄒᆞ리로소니 二月에 ᄒᆞ마 ᄇᆞᄅᆞ맷 믌겨리로다 舟楫欹斜疾魚龍偃臥高 ᄇᆡᄂᆞᆫ 기우러뎌 ᄲᆞᆯ리 가ᄂᆞ니 魚龍ᄋᆞᆫ 히ᄌᆞ려 누어 쉬미 놉도다 渚花張素錦汀草亂青袍 믌ᄀᆞᆺ 고ᄌᆞᆫ 힌 錦ㅣ 폇고 믌ᄀᆞ이 프른 퍼런 요사 어조렵도다 戲問垂綸客悠悠見汝曹 낛줄 드리웟ᄂᆞᆫ 논 더브러 노ᄅᆞᆺ ᄉᆞ롬 묻노라 悠悠히 이 ᄯᅩ 믈 너희 무를 보ᄂᆞ리

、巴西驛亭觀江漲呈竇十五使君

宿雨南江漲波濤亂遠峰 言波濤ㅣ如山也ㅣ라○오란비예
南녁ᄀᆞᄅᆞ미밀이니믌겨른먼뫼부리여즈럽도다孤亭凌噴薄萬井
逼春容 凌은上也ㅣ라噴薄은言水漲也ㅣ라春容은撃鐘狀ㅣ니此ᄂᆞᆫ借言水
勢ㅣ若撃鐘聲也ㅣ라○외ᄅᆞ왼亭子애므리ᄉᆞᆷ겨오ᄅᆞᄂᆞ니一萬市井엔므리春容ᄒᆞ
야逼近ᄒᆞ도다霄漢愁高鳥泥沙困老龍 言困雨水ᄒᆞ야鳥ㅣ
不得食ᄒᆞ고龍困於泥中也ㅣ라○하ᄂᆞᆯ해노ᄑᆞᆫ새시름ᄒᆞ고몰애예늘근龍ㅣ勞困ᄒᆞ
도다天邊同客舍携我豁心胷 하ᄂᆞᆯᄀᆞ이와客舍애ᄒᆞᆫᄃᆡ이슈
니나ᄅᆞᆯ자바셔ᄆᆞᄋᆞ몰훤케ᄒᆞᄂᆞ다

、又一首

轉驚波作怒即恐岸隨流 ᄀᆞ장 믌겨리 怒ᄅᆞᆯ 니ᄅᆞ와도 몰놀라고 곤두 ᄃᆞᆯ기 조차 흘러 갈가 전노라 賴有杯中物還同海上鷗 ᄒᆡᆼ혀 잔ᄂᆞ온 뒤 수리 잇ᄂᆞ니 도ᄅᆞ혀 바ᄅᆞᆳ 우흿 ᄀᆞᆯ며기 ᄀᆞᆮᄒᆞ니 이슈라 關心小

剡縣傍眼見楊州 言剡縣楊州ㅣ恐為水之沉後也ㅣ라 ○ ᄆᆞᄋᆞ매 가리셔 剡縣ㅣ 죠고마ᄒᆞᆫ가 시브고 누네 바라 楊州ㅣ 뵈ᄂᆞ다 為接情人飲

朝來減片愁 情人ᄋᆞᆫ 指使君ㅣ라 ○ 有情ᄒᆞᆫ 사ᄅᆞᄆᆞᆯ 相接ᄒᆞ야 술 머구믈 為ᄒᆞ야 아ᄎᆞ매 죠고맛 시르믈 더ᄂᆞ다

又呈竇使君

向晩波微綠連空岸脚青 나조ᄒᆞᆯ 向ᄒᆞ야 믌겨리 져기 프르러

가ᄂᆞ니 虛空애 니ᅀᅳᆫ 두듨ᄀᆡ 프르도다 日無春有暮愁與醉無

醒 ᄒᆡᄂᆞᆫ 날과 無ᄒᆞ야 나조ᄒᆡ ᄃᆞ외ᄂᆞ니 시르믄 술 醉홈과 다 몯ᄒᆞ야 ᄭᆡᆯ 저기 업도다

漂泊猶杯酒踟蹰此驛亭 ᄇᆡ브티 ᄃᆞᆫ뇨매 오히려 盞잔ᄋᆞᆯ 먹노

니 이 驛人亭子애 머므로라 相看萬里別同是一浮萍 萬里

예 여희여 ᄃᆞᆫ뇨ᄆᆞᆯ 서르 보니 ᄒᆞᆫ가지로 이 ᄒᆞᆫ낫 浮萍ㅣ ᄀᆞᆺ도다

江漲

江發蠻夷漲山添雨雪流 蜀水之源이皆出夷地니라ㅇᄀᆞᄅᆞ미蠻夷예셔나밀엿ᄂᆞ니뫼해ᄂᆞᆫ雨雪ㅣ노가흐로미더으돗다 太聲吹地轉高浪蹴天浮 큰소리ᄂᆞᆫᄯᅡ해불여옮고노ᄑᆞᆫ믌겨리ᄂᆞᆫ하ᄂᆞᆯ홀바차ᄠᅧ도다 魚鼈為人得蛟龍不自謀 言水ㅣ張溢故로魚鼈蛟龍이皆失勢也ㅣ니라ㅇ고기와자래ᄂᆞᆫ사ᄅᆞᄆᆡ어들거시ᄃᆞ외얏고蛟龍ᄋᆞᆫ제모ᄆᆞᆯᄭᅬᄒᆞ디몯ᄒᆞᄂᆞᆺ다 輕帆好去便吾道付滄洲 가ᄇᆡ야온빗돗ᄀᆞ로됴히가미됴ᄒᆞ니내道ᄅᆞᆯ므레브튜리라

、江漲

江漲柴門外兒童報急流 서브로ᄒᆞᆫ門밧긔 ᄀᆞᄅᆞ미 밀엿거ᄂᆞᆯ 아ᄒᆡ ᄃᆞᆯ히 ᄲᆞᆯ리 흘러가ᄆᆞᆯ 알외ᄂᆞ다 下床高數尺倚杖沒中洲 平床애 ᄂᆞ려보니 노ᄑᆡ 두어자히오 막대를 지여셔 슈니 가온ᄃᆡ 믌ᄀᆞ이 ᄌᆞᆷᄂᆞ다

細動迎風燕輕搖逐浪鷗 微細히 ᄇᆞᄅᆞᆷ 맛ᄂᆞᆫ 져비ᄅᆞᆯ 뮈우고 가비야이 믌결 좃ᄂᆞᆫ ᄀᆞᆯ며기ᄅᆞᆯ 이어ᄂᆞ다 漁人縈小楫容易拔船頭 拔船頭ᄂᆞᆫ 開船而行也ㅣ라 ○ 고기자블 사ᄅᆞ미 죠고맛 비치ᄇᆡ 므리셔 수이 ᄇᆡᆺ머리ᄅᆞᆯ ᄲᆡ혀가ᄂᆞ다

臨邑舍弟ㅣ書ㅣ至ᄒᆞ니 苦雨에 黃河ㅣ

泛溢ᄒᆞ야 隄防之患은 簿領所憂ᄒᆞᆯ시라 因寄此詩ᄒᆞ야 用寬其意ᄒᆞ노라

二儀積風雨百谷漏波濤라 二儀ᄂᆞᆫ天地也ㅣ라 ○二儀예ᄇᆞᄅᆞᆷ비사ᄒᆡ시니온묏고리믌겨리ᄉᆡ여디ᄂᆞ다

聞道洪河折遙連滄海高니ᄅᆞ거늘드로니큰ᄀᆞᄅᆞ미ᄢᅥ뎌아ᄋᆞ라히바ᄅᆞ래니어노팟도다

職司憂悄悄郡國訴嗷嗷이라 職司ᄂᆞᆫ當職司水之官이라 悄悄ᄂᆞᆫ憂貌ㅣ라 ○職司ᄂᆞᆫ시름ᄒᆞ야悄悄ᄒᆞ고郡國은告訴ᄒᆞ야셔수워리놋다

舍弟卑棲邑防川領簿曹지빗아ᄋᆡ棲止ᄒᆞᆫ고ᄋᆞᆯ히ᄂᆞᆺ가오니내ᄒᆞᆯ마고미簿曹ㅣ

게 領히 엿도다 尺書前日至 版築不時操 版築은 以版으로 夾土築之니 言隄防之後ㅣ라 ○ 자맛 글워리 어젯날 오니 版築호믈 ᄢᅴ니 아닌 지 긔자 뱃도다

難假黿鼉力 空瞻烏鵲毛 穆王ㅣ 至九江애 黿鼉ㅣ 爲橋ᄒᆞ며 牛女渡河애 烏鵲ㅣ 成橋ᄒᆞ나 此ᄂᆞᆫ 言難用是物ᄒᆞ야 爲隄防也ㅣ라 ○ 黿鼉의 히믈 비로미 어려우며 烏鵲의 터리 도쇽졀업시 보리로다

燕南吹畎畝 濟上浚逢篙 燕南 濟上은 皆地名ㅣ니 다 黃河 泛溢處ㅣ라 ○ 燕南앤 받이리메 므리 불엇고 濟上앤 다 븟과 박괘 ᄃᆞᆷ겻도다

螺蚌滿近郭 蛟螭乘九皐 다 므리 泛溢ᄒᆞ욘 이를 니르니라 ○ 골왕이 갓가온 城郭애 ᄀᆞ득ᄒᆞ얏고 蛟龍ㅣ

아홉 ᄇᆞᆰ두듥 글텟도다 徐關深水府碣石小秋毫 徐關은 齊地也ㅣ라 言碣石山ㅣ没於水ᄒᆞ니 其小ㅣ如秋毫也ㅣ라○徐關ᄋᆞᆫ 기픈 믈 마ᄋᆞ리ᄃᆞ외얏고 碣石ᄋᆞᆫ 죠고마ᄒᆞ야 ᄀᆞ올 터리 ᄀᆞᆺ도다 白屋留孤樹青天失萬艘 茅屋ᄋᆞᆫ 벼ᄂᆡᄀᆡ ᄂᆞᆯ나모 ᄲᅮᆫ 잇고 비ᄂᆞᆫ 青天人ᄉᆞ이예 벼갈시라○새지 빈 외라 흰 남기 잇고 프른 하ᄂᆞᆯ헌 一萬 비ᄅᆞᆯ 일토다 吾衰同泛梗利涉想蟠桃 梗ᄋᆞᆫ 들구리라 蟠桃ᄂᆞᆫ 在東海中山ᄒᆞ니 甫ㅣ言老年羈旅ㅣ如漂梗然ᄒᆞ니 欲乘水漲ᄒᆞ야 至蟠桃之仙境也ㅣ라○내 衰老ᄒᆞ야 벼ᄃᆞ니ᄂᆞᆫ 들굴와ᄀᆞ도니 ᄃᆞ히건나가 蟠桃잇ᄂᆞᆫ 뒤ᄅᆞᆯ 스치노라 倚賴天涯釣猶能掣巨鼇

龍伯ㅅ나랏사ᄅᆞ미여슷鼇ᄅᆞᆯ자바니라此句ᄂᆞᆫ乃用寬其意也ㅣ니能히믈를마ᄀᆞ면○반ᄃᆞ기褒功ᄒᆞᆯ어라이시리라ᄒᆞ논마리라하ᄂᆞᆳᄀᆞ온지여셔낫그면오히려能히큰거부블자바내리라

天池

天池馬不到嵐壁鳥纔通 天池ᄂᆞᆫ言高在山上也ㅣ라○天池예ᄆᆞᄅᆡ가디몯ᄒᆞᄂᆞ니구룸ᄭᅵᆫ石壁에새애야라ᄉᆞᄆᆞ차가ᄂᆞ다

百頃青雲杪曾波白石中 온이러미나너븐므리프른구룸그테잇고層層인믌겨ᄅᆞᆫ힌돐가온ᄃᆡ로다

鬱紆騰秀氣蕭瑟浸寒空 鬱紆ᄂᆞᆫ氣盛也

ㅣ라 浸寒空은 하ᄂᆞᆯ히 브레 드리 비취여실 시라○欝紆히 ᄃᆞᆫᄒᆞᆫ 氣運ㅣ ᄂᆞᄂᆞ니 蕭瑟히 ᄎᆞᆫ虛空을 ᄌᆞ매도다

直對巫山出無疑夏禹功

言疑其 爲禹의 所鑿也ㅣ라○바ᄅᆞ 巫山ᄋᆞᆯ 對ᄒᆞ야 ᄂᆞᆺᄂᆞ니 夏禹의 功인가 조처 疑心ᄒᆞ노라

魚龍開闢有菱芡古今同

고기와 龍괘 開闢브터 잇ᄂᆞ니 말왐 ᄆᆞᆯ 녜와 어제예 ᄒᆞᆫ가지로다

聞道奔雷黑初看浴日紅

니ᄅᆞ거ᄂᆞᆯ 드로니 ᄃᆞᆮᄂᆞᆫ 울에 어드우며 沐浴ᄒᆞᄂᆞᆫ 힛비치 블고ᄆᆞᆯ 처엄 보ᄃᆞ다

飄零神女雨斷續楚王風

宋玉의 風賦에 此ᄂᆞᆫ 大王之雄風ㅣ라 ᄒᆞ다○神女의 비ᄂᆞᆫ 블어ᄠᅳᆫ 듣고 楚王의 ᄇᆞᄅᆞᄆᆞᆫ 그ᄎᆞ락 니으락 ᄒᆞᄂᆞᆺ다

欲問支機石如臨

獻寶宮 張騫ㅣ天河애가織女의뵈틀괴온 돌ᄒᆞᆯ가져오니라周穆王ㅣ河伯人
宮이가寶器ᄅᆞᆯ보니此ᄂᆞᆫ天池로比天河與 河伯宮也ㅣ라○뵈틀괴온돌ᄒᆞᆯ묻고져ᄒᆞᆫ
노니珍寶ᄅᆞᆯ받ᄌᆞᆸ던宮 의臨ᄒᆞ얫ᄂᆞᆫ듯ᄒᆞ도다 九秋驚鴈序萬里狎
漁翁 九秋에그려긔ᄎᆞ례로ᄂᆞ로몰ᄒᆞ마올 녀놀라노니萬里예와고기잡ᄂᆞᆫ한아
비ᄅᆞᆯ親 狎호라 更是無人處誅勞任薄躬 이ᄂᆞᆫ幽僻 之處ㅣ라
可싸居ㅣ니誅鉏茅棄之勞ᄅᆞᆯ네모매므 던히너ᄀᆔ리라ᄒᆞ니라○ᄯᅩ이사ᄅᆞᆷ업슨什
히로소니프엉귀뷔여ᄇᆞ롤잇부믈 사오나온모몰므던이너ᄀᆔ리라라
、登白馬潭

水生春纜沒日出野船開므리나봄빗주리ᄃᆞ모니ᄒᆡ돋거ᄂᆞᆯ

ᄆᆡ햇ᄇᆡᄅᆞᆯ여러가노라 宿鳥行猶去花叢笑不來笑不來ᄂᆞᆫ

ᄇᆡ디나가니믌ᄀᆞᆺ고지믈러가ᄂᆞᆫᄃᆞᆺᄒᆞᆯ시라○새자거ᄂᆞᆯ녀오히려가노니곳볼기ᄅᆞᆯ나

아ᄋᆞ디아니ᄒᆞ몰웃노라 人人傷白首處處接金杯사ᄅᆞᆷ마다

셴머리ᄅᆞᆯ슬ᄂᆞ니곧마다金잔ᄂᆞᆯ相接ᄒᆞ라 莫道新知要南征且

未回甫ㅣ荊衡으로가도라오디아니ᄒᆞ릴셔옛새사괴ᄂᆞᆫ사ᄅᆞᆷ몰속절업시디가

나가○새려아논사ᄅᆞ미조ᄋᆞᄅᆞ외다ᄒᆞ야니ᄅᆞ디마롤디니南으로가도라오디아니

ᄒᆞ기라

都邑 古詩二首 律詩三十五首

閬山歌

閬州城東靈山白閬州城北玉臺碧 閬州ㅅ城東녀긔 靈山ㅣ 허여ᄒᆞ고 閬州ㅅ城北녀긔 玉臺ㅣ 퍼러ᄒᆞ도다

松浮欲盡不盡雲江動將崩未崩石 소남ᄀᆞᆫ 업슬 ᄃᆞᆺ 업디 아니ᄒᆞᆯ ᄃᆞᆺᄒᆞᆫ 구루미 ᄢᅵᆺ고 ᄀᆞᄅᆞᆷ 맨 믌어딜 ᄃᆞᆺ 아니 믈어딜 ᄃᆞᆺᄒᆞᆫ 돌히 뮈놋다

那知根無鬼神會已覺氣與嵩華敵 엇뎨 ᄲᅮ릐 鬼神ᄋᆡ 모도미 업수믈 알리오 氣運ㅣ 嵩山 華山과 다ᄆᆞᆺ 골와ᄒᆞ요믈 ᄒᆞ마 아노라

中原格鬪且未歸應

結茅裌看青壁 (兩相敵曰格鬪ㅣ라○中原에셔사홈몯홀시가디몯ᄒᆞ노니당당이새지블지어셔프른石壁을보고이슈리라)

閬水歌

嘉陵江色何所似石黛碧玉相因依 (嘉陵人ᄀᆞ롬비츤므스거시ᄀᆞᄐᆞ니오石黛와碧玉괘서르브텟ᄂᆞᆫᄃᆞᆺᄒᆞ도다)

正憐日破浪花出更復春從沙際歸 (浪花ᄂᆞᆫ믌겨리곳ᄀᆞᆺᄒᆞᆯ시라몰갯ᄀᆞ이프리도ᄃᆞ니보미도라오ᄆᆞᆯ알리라○ᄒᆡ믌겨를헤텨도다나몰교히憐愛ᄒᆞ노니ᄯᅩ보미몰앳ᄀᆞ올조차도라오ᄂᆞ다)

巴童蕩槳欹側過水鷄含魚

來去飛巴州人아히ᄂᆞᆫ비촘이어기우시디나가고믌ᄃᆞᆯᄀᆞᆫ고기믈므러오락가락ᄒᆞᄂᆞ다

閬中勝事可腸斷閬州城南天下稀閬州城南애山極秀麗ᄒᆞᆯ시謂之錦屛山ㅣ라ᄒᆞᄂᆞ니爲天下第一ㅣ니라○閬中엣됴ᄒᆞᆫ이리어루애긋브니閬州人城南녀근天下애드므도다

建都十二韻寶應元年에以京兆府爲上都河南府爲東都鳳翔府爲西都江陵府爲南都大原府爲北都ᄒᆞ니라

蒼生未蘇息胡馬半乾坤百姓ㅣ쉬디몯ᄒᆞ얫ᄂᆞ니되ᄆᆞ리乾坤애半만ᄒᆞ도다

議在雲臺上誰扶黃屋尊黃屋은天子人

車盖ㅣ言雲臺예諸公ㅣ議國事ᄒᆞ야建都
ᄒᆞᄂᆞ니誰能扶持王室也오讒非急務也ㅣ
라○議論ᄒᆞ미雲臺ㅅ우희잇
ᄂᆞ니뉘黃屋ㅅ尊을扶持ᄒᆞᆯ고建都分魏闕
下詔闢荊門荊門은指江陵ᄒᆞ다○都邑을
녜魏闕올ᄂᆞᆫ화詔書ᄅᆞᆯᄂᆞ리
와荊門에
여놋다恐失東人望其如西極存此ᄂᆞᆫ言
移都江
陵則開東西蜀ㅣ阻隔也ㅣ라○東녁사ᄅᆞ
미ᄇᆞ라오ᄆᆞᆯ일흘가젇노니그西極녁安存
ᄒᆞ맨엇
더ᄒᆞᆯ고時危當雪恥計大豈輕論此ᄂᆞᆫ甫ㅣ
議建都江
陵之議無益於時也ㅣ라○時節ㅣ危亂ᄒᆞᆫ
저긔반ᄃᆞ기붓그러우믈시ᄉᆞᆯ디니혜아료
미크니엇뎨가비
야이議論ᄒᆞ리오雖倚三階正終愁萬國飛

三階ᄂᆞᆫ天之三台니三階ㅣ正ᄒᆞ면天下ㅣ大平ᄒᆞᄂᆞ니此ᄂᆞᆫ言이제예建都호미비록天下ᄅᆞᆯ便安케코져ᄒᆞ나然偏在一方ㅣ라未能鎭定萬國也ㅣ니라○비록三階ㅣ正ᄒᆞ요ᄆᆞᆯ브터ᄒᆞ나ᄆᆞᄎᆞᆷ맨萬國ㅣ두위틸가사ᄅᆞᆷᄒᆞ노라

帝裾恨不死漏網辱殊恩 魏人辛毗ㅣ牽帝裾而諫ᄒᆞ니라 網漏ᄂᆞᆫ고기그믈버서나ᄆᆞ로罪버서나ᄆᆞᆯ가ᄌᆞᆯ비니라此ᄂᆞᆫ甫ㅣ言嘗諫房琯之事而見貶ᄒᆞ나不加重譴也ㅣ라○옷가ᄉᆞᆯ글ᄃᆞᆯ이야죽디아니호니ᄅᆞᆯ뉘웃노니그므레석여더殊異ᄒᆞᆫ恩惠ᄅᆞᆯ辱ᄃᆞ외에호라

永負漢庭哭遙憐湘水魂 文帝時예賈誼痛哭陳治安策ᄒᆞ고屈原ㅣ諫懷王不聽而投湘水ᄒᆞ니甫ㅣ未能如賈誼之諫而憐原之死也ㅣ라○

湖엣우루믈기리져ᄇᆞ리고 窮冬客江劒

湘水엣넉술아ᄋᆞ라히술노라

隨事有田園 江劒ᄋᆞᆫ指蜀ᄒᆞ다○기픈겨으레江劒에나그내ᄃᆞ외요니사ᄅᆞᆷ이ᄅᆞᆯ조차田園ᄋᆞᆯ뒷노라

風斷青蒲節霜埋翠竹根 上句ᄂᆞᆫ喩衰老ᄒᆞ고下句ᄂᆞᆫ喩守節ᄒᆞ니라○ᄇᆞᄅᆞᄆᆞᆫ프른줄픗ᄆᆞᄃᆡᄅᆞᆯ긋고서리ᄂᆞᆫ프른댓불휘ᄅᆞᆯ무덧도다

衣冠空穰穰關輔久昏昏 穰穰ᄋᆞᆫ衆多也ㅣ라關輔ᄂᆞᆫ關中三輔ㅣ니言長安애有寇亂也ㅣ라○衣冠ㅣ쇽졀업시하니關輔ㅣ오래어드웻도다

願枉長安日光輝照北原 此ᄂᆞᆫ言時예太原河北之地ㅣ未定ᄒᆞ니쇽졀업시江陵에建都마ᄅᆞ시고모로매鎭定河北홀디니라

○願ᄒᆞᆫᄃᆞᆫ 長安ㅅ 히ᄅᆞᆯ 구
펴 비츨 北原에 비취쇼셔

江陵望幸

雄都元壯麗望幸欻威神 雄都ᄂᆞᆫ指江陵ㅣ라○雄盛ᄒᆞᆫ都邑ㅣ본ᄃᆡ로壯麗ᄒᆞ니믄드시威神ᄒᆞ신님그믜臨幸ᄒᆞ샤ᄆᆞᆯᄇᆞ라ᄂᆞ다 地利西通蜀天文北照秦風烟含越鳥舟楫控吳人 地利ᄂᆞᆫ西ㅅ녀그로蜀애通ᄒᆞ며天文은北으로秦에비취여시며風烟은越ㅅ새ᄅᆞᆯ머구므시며ᄇᆡᄂᆞᆫ吳ㅅ사ᄅᆞᄆᆞᆯ控帶ᄒᆞᄂᆞ니라 未枉周王駕終期漢武巡 周穆王과漢武帝다巡幸ᄒᆞ니라○周ㅅ님굼車駕ᄅᆞᆯ구펴오디아니ᄒᆞ시니ᄆᆞ

太마漢武帝人巡守를期望ᄒᆞ놋다 甲兵分聖旨居守付宗臣 時예吐蕃ㅣ陷京ㅣ어늘代宗ㅣ幸陜ᄒᆞ시고郭子儀로爲京城留守ᄒᆞ니라○甲兵에님금ᄠᅳ디ᄂᆞᆫ홧ᄂᆞ니居守호ᄆᆞ란큰臣下를맛디시놋다 早發雲臺仗恩波起涸鱗 言救南方窮困之民也ㅣ라○일雲臺옛儀仗ᄋᆞᆫ내여息波ㅣ어뎐뒷고기를니ᄅᆞ와다내쇼셔

、峽隘

聞說江陵府雲沙靜渺然 니ᄅᆞ거늘드로니江陵府에구룸과몰애왜寂靜ᄒᆞ야가ᄋᆞ라ᄒᆞ니라 白魚如切玉朱橘不論錢

言江陵之景ᄒᆞ니라○흰믌고기ᄂᆞᆫ玉ᄋᆞᆯ버
힌ᄃᆞᆺ고블근橘ᄋᆞᆫ비ᄃᆞᆯ議論아니ᄒᆞᄂᆞ니라
水有遠湖樹人今何處舡人ᄋᆞᆫ甫ㅣ自謂ㅣ니言江陵애有湖
樹之景ᄒᆞ니我ㅣ今在何處오嘆未即往之
辭ㅣ라○므랜먼ᄀᆞᄅᆞᆷ맷남기잇ᄂᆞ니사ᄅᆞ
ᄆᆞᆫ이제어듸비옛맛가니오青山各在眼却望峽中天此ᄂᆞᆫ
言今在峽隘之中ᄒᆞ야但見青山與天而未
能往江陵也ㅣ니라○ᄠᅳ른뫼히제여곰누
네잇ᄂᆞ니도로혀峽中
엣하ᄂᆞᆯᄒᆞᆯᄇᆞ라노라

、秦州雜詩十七首

滿目悲生事因人作遠遊上句ᄂᆞᆫ내ᄉᆞᆯ活ᄒᆞ논이라다ᄉᆞᆯ플시

라○누네ᄀᆞ드기보ᄂᆞᆫ사ᄂᆞᆫ이ᄅᆞᆯᄉᆞᆯ노니遶
사ᄅᆞ몰回ᄒᆞ야머리와노ᄅᆞ몰지오라

回度隴怯浩蕩及關愁遶回ᄂᆞᆫ行不進貌ㅣ라○날호야隴ᄋᆞᆯ디나와저코훤츠히關이미처와셔시름ᄒᆞ노라

水落魚龍夜山空鳥鼠秋魚龍川鳥鼠山ㅣ皆在秦州ᄒᆞ다○므른魚龍ㅅ바ᄆᆡ떠오뢰ᄒᆞᆫ鳥鼠ㅅᄀᆞ올ᄒᆡ뷔엿도다

西征問烽火心折此淹留西ㅅ녀그로녀烽火ᄅᆞᆯ묻고ᄆᆞᅀᆞ미것거뎌예와셔머므노라

州圖領同谷驛道出流沙同谷ᄋᆞᆫ縣名ㅣ오流沙ᄂᆞᆫ地名ㅣ라○ᄀᆞ올圖誌ᄂᆞᆫ同谷ᄋᆞᆯ거느렛ᄂᆞ니驛ㅅ길ᄒᆞᆫ流沙로나가ᄂᆞ다

降虜兼千

帳居人有萬家 來降ᄒᆞᆫ 되ᄂᆞᆫ 즈믄 帳ㅣ 兼ᄒᆞ야 잇고 사ᄂᆞᆫ 사ᄅᆞᄆᆞᆫ 萬家ㅣ 잇도다

馬驕朱汗落胡舞白題斜 朱汗ᄂᆞᆫ 卽汗血ㅣ오 題ᄂᆞᆫ 頟也ㅣ라 ○ ᄆᆞ리 ᄀᆞᆯ외니 블근 ᄯᆞ미 ᄠᅳ듣고 되 ᄎᆞ믈 ᄎᆞ니 힌 니마히 비슥ᄒᆞ도다

年少臨洮子西來亦自誇 臨洮ᄂᆞᆫ ᄀᆞ옰 일후미라 ○ 나 져믄 臨洮人 사ᄅᆞ미 西ㅅ녀그로셔 와 ᄯᅩ 제 쟈랑ᄒᆞᄂᆞ다

鼓角緣邊郡川原欲夜時 鼓角소리ᄂᆞᆫ ᄀᆞ올 바랏ᄂᆞᆫ ᄆᆞ올히로소니 川原ㅅ 어듭고져 ᄒᆞᄂᆞᆫ ᄢᅵ로다

秋聽殷地發風散入雲悲 殷ᄋᆞᆫ 音言角聲也ㅣ라 ○ ᄀᆞ올히 ᄯᅡ해 우려 나ᄂᆞᆫ 소리ᄅᆞᆯ 드로니 ᄇᆞᄅᆞ매 흐려 구루메 드

리슬프도다 抱葉寒蟬靜歸林獨鳥遲 此ᄂᆞᆫ 眞賦角鼓景句ㅣ니라○니ᄠᆞᆯ아 닛ᄂᆞᆫ 서늘ᄒᆞᆫ ᄆᆡ야미 괴외ᄒᆞ고 수플로 가ᄂᆞᆫ 외로왼 새 날회야 ᄂᆞ 늣다

萬方聲一槩吾道竟何之 戎馬之際예 處處예 皆育角聲ᄒᆞ니 吾何從也오 嘆悶之辭ㅣ라○萬方애 소리 ᄒᆞᆫ가지로소니 내 道ᄂᆞᆫ ᄆᆞᄎᆞᆷ매 어드러 가려뇨

城上胡笳奏山邊漢節歸 城우희 되 픐뎌를 부ᄂᆞ니 뫼ᄀᆞ인 漢節가지니 가ᄂᆞ다

防河赴滄海奉詔發金微 金微ᄂᆞᆫ 隴右地名ㅣ니 言防河之士ㅣ自金微而發也ㅣ라○河애 防戍ᄒᆞ라 滄海로 가ᄂᆞ니 詔命을 받

ᄌᆞ와金微로셔나가ᄂᆞ다士苦形骸黑林疎鳥獸稀軍士ㅣ苦

로외니얼구리김고수프리설피니새즘싱이드므도다那堪往來戍恨

觧鄴城圍安慶緒를鄴城에圍ᄒᆞ얏다가잡디몯ᄒᆞ고혀여티이제도록往來防

戍케ᄒᆞᆫ이ᄅᆞᆯ흐ᆞᆫᄒᆞᆯ시라○가며오며ᄒᆞ야防戍ᄒᆞ몰엇뎨ᄒᆞ얌직ᄒᆞ리오鄴城을ᄡᅳ렷다

가헤여듄이ᄅᆞᆯ뉘읏노다

莽莽萬重山孤城山谷間거츤萬重인뫼해외로왼城ㅣ묏골

ᄉᆞ이로다無風雲出塞不夜月臨關無風은塞名이오不夜ᄂᆞᆫ

城名ㅣ니皆在秦州ᄒᆞ다○無風엔구루미고ᄋᆡ셔나고不夜엔ᄃᆞ리關애臨ᄒᆞ얏도다

屬國歸何晩樓蘭斬未還 蘇武ㅣ爲典屬國ᄒᆞ니라 傳介子ㅣ使樓蘭ᄒᆞ야 斬其王首而還ᄒᆞ니 此ᄂᆞᆫ言使異域者ㅣ時未還也ㅣ라 ○屬國은 도라오미 엇뎨 ᄂᆞ조니오 樓蘭王ᄋᆞᆯ 버혀 도라오디 몯ᄒᆞ얏도다

烟塵一長望衰颯正摧顔 ᄂᆡ와 드트레 ᄒᆞᆫ번 기리 ᄇᆞ라고 늘구메 正히 ᄂᆞᄎᆞᆯ 믈어디유라

聞道尋源使從天此路回 漢ㅅ張騫ㅣ乘槎尋黃河ᄒᆞ야 至天河ᄒᆞ니라 ○니ᄅᆞ거늘 드로니 黃河ㅅ ᄎᆞᆯᄒᆞᆯ ᄎᆞᆽ던 使者ㅣ 하ᄂᆞᆯ홀 조차 이 길ᄒᆞ로 도라오니라

牽牛去幾許宛馬至今來 張騫ㅣ自西域來言大宛애有善馬ㅣ라ᄒᆞ야ᄂᆞᆯ 武帝ㅣ伐取之ᄒᆞ니라 ○牽牛ᄂᆞᆫ 빙으로 미언머만ᄒᆞ리오 大宛ㅅ ᄆᆞ

리이제니르리오ᄂᆞ다

一望幽燕隔何時郡國開 時예安史之亂에幽燕諸郡ㅣ未平也ㅣ니라○ᄒᆞᆫ번ᄇᆞ라온ᄃᆡᆫ幽州燕州ㅣ즈음츠니어느저긔郡國ㅣ열리어니오

東征健兒盡羌笛暮吹哀 東녀그로征伐ᄒᆞ매健壯ᄒᆞᆫ아ᄒᆡ다가니되텨히나조히부ᄂᆞᆫ소리슬프도다

今日明人眼臨池好驛亭 오ᄂᆞᆯ나래사ᄅᆞ미누늘번게ᄒᆞᆯ거슨모ᄉᆞᆯ디렛ᄂᆞᆫ됴ᄒᆞᆫ驛ㅅ亭子ㅣ로다

叢篁低地碧高柳半天青 ᄲᅵᆯ기옛ᄃᆡᄂᆞᆫ따해ᄂᆞ족ᄒᆞ야프르고노ᄑᆞᆫ버드른하ᄂᆞᆯ해半만ᄃᆡ려프르도다

稠疊多幽事喧呼閱使星 漢ㅅ李郃傳에帝遣使行州縣ㅣ어ᄂᆞᆯ有

二使星ㅣ向益州分野ᄒᆞ니後世예因以使臣을爲使星ㅣ라ᄒᆞ니라○여러 별 幽深ᄒᆞᆫ 이리하니 들에 여ᄇᆞ로ᄆᆞ란 使者ㅣ가몰 보리로다

老夫如有此不異在郊垌 늘근 노미ᄒᆞ다가 이런 ᄃᆡ를 두면 ᄆᆡ해 이숌과 다ᄅᆞ디 아니ᄒᆞ도다

雲氣接崑崙涔涔塞雨繁 涔涔은 雨多皃ㅣ니라○구룸 氣運ㅣ 崑崙애 니엣ᄂᆞ니 涔涔히 邊塞옛 비 하도다

羌童看渭水使客向河源 되아ᄒᆡᄂᆞᆫ 渭水를 보ᄂᆞ니 使客ᄋᆞᆫ 黃河人 출ᄒᆞ로 向ᄒᆞ야 가놋다

烟火軍中幕牛羊嶺上村 늬와 브른 軍中엣 幕ㅣ오 쇼와 羊과ᄂᆞᆫ 뫼우힛 ᄆᆞ올히로다

所居秋草靜正閉小蓬門 사ᄂᆞᆫ ᄯᆡ해 ᄀᆞ옰 프리

寂靜ᄒᆞ니 교히 교고 맛각 붓門을 다도라

蕭蕭古塞冷漠漠秋雲低 蕭蕭히 녯ᄀᆞ이 서늘ᄒᆞ니 아득히 ᄀᆞ옰 구루미 ᄂᆞᆺ족ᄒᆞ도다

黃鵠翅垂雨蒼鷹飢啄泥 누른 鵠은 ᄂᆞᆯ개 비예 드렛고 프른 매ᄂᆞᆫ 주려 ᄒᆞᆯᄀᆞᆯ 딕먹놋다

薊門誰自北漢將獨征西 上句ᄂᆞᆫ 言燕薊예 兵亂ㅣ 未平ㅣ오 下句ᄂᆞᆫ 言伐吐蕃也ㅣ라 ○ 薊門엔 뉘 北으로브터 셔오ᄂᆞᆫ고 漢ㅅ 將軍ㅣ ᄒᆞ올로 西ㅅ녀글 征伐ᄒᆞ놋다

不意書生耳臨衰厭鼓鼙 書生의 귀예 늘거셔 사호맷 붑소리ᄅᆞᆯ 아쳐라 ᄃᆞᄅᆞᆯ 고ᄃᆞᆯ 너기다 아니호라

傳道東柯谷深藏數十家 東柯谷ㅣ在秦州ᄒᆞ다○傳傳으로 닐오ᄃᆡ東柯谷애두어집지비기피갈맛다ᄒᆞᄂᆞ다 對門藤蓋瓦映竹 水穿沙 門을對ᄒᆞᆫ藤蘿ᄂᆞᆫ디새ᄅᆞᆯ두펫고대ᄅᆞᆯ비취엿ᄂᆞᆫ므른모래ᄅᆞᆯ들워흐르놋다

瘦地翻宜粟陽坡可種瓜 마ᄆᆞᄅᆞᆫᄯᅡ히도로혀조가로미됴ᄒᆞ니ᄃᆞᄉᆞᆫ두들겐어루외ᄅᆞᆯ시므리로다

船人相近報但恐失桃花 借言漁人의迷桃源事ᄒᆞ다○비롯사ᄅᆞᆷ미서르갓가이셔알외요ᄃᆡ오직복셧고ᄌᆞᆯ일흘가전노라ᄒᆞᄂᆞ다

萬古仇池穴潛通小有天 成州同谷縣에有仇池ᄒᆞ고仇池에

有地穴이通小有洞ᄒᆞ니中出神魚ㅣ어든食之者ㅣ得仙ᄒᆞᄂᆞ니라小有洞天ᄋᆞᆫ仙人所居ㅣ라○녜ᄂᆞᆫ仙也ᄉᆞᄅᆞᆷ기小有天에ᄀᆞ마니通ᄒᆞᆫ옛도다

神魚人不見福地語眞傳道書에有三十六洞天과七十二福地ᄒᆞ니라○神奇로왼고기ᄅᆞᆯ사ᄅᆞ미보디몯ᄒᆞᄂᆞ니福ᄃᆞ왼ᄯᅡ히라ᄒᆞᆫ말ᄉᆞ미眞實로傳ᄒᆞᄂᆞ다

近接西南境長懷十九泉仇池有九十九泉ᄒᆞ니萬山環之ᄒᆞ야可以避世니라○西南ㅅᄀᆞ애갓가이니엇ᄂᆞ니열아홉시몰기리ᄉᆞ랑ᄒᆞ노라

何時一茅屋送老白雲邊이느제ᄒᆞᆫ새지블지어흰구룸ᄀᆞ이셔늙구믈보내려뇨

未暇泛滄海悠悠兵馬間 悠悠ᄂᆞᆫ 遠也ㅣ라 ○滄海예 ᄇᆡ ᄠᅴ올 餘暇ㅣ 업서 兵馬ㅅ ᄉᆞ이예 기리 노니노라 塞門風落木客舍雨連山 邊塞ㅅ 門엔 ᄇᆞᄅᆞ매 나못니피 디ᄂᆞ니 나그내 지븨 비 뫼해 니엇도다

阮籍行多興龐公隱不還 甫ㅣ 以二人으로 自比ᄒᆞ니라 ○阮籍ㅣ ᄃᆞᆫ뉴메 興心ㅣ 하고 龐公ᄋᆞᆫ 수머 도라오디 아니ᄒᆞ니라 東柯遂衰懶休鑷鬢毛斑 鑷ᄋᆞᆫ 죡집개니 지비ᄉᆡᆸ논 거시라 ○東柯애 가 늘고 게을오믈 일워셔 구믿 터리의 어르누구믈 ᄲᅡᆸ디 아니호리라

東柯好崖谷不與衆峯群 東柯애 비레와 묏골왜 됴ᄒᆞ니 여러

묏부리와ᄒᆞ야 무리아니니라 落日邀雙鳥晴天卷片雲

디ᄂᆞᆫᄒᆡ예두ᄂᆞ라오ᄂᆞᆫ새ᄅᆞᆯ마자드리ᄂᆞ、 니갠하ᄂᆞᆯ햇ᄃᆞᆫᄃᆞᆫᄒᆞᆫ구루미거뎃도다 野

人吟絶險水竹會平分 言谷中之人ㅣ以竹 筒으로相接引水也

ㅣ라 ○ᄆᆡ햇사ᄅᆞ미ᄀᆞ장險ᄒᆞᆫᄃᆡ셔吟咏ᄒᆞ、 야믈흘리ᄂᆞᆫ대ᄅᆞᆯ모다平히ᄂᆞᆫ화오놋다

採藥吾將老童兒未遣聞 약ᄏᆡ야먹고내將 ᄎᆞᆺ늘거셔아ᄒᆡᄅᆞᆯ

히여곰들이디 아니호리라

邊秋陰易夕不復辨晨光 ᄀᆞᆺᄀᆞ올해어드 워나조ᄒᆡ수이ᄃᆞ

외오ᄯᅩ새뱃빗도ᄀᆞᆯ ᄒᆡ디몯ᄒᆞ리로다 簷雨亂淋幔山雲低度

墻 집웃기슬겟비ᄂᆞᆫ어즐러이帳올저지고
외햇구루믄ᄂᆞ조기담을건너가ᄂᆞ다

鸕鷀窺淺井 蚯蚓上深堂 蚯蚓ᄋᆞᆫ一名ᄋᆞᆫ蜿蟺이니善吟地下ᄒᆞᆯ
새江湖ㅣ謂之歌女ㅣ니라此ᄂᆞᆫ皆言積雨
久陰而然也ㅣ라○가마오디ᄂᆞᆫ여튼우므
를엿보고것위ᄂᆞᆫ기픈지븨오ᄅᆞᄂᆞ다

車馬何蕭索 門前百草長 술위와ᄆᆞᆯ왜ᄌᆞ모괴외ᄒᆞᄂᆞ니門
알ᄑᆡ온가짓프리기렛도다

地僻秋將盡 山高客未歸 客ᄋᆞᆫ甫ㅣ라○ᄯᅡ
히幽僻ᄒᆞᆫ뒤ᄀᆞ올
히ᄒᆞ마다ᄋᆞᄂᆞ니뫼히노ᄑᆞᆫ뒤ᄯᅡ
나그내도라가디몯ᄒᆞ얏노라

塞雲多斷 續邊日少光輝 ᄀ있구루믄그츠며나우미
하고ᄀ있히ᄂᆞᆫ비치젹도다

警急烽常報傳聞檄屢飛 檄은木簡ㅣ니徵軍書也ㅣ라有急則揷以鷄羽ᄒᆞᄂᆞ니謂之羽檄ㅣ라○警急ᄒᆞᆫ이ᄅᆞᆯ烽火ㅣ長常알외ᄂᆞ니羽檄ㅣ不조ᄂᆞ로믈傳傳ᄋᆞ로듣노라 西戎外甥國何得近天威 外甥은女壻ㅣ니肅宗ㅣ寧國公主로下嫁回紇ᄒᆞ시니라○西戎은外甥의나라히어시니엇뎨시러곰하ᄂᆞᆳ威嚴에갓가이오ᄂᆞ뇨

鳳林戈未息魚海路常難 鳳林魚海ᄂᆞᆫ皆地名ㅣ니時有吐蕃之亂ᄒᆞ니라○鳳林에사호미ᄀᆞᆺ디아니ᄒᆞ고魚海옛길히長常어렵도다 候火雲峯峻懸軍幕井乾 幕井은우믈우흘ᄀᆞ리와실시라○候望ᄒᆞᄂᆞᆫ

브론구룸쉰뫼ᄉ부리노폰ᄃᆡ잇고軍을風連
허드러가매집지은우므리ᄆᆞᄅᆞ도다○

西極動月過北庭寒北庭ᄋᆞᆫ北方也ㅣ라○ᄇᆞᄅᆞᄆᆞᆫ西極에니어뮈
오ᄃᆞᆯᄋᆞᆫ北庭으로디
나가서늘ᄒᆞ도다 故老思飛將何時議築
壇李廣ᄋᆞᆫ匈奴ㅣ號曰飛將軍ㅣ라ᄒᆞ다漢
人高祖ㅣ築壇ᄒᆞ야拜韓信爲大將ᄒᆞ니
라○ 배ᄉᆞ늘근사ᄅᆞ미ᄂᆞᄂᆞᆫ將軍을ᄉᆞ랑
ᄒᆞᄂᆞ니어느제그築壇호ᄆᆞᆯ議論ᄒᆞᆯ고

唐堯真自聖野老復何知言君ㅣ自聖則忠
言ᄋᆞᆯ不聞ᄒᆞᄂᆞ니
甫ㅣ微言ᄒᆞ야諷肅宗也ㅣ라○唐堯ㅣ真
實로내聖人ㅣ로라ᄒᆞ시ᄂᆞ니ᄆᆡ햇늘그니
道佐므슷이
ᄅᆞᆯ알리오 驪樂能無婦應門亦有兒 所聽ᄂᆞᆫ賣

友ᄒᆞ니 日乾也ㅣ리오 藥ᄋᆞᆯ 몰오리ᄂᆞᆫ 能히
거지비 업스리아 門와 서ᄂᆞᆫ 뒤 담호맨 任아
ᄒᆡ엿ᄃᆞ다 **藏書聞禹穴 讀記憶仇池** 會稽山에 有禹穴ᄒᆞ니 禹이
藏書之所ㅣ라 甫ㅣ 讀仇池記而欲遊其處
也ㅣ라 ○글월 갈맛ᄂᆞᆫ ᄯᅡ홀 禹穴을 듣고 記
를 닐거 仇池를 ᄉᆞ랑ᄒᆞ노라 **為報鴛行舊 鷦鷯在一枝** 甫ㅣ
寄寓秦州ㅣ 如鷦鷯의 棲一枝之安也ㅣ라
○鴛鷺行列 옛 뷧 벋ᄃᆡ 브려 為ᄒᆞ야 니ᄅᆞ노
니 볍새 ᄒᆞᆫ 가지
예 안잣노라
、**龍門** 龍門山ㅣ 在河南縣ᄒᆞ니라
龍門橫野斷 驛樹出城來 出城來ᄂᆞᆫ 나모ᄅᆞᆯ 驛으로 셔 門의 내

심거실시라○龍門이미해빗겨그쳐氣色
ᄂᆞ니驛엣셧ᄂᆞᆫ남근城으로나오ᄂᆞ다

皇居近金銀佛寺開 皇居ᄂᆞᆫ指東都ᄒᆞ다山有佛寺ᄒᆞ니金碧ㅣ照耀ᄒᆞᄂᆞ니라○氣運과비ᄎᆞᆫ님금사ᄅᆞ시ᄂᆞᆫ往
뒤ᄀᆞᆺ가오니金銀은佛寺ㅣ여렷도다

來時屢改川陸日悠哉 悠ᄂᆞᆫ長也ㅣ라○가며오매時節ㅣᄌᆞ조改變ᄒᆞᄂᆞ니내콰뭇ᄐᆡ
ᄃᆞᆫ니ᄂᆞᆫ나리기도다

相關征途上生涯盡幾回 이ᄂᆞᆫ뎌길우희ᄃᆞᆫ니ᄂᆞᆫ사ᄅᆞ미멋버ᄂᆞᆯ來往ᄒᆞ다가주글고ᄒᆞ논마리라○ᄃᆞᆫ
니ᄂᆞᆫ길우흘서르보노니사ᄅᆞ
ᄆᆡ사로ᄆᆞᆯ멋디위예ᄆᆞᄎᆞᆯ고

夔州歌九絶句

中巴之東巴東山江水開闢流其間 中巴人東ᄂᆞᆫ巴東ㅅ뫼해ᄀᆞᄅᆞ맷ᄃᆞ리開闢브터그ᄉᆞ이로흐르ᄂᆞ다

白帝高為三峽鎭夔州險過百牢關 百牢關ᄋᆞᆫ在梁州ᄒᆞ니라○白帝城ᄋᆞᆫ노파三峽엣눌러ᄉᆔ미ᄃᆞ외얏고夔州人險호ᄆᆞᆫ百牢關애넘도다

白帝夔州各異城蜀江楚峽混殊名 白帝와夔州왜제여곰城ㅣ다ᄅᆞ니蜀江과楚峽ᄋᆞᆫ섯거ᄉᆔ뒤일후미다ᄅᆞ도다

英雄割據非天意霸王幷呑在物情 公孫述ㅣ據白帝ᄒᆞ야稱帝ᄒᆞ니라○英雄의ᄯᅡᄒᆞᆯ버혀브터ᄉᆔ믄하ᄂᆞᇗᄠᅳ디아니시니霸王ᄋᆡ뫼화合셰ᄉᆔ믄사ᄅᆞ미ᄠᅳ데

잇ᄂᆞ니라

群雄競起向前朝 王者無外見今朝 上[illegible] 指[illegible] 之亂ᄒᆞ니라 無外ᄂᆞᆫ 言德化ㅣ遠及也ㅣ라 ○뭀英雄ㅣ ᄃᆞ토와 니러 前朝ᄅᆞᆯ 向ᄒᆞ더니 王者의 밧 업수믈 오ᄂᆞᆳ 아ᄎᆞ미 보리로다

比訝漁陽結怨恨 元聽舜日舊簫韶 比ᄂᆞᆫ 近也ㅣ라 簫韶ᄂᆞᆫ 舜樂名ㅣ라 言祿山ㅣ 侍宴明皇ᄒᆞ야 聽音樂ᄒᆞ야 作恩寵ㅣ 至矣러니 終乃背恩而反也ㅣ라 ○漁陽ㅅ 사ᄅᆞ미리 怨恨ᄋᆞᆯ 미자슈믈 요ᄉᆞ이예 의심ᄒᆞ노니 본ᄃᆡ로 舜日 옛 簫韶ㅅ 소리ᄅᆞᆯ 듣더니라

赤甲白鹽俱刺天 閭閻繚繞接山巔 赤甲山과 白鹽

山괘 다 하ᄂᆞᆯ홀 벋엇ᄂᆞ니 ᄆᆞᄋᆞᆯ히 버므러 뫼ᄀᆞᆺ테 니엇도다
楓林橘樹丹青合 複道重樓錦繡懸 싣나모 수플과 橘柚ㅅ 남근 丹青ㅣ 모댓ᄂᆞᆫ ᄃᆞᆺ고 두 븘길과 重重인 樓ᄂᆞᆫ 錦繡ᄅᆞᆯ ᄃᆞ랏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瀼東瀼西一萬家 江北江南春冬花 瀼ᄋᆞᆫ 믌 일후미라 ○ 瀼東 瀼西엔 一萬 지비오 江北과 江南엔 겨ᅀᅳᆯ과 보미 폣ᄂᆞᆫ 고지로다
背飛鶴子遺瓊蘂 相趁鳧雛入蔣牙 牙ᄂᆞᆫ 처엄 돋ᄂᆞᆫ 우미라 ○ 가ᄅᆞ 나ᄂᆞᆫ 鶴의 삿기ᄂᆞᆫ 구슬 ᄀᆞᆺᄐᆞᆫ 고ᄌᆞᆯ ᄇᆞ리고 서르 좃ᄂᆞᆫ 올히 삿기ᄂᆞᆫ 菰蔣ㅅ 어리로 드러 가ᄂᆞ다

東屯稻畦一百頃北有澗水通青苗 東屯ᄋᆞᆫ 地名ㅣ라 ○東屯ㅅ 벼 심군 이럼 一百頃에 北녀긔 잇ᄂᆞᆫ 시냇므리 프른 엄에 ᄉᆞ뭇 흐르놋다

晴浴狎鷗分處處雨隨神女下朝朝ㅣ 海上翁 機心ㅣ 업거ᄂᆞᆯ 鷗鳥ㅣ 来親狎ᄒᆞᆯᄉᆡ 狎鷗ㅣ라 ᄒᆞᄂᆞ니라 ○갠 디 셔 沐浴ᄒᆞᄂᆞᆫ 狎鷗ᄂᆞᆫ 곳마다 ᄂᆞᆫ화 잇고 비ᄂᆞᆫ 神女ᄅᆞᆯ 조차 아ᄎᆞᆷ마다 ᄂᆞ리놋다

蜀麻吳鹽自古通萬斛之舟行若風 若ᄋᆞᆫ 順也ㅣ라 ○蜀人 삼과 吳人ㅅ 소곰괘 녜로브터 相通ᄒᆞᄂᆞ니 一萬 셤 싯ᄂᆞᆫ 비오ᄆᆞᆯ ᄇᆞᄅᆞᆺ믈 順ᄒᆞ놋다

長年三老長歌裡白晝攤錢高浪中 峽人ㅣ 舩頭에

把蒿ᄒᆞ야相水道者曰長年ㅣ오正稍者曰三老ㅣ니長은上聲ㅣ라攤錢은蜀人의돈던ᄂᆞᆫ일후미라梁冀傳에少好意錢之戲라ᄒᆞ니一曰說懷ㅣ오一曰射意오一曰射數ㅣ라○長年과三老괘긴놀애ᄅᆞᆯ소개셔브르니저노픈믌결가온ᄃᆡ셔돈을ᄒᆡ티ᄂᆞ다

憶昔咸陽都市合山水之圖張賣時巫峽曾經寶屛見楚宮揹帶碧峯疑甫ㅣ言嘗於畫中에見楚宮호니今對碧峯ᄒᆞ야疑是舊所見之畫也ㅣ라○ᄉᆞ랑혼ᄃᆡ녜咸陽ㅅ都邑저제모다뫼과믈ㅅ그림ᄑᆞᆯ時節에巫峽을일즉珍寶ㅅ왼屛風에보믈디내요니楚宮을오히려프른뫼ㅅ부리ᄅᆞᆯ對ᄒᆞ야셔疑心ᄒᆞ노라

閬風玄圃與蓬壺中有高堂天下無閬風玄圃蓬壺ᄂᆞᆫ皆神仙所居ㅣ니其上臺觀ㅣ皆珠玉ㅣ라○閬風과玄圃와다ᄆᆞᆺ蓬壺에가온ᄃᆡ잇ᄂᆞᆫ노ᄑᆞᆫ堂ㅣ天下애업스니라

借問夔州壓何處峽門江腹擁城隅言峽門江腹擁城隅之處ㅣ可以壓高堂之義也ㅣ라○묻노라夔州ᄂᆞᆫ어느ᄯᅡ히뎌를누르리오峽門과江腹괘城ㅅ모ᄒᆞᆯᄢᅦ엿ᄂᆞᆫᄃᆡ로다

、峽口二首

峽口大江間西南控百蠻峽口ㅣ큰ᄀᆞᄅᆞᆷᄉᆞ이로소니西南녀ᄀᆞ로온蠻夷ᄅᆞᆯ控帶ᄒᆞ얏도다

城敧連粉堞岸斷更青山堞은

音牒ㅣ니 城上女墻ㅣ라 ○城ㅣ 가ᄋᆞᆺᄒᆞ니
해연 堞ㅣ니 엣 고믈 두들기 그츠니 ᄯᅩ 프른
뫼히로다

開闢當天險防隅一水關 開闢은 天地之初ㅣ라○

開闢브터 하ᄂᆞᆳ 險ᄒᆞᆫ 귀ᄅᆞᆯ 當ᄒᆞ얫ᄂᆞ니 亂離
邊隅에 防戍ᄒᆞᄂᆞᆫ ᄒᆞᆫ 믌 關門ㅣ로다

聞鼓角秋氣動衰顏 亂離예 鼓角人 소리ᄅᆞᆯ
드로니 ᄀᆞᅀᆞᆳ 氣運ㅣ 늘
근 ᄂᆞᄎᆞᆯ 뮈우ᄂᆞ다

時淸關失險世亂戟如林 時節ㅣ 몰ᄀᆞᆫ 젠 關
ㅣ 險을 일코 世ㅣ
어즈러운 젠 戈戟ㅣ 수플 ᄀᆞᆺ도다

去矣英雄事荒哉割據心
指言公孫述ᄒᆞ니라○英雄의 이리 다
가니 荒搖ᄒᆞ다 비허 브텻던 ᄆᆞᅀᆞ미여 盧

花留客晩楓樹坐猿深 곶고ᄌᆞᆫ 머므렛ᄂᆞᆫ 나그ᄂᆡ 나조ᄒᆡ오 싣남긘 안잣ᄂᆞᆫ 나비 기피 잇도다

瘦藊煩親故諸侯數賜金 瘦ᄂᆞᆫ 病渴身ㅣ라 甫ㅣ 自註 主人柏中丞ㅣ 頻分月俸ᄒᆞᄂᆞ다 ○ 시드러우메 親故로 어즈러이 ᄒᆞ노니 諸侯ㅣ ᄌᆞ조 金을 주ᄂᆞ다

黃草

黃草峽西船不歸赤甲山下行人稀 黃草峽은 在諳개ᄒᆞ고 赤甲山은 在夔州ᄒᆞ다 이 亂ᄒᆞ야 됴믈니ᄅᆞ니라 ○ 黃草峽 西人 티 괴 ᄇᆡ 도라오디 아니ᄒᆞᄂᆞ니 赤甲山人 아래 ᄃᆞᆫ닐 사ᄅᆞ미 드므도다 秦中驛使無消

息蜀道干戈有是非 秦中엣驛으로올使者의消息ㅣ업스니蜀道애사호ᄆᆞᆯᄒᆞ며외요미잇도다

萬里秋風吹錦水誰家別淚濕羅衣 萬里예ᄀᆞᅀᆞᆳᄇᆞᄅᆞ미錦水ᄅᆞᆯ부ᄂᆞ니뉘지븨셔여희엿ᄂᆞᆫ므ᄅᆞᆯ노오새져지ᄂᆞᆫ고

莫愁劒閣終堪據聞道松州已被圍 松州被圍ᄂᆞᆫ指往日吐蕃之事ᄒᆞ니라此ᄂᆞᆫ言勿慮劒閣之險ㅣ為叛逆의所據ㅣ니雖松州ㅣ在劒閣之內라도ᄅᆞ被圍라不足恃니所以戒後人之叛也ㅣ라○劒閣ᄋᆞᆫᄆᆞᄎᆞ매依據ᄒᆞ얌직ᄒᆞᆫ가시름마ᄅᆞᆯ디니니ᄅᆞ거ᄂᆞᆯ드로니松州도ᄒᆞ마ᄢᅴ류믈니브니라

南楚

南楚青春異暄寒早早分 이ᄂᆞᆫ南楚ㅣ길더우믈니ᄅᆞ니라○南楚애프른보미다ᄅᆞ니더위와치위일난홋도다 無名江上草隨意嶺頭雲 일훔업슨ᄀᆞᄅᆞᆷ우희프리오제ᄠᅳ들좃ᄂᆞ닌묏곳뎃구루미로다 正月蜂相見非時鳥共聞 正月에버리ᄅᆞᆯ서르보노니ᄣᅵ니아닌져귀새소리ᄅᆞᆯ다뭇드르리로다 杖藜妨躍馬不是故離群 言病ᄒᆞ야버뎨가ᄃᆞ몯ᄒᆞ디웨非故意離群也老ㅣ니라○도토랏막대디며ᄃᆞᆫ뇨미몯ᄃᆞᆺ기예妨害ᄒᆞ란ᄃᆡ만뎡이부러무리를여희우미아니니라

南極

南極青山衆西江白谷分南極에 프른 뫼히 하고 西江앤 힌 고
리ᄂᆞᆫ홧도다古城疎落木荒戍密寒雲넷城엔 디ᄂᆞᆫ 남기 섯
긔고 거츤 防戍ᄒᆞᆫ ᄃᆡᆫ 서늘ᄒᆞᆫ 구루미 密ᄒᆞ도다歲月蛇相見風飊
虎忽聞ᄒᆡᄃᆞ래 ᄇᆡ야ᄆᆞᆯ 長常 보리로소니 ᄇᆞᄅᆞ매 버믜 소리ᄅᆞᆯ 믄드시 드르리로
다近身皆鳥道殊俗自人群모매 갓가온 거ᄂᆞᆫ 다 새 ᄃᆞᆫ니ᄂᆞᆫ
길히오 다ᄅᆞᆫ 風俗ᄋᆞᆫ 스ᄉᆡ로 사ᄅᆞ미 물ᄒᆞ얏도다睥睨登哀柝蟊弧
照夕曛睥睨ᄂᆞᆫ 城上女墻ㅣ라 柝ᄋᆞᆫ 警夜者ㅣ 擊之ᄒᆞᄂᆞ니라 蟊弧ᄂᆞᆫ 旗名ㅣ라
○睥睨엔 슬픈 擊柝ㅣ 올갓고 蟊弧앤 나죗 ᄒᆡᆺ비치 비취엿도다亂離多醉

尉愁殺李將軍 將軍李廣ㅣ射獵ᄒᆞ야嘗夜從一騎ᄒᆞ야至霸陵亭ㅣ어ᄂᆞᆯ醉尉ㅣ呵止ᄒᆞ야宿廣亭下ᄒᆞ니라○亂離예술醉ᄒᆞᆫ尉하니李將軍을시름케ᄒᆞ놋다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三

分類杜工部詩卷之十四

樓閣古詩四首 律詩三十五首

越王樓歌

緜州州府何磊落 顯慶年中越王作 顯慶은 高宗ㅅ 年號ㅣ라 太宗ㅅ 子 越王 貞ㅣ 爲緜州刺史ᄒᆞ니라 作은 起也ㅣ라 ○ 緜州ㅅ 州府ㅣ ᄌᆞ모 노ᄑᆞ니 顯慶ㅅ 힛ᄉᆞ이예 越王ㅣ 니르왇와사니라 孤城西北起高樓碧瓦朱甍照城郭 외ᄅᆞ왼 城ㅅ 西北 녀긔 노ᄑᆞᆫ 樓를 니ᄅᆞ와다 지ᅀᅳ니 프른 디새와 블근 집 기슬기 城郭애 비취엿도다 樓下長江百丈清山頭落

日半輪明 百丈ᄋᆞᆫ 믈기픠ᄅᆞᆯ 니ᄅᆞ니라○樓아랫 긴 ᄀᆞᄅᆞᄆᆞᆫ 百丈ㅣ ᄆᆞᆰ고 묏그텟 디논 ᄒᆡᄂᆞᆫ 半ᄃᆞᆯ에 ᄇᆞᆰ도다 君王舊迹今人賞轉見千秋萬古情 君王ᄋᆡ 녯 자최ᄅᆞᆯ 이젯 사ᄅᆞ미 賞玩ᄒᆞᄂᆞ니 千秋萬古앳 ᄠᆞ들 ᄀᆞ장 보리로다

西閣曝日

凛冽倦玄冬負暄嗜飛閣 冬日에 其神ㅣ 玄冥故로 曰玄冬ㅣ니라○서늘ᄒᆞᆫ 玄冬ᄋᆞᆫ ᄀᆞᆺ가ᄒᆞ다니 ᄒᆡᆺ 디ᄃᆡᆫ 비츨 져셔 ᄂᆞᄂᆞᆫ 지블 즐기노라 羲和流德澤顓頊愧倚薄 羲和ᄂᆞᆫ 日御ㅣ오 顓頊은 冬神也ㅣ라 倚薄ᄋᆞᆫ 附著也ㅣ라○羲和ㅣ 德澤을 흘리니 顓頊ㅣ 브텨슈믈 븟그리놋다 毛髮具

自和肌膚潜泆若 泆若은더운양ᄌᆞᄅᆞᆯ니ᄅᆞ니라○머리더리다절로溫和ᄒᆞ니ᄉᆞᆯ히ᄀᆞ마니촉촉ᄒᆞ도다 太陽信深仁衰氣欻有托 太陽ᄋᆞᆫ日也ㅣ라○히진실로仁愛호미기프니늘근긔운에믄드시부투미잇노라

欹傾煩注眼容易收病脚 더운氣運ㅣ바취니혀뒤ᄅᆞᆯ수이가도힐훌시라○기우려에즈러이누늘ᄡᅳᆯ가보고쉽사리病ᄒᆞᆫ허뒤ᄅᆞᆯ가도혀노라 流離木杪猿翻僊山顚鶴 이ᄂᆞᆫ猿鶴ㅣᄂᆞᆫ氣運ㅣ더우믈깃거ᄒᆞ논양ᄌᆞᄅᆞᆯ니ᄅᆞ니라○나못그테나비히여젓고묏그텟鶴ㅣᄂᆞ니ᄂᆞ다 朋知苦

聚散哀樂日已作 벋ᄃᆞᆯ히심히모ᄃᆞ락ᄒᆞᄅᆞ락ᄒᆞ니슬프며즐거우미

날로ᄒᆞ마니리나ᄂᆞ다 即事會賦詩人生忽如昨곳어젯이

ᄅᆞᆯ모ᄃᆞ셔그ᄅᆞᆯ짓노니人生은믄드시이제ᄀᆞᆺ도다 古来遭喪亂賢聖

盡蕭索녜로오매喪亂ᄋᆞᆯ맛나ᄂᆞᆫ賢聖ㅣ다싀의여ᄒᆞᄂᆞ니라 胡為將

暮年憂世心力弱言遭亂則賢聖ㅣ皆蕭索失所ᄒᆞᄂᆞᆫ거시어ᄂᆞᆯ甫ㅣ

何獨憂世而至於心力ㅣ弱也오○엇뎨라ᄒᆞ야늘근나해世事ᄅᆞᆯ시름ᄒᆞ야心力을보

ᄃᆞ라이ᄒᆞ가니오

水閣朝霽奉簡嚴雲安

東城抱春岑江閣隣石面東城ㅣ봄묏부리ᄅᆞᆯ아낫ᄂᆞ니ᄀᆞᄅᆞ

ᄆᆡᆺ지 본 ᄃᆞᇙ 알ᄑᆞᆯ 이웃ᄒᆞ얏도다 崔嵬晨雲白朝旭射芳甸ᄂᆞᆫ 곤

아ᄎᆞᆷ 구루미 ᄒᆡ기 아ᄎᆞᆷ 힛비치 곧다온 郊甸에 소ᄆᆞᆺ도다 雨檻卧花叢風

牀展書卷비 오ᄂᆞᆫ 軒檻앳 곳ᄠᅥ기 누엇고 ᄇᆞᄅᆞᆷ 부ᄂᆞᆫ 牀앳 書卷ㅣ 폇도다 鉤

簾宿鷺起丸藥流鶯囀바ᄅᆞᆯ 갈공애 기로니 자던 하야로비 닐오ᅌᅵ

藥ᄋᆞᆯ 부븨유니 ᄂᆞ라 가ᄂᆞᆫ 곳고리 우ᄂᆞ다 呼婢取酒壺續兒誦文

選겨집죵ᄋᆞᆯ 블러 酒壺ᄅᆞᆯ 가져오고 아ᄃᆞᄅᆞᆯ 니어 文選ᄋᆞᆯ 외오노라 晚交嚴

明府矧此數相見늘거셔 嚴明府ᄅᆞᆯ 사괴요니 ᄒᆞ믈며 이 ᄌᆞ조 서르 보

미ᄯᆞ녀

晩登瀼上堂

故躋瀼岸高 頗免崖石擁 瀼水ㅅ 두들기 노ᄑᆞᆫ ᄃᆡ 블어 올오니 비레 ᄀᆞ려쇼ᄆᆞᆯ ᄌᆞ모 免호라

開襟野堂豁 繫馬林花動 옷기즐 여로니 미햇 지비 훤ᄒᆞ고 ᄆᆞᄅᆞᆯ ᄆᆡ요니 수플렛 고지 움즈기ᄂᆞ다

雉堞粉如雲 山田麥無隴 城ㅣ 長ㅣ 三丈ㅣ오 高一丈ㅣ 為雉ㅣ니라 ○ 雉堞은 ᄒᆡ여ᄒᆞ미 구룸 ᄀᆞᆺ고 묏바ᄐᆞᆫ 보리 두들기 업도다

春氣晩更生 江流靜猶湧 靜猶湧ᄋᆞᆫ 言無風而波也ㅣ라 ○ 봄 氣運ㅣ 나조ᄒᆡ ᄯᅩ 나ᄂᆞ니 ᄀᆞᄅᆞᄆᆡ 흘로ᄆᆞᆫ ᄀᆞ마니 이셔 오히려 소사나ᄂᆞ다

四序嬰我懷 群盜久相踵

四時ㅣ 다 다ᄀᆞ미 개모ᄋᆞ매 비므렛ᄂᆞ니 믌도 조코 오래 서르 블와 돔니ᄂᆞ다 黎民

困逆節天子渴垂拱 言人民ㅣ困於逆亂이오 天子ㅣ播遷ᄒᆞ샤 未得垂衣拱手也ㅣ라 ○ 百姓은 逆節의 ᄀᆡ 困ᄒᆞ고 天子ᄂᆞᆫ 垂拱호ᄆᆞᆯ 渴望ᄒᆞ시ᄂᆞ다

所思注東北深峽轉脩聳 言甫ㅣ在峽深險之中ᄒᆞ야 思長安也ㅣ라 ○ ᄉᆞ랑ᄒᆞ논 배 東北으로 브어 가ᄂᆞ니 기픈 ᄆᆡ 峽은 ᄀᆞ장 길오 더 바ᄃᆡᆺ도다 衰

老自成病郎官未為冗 늘거 절로 病ㅣ 이렛건마ᄅᆞᆫ 郎官ㅣ라 賤冗티 아니ᄒᆞ니라 淒其望呂葛不復夢周孔 淒然히 呂望과 諸葛울 ᄇᆞ라노니 ᄯᅩ 周公 孔子ᄅᆞᆯ ᄭᅮ메 보디 몯ᄒᆞ리로다 濟世數嚮時斯人

各枯冢이ᄂᆞᆫ呂葛周孔ᄋᆞᆫ소랑ᄒᆞ니이사ᄅᆞ미ᄇᆞᆯ셔죽도다니ᄅᆞ니라○時世거리치던이ᄅᆞᆯ더ᄲᅳᆯ헤요니이사ᄅᆞ미제어곰ᄆᆞᄅᆞᆫ무더미ᄃᆞ외얏도다楚星南

天黑蜀月西霧重楚蜀의昏亂ᄋᆞᆯ가ᄌᆞᆯ비니라○楚人벼렛南ᄃᆞᆰ하ᄂᆞᆯ히어듭고蜀ㅅᄃᆞ랫西ㅅ녁雲霧ㅣᄃᆞᆺ겁도다安得騎鴻鵠追此懼

將恐甫ㅣ欲騎鴻鵠奮飛而去ᄒᆞ야以免恐懼也ㅣ라○엇데시러곰鴻鵠ᄋᆞᆯ타ᄀᆞ려ᄂᆞᆫ이젹코저ᄒᆞ매逼迫ᄒᆞ얏도다

、登兖州城樓

東郡趨庭日南樓縱目初論語에鯉趨而過庭ㅣ라ᄒᆞ니甫ㅣ

父閑ㅣ為兗州司馬ㅣ어늘甫ㅣ省侍故로
云ᄒᆞ다○東郡에ᄠᅳᆮ헤ᄃᆞᄂᆞᆫ나리여南樓에
누늘ᄀᆞ장보ᄂᆞᆫ취어미로다
浮雲連海岱平野入青徐ᄠᅳᆫ구
루믄바ᄅᆞᆯ와岱山에니엣고平ᄒᆞᆫᄃᆞ
르흔青州와徐州예드리비엇도다
孤嶂秦碑在荒城魯殿餘鄒嶧山애有秦始皇ㅅ碑
ᄒᆞ다魯ㅅ靈光殿은恭王
所作ㅣ라○외ᄅᆞ왼묏부리옌秦ㅅ碑
잇고거츤城옌魯ㅅ殿ㅣ나맛도다
從來多古意登眺獨躊躇네로브터오매빗일ᄉᆞ
ᄅᆞᆯ랑ᄒᆞᄂᆞᆫᄠᅳ디해잇노니
온아ᄇᆞ라ᄒᆞ오
아머므로라

丶東樓

萬里流沙道征西過此門 流沙ㅣ在西極吐蕃之域ᄒᆞ니故로

使吐蕃及軍行ㅣ皆出此西門也ㅣ니라○

萬里ㅅ流沙로가ᄂᆞᆫ길헤西ㅅ녀그로갈사ᄅᆞ미이門으로디나놋다

但添新戰骨莫返舊征魂 오직새려사호맷ᄲᅧ더으고녯征伐ᄒᆞ던넉ᄉᆞᆫ도라오디몯ᄒᆞ놋다

樓角陵風迴城陰帶永昏 樓엣吹角ㅅ소리ᄂᆞᆫᄇᆞᄅᆞ믈陵犯ᄒᆞ야아ᄋᆞ라ᄒᆞᆫ山城ㅅ그늘흐므ᄅᆞᆯᄯᅴ차이득ᄒᆞ도다

傳聲看驛使送節向河源 소리傳호믈驛으로오ᄂᆞᆫ使者ᄅᆞᆯ보니符節가지닐보내어河源으로向ᄒᆞ놋다

上白帝城二首 ㅣ在夔州ᄒᆞ니公孫述ㅣ僭號于此ᄒᆞ니라

江城含變態一上一回新 ᄀᆞᄅᆞᆷᄀᆞᆺ城ㅣ改變ᄒᆞᄂᆞᆫ양ᄌᆞᄅᆞᆯ머겟ᄂᆞ니ᄒᆞᆫ번곰올오니ᄒᆞᆫ디위옴새롭도다 天欲今朝雨山歸萬古春 하ᄂᆞᆯᄒᆞᆫ오ᄂᆞᆳ아ᄎᆞᄆᆡ비오고져코뫼ᄒᆡᆺ萬古앳보미도라왓도다 英雄餘事業衰邁久風塵 英雄ᄋᆞᆫ指公孫述ㅣ라邁ᄂᆞᆫ老也ㅣ며過也ㅣ라風塵ᄋᆞᆫ兵亂也ㅣ라○英雄의事業ㅣ나맛ᄂᆞ니ᄂᆞᆯ거가ᄆᆡ風塵ㅣ오라도다 取醉他鄉客相逢故國人 술醉호ᄆᆞᆫ他鄉앳나그내로니서르맛나ᄆᆞᆫ故國옛사ᄅᆞᆷㅣ로다 兵戈猶擁蜀賦斂尚輸秦 兵戈ㅣ오히려蜀애ᄡᅥ리엿ᄂᆞ니賦斂ᄋᆞᆫ오히려秦으로옮기ᄂᆞᆺ다 不是煩形勝深慙

畏損神 이ᄂᆞᆫ 이ᄡᅥ히 形勝호ᄆᆞᆯ 煩히 너겨아 혼ᄃᆡ 아니라 예와셔 븟그류믄 이제
擾亂ᄒᆞᆯ시 내 精神ㅣ 損害ᄒᆞᆯ가 저후미리라
니ᄅᆞᆯ시라 ○이 形勝을 어즈러이 너기디 아
니라 기피 븟그류믄 精
神ㅣ 損ᄒᆞᆯ가 젓노라

白帝空祠廟孤雲自往來 公孫述의 廟ㅣ 在白帝城ᄒᆞ니라 ○
白帝예 祠廟ㅣ 뷔엿ᄂᆞ니 외ᄅᆞ왼 구루미 절로 가며 오며 ᄒᆞᄂᆞ다 江山城宛
轉棟宇客徘徊 宛轉은 猶周回也ㅣ라 ○江 山애 城ㅣ 둘엇ᄂᆞ니 棟宇예
나그내 머므노라 勇略今何在當時亦壯哉 勇猛ᄒᆞᆫ 謀略ᄋᆞᆫ
이제 어듸 잇ᄂᆞ니오 그 저기 ᄯᅩ 壯盛ᄒᆞ닷다 後人將酒肉虛殿自

壅埃將酒肉ᄋᆞᆫ祭ᄒᆞᆫ시라○後엣사ᄅᆞ미술
고기ᄅᆞᆯ가져오ᄂᆞ니벼ᇇ敎엔힐로ᄃᆞ드
리잇
도다谷鳥鳴還過林花落又開됫고리새ᄂᆞᆫ
우리도로다
나가고수프렛고
ᄯᅩ디고ᄯᅩ픠놋다多慚病無力騎馬入青苔
病ᄒᆞ야힘이업서몰타프ᄅᆞᆫ이
싀ᄃᆞ려오몰헤붓그리노라

、上白帝城

城峻隨天壁樓高更女墻女墻ᄋᆞᆫ城上堞也
ㅣ라○城ㅣ노파
하ᄂᆞᆳ石壁을조ᄎᆞ니樓ㅣ
놉고ᄯᅩ女墻ㅣ잇도다江流思夏后風至
憶襄王夏后ᄂᆞᆫ禹ㅣ治水ᄒᆞ시니라宋玉의
風賦에襄王ㅣ遊於蘭臺之宮ㅣ어

늘有風ㅣ颯然而至라ᄒᆞ니○ᄀᆞᄅᆞ미흐르거늘夏后ᄅᆞᆯᄉᆞ랑ᄒᆞ고ᄇᆞᄅᆞ미오거늘褰코올ᄒᆞ思憶ᄒᆞ노라 老去聞悲角人扶報夕陽 늘거가매슬픈吹角ㅅ소리ᄅᆞᆯ드ᄂᆞ니사ᄅᆞ미더위자바셔히디가ᄂᆞ다알외ᄂᆞ다 公孫初恃險 躍馬意何長 蜀都賦에公孫ㅣ躍馬而稱帝라ᄒᆞ다○公孫述ㅣ처어믜險ᄒᆞᆫ지ᄅᆞᆯ미더믈타ᄃᆞᆯ이나던ᄠᅳ디ᄌᆞ오기도다

丶白帝城樓

江度寒山閣城高絶塞樓 ᄀᆞᄅᆞᆷᄆᆞᆫ치운뫼ㅅ閣ᄋᆞ로다나가고城은먼ᄀᆞᆺ樓에노ᄑᆞᆺ도다 翠屛宜晩對白谷會深遊 ᄑᆞ른石屛

을나조히劉ᄒᆞ야ᄎᆞ기로ᄒᆞ니 흰고랫모로매기미노르리라 罷罷能鳴鴈

輕輕不下鷗 能히우는그려기는ᄉᆞᆯ지며ᄉᆞᆯ ᄅᆞ고ᄂᆞᆯ오니이니ᄒᆞᄂᆞᆫᄃᆞ며 ᄀᆞᄂᆞᆫ가ᄇᆡ야오 겨가ᄂᆞᆫ얍도다

夷陵春色起漸擬放扁舟 夷陵은峽州라○夷陵에봄비치니ᄂᆞ니 漸漸져근ᄇᆡᄅᆞᆯ노코져ᄃᆡ기노가

白帝樓

漠漠虛無裏連連睥睨侵 睥睨ᄂᆞᆫ城上女墻ㅣ라侵은言睥睨ㅣ侵虛無之裏니謂其高也ㅣ라○아ᄃᆞᆨᄒᆞᆫ뷘소개니엣ᄂᆞᆫ睥睨ㅣ侵ᄒᆞ얏도다 樓

光去日遠峽影入江深 樓ㅅ비ᄎᆞᆫᄒᆡ게ᄇᆡᆼ으리멀고峽ㅅ그르메

논ᄀᆞᄅᆞ매ᄃᆞ리갑도다

臘破思端綺春歸待一金 一金은 一鎰金也ㅣ라 이ᄂᆞᆫ 思端綺ᄂᆞᆫ 欲作春衣오 待一金ᄋᆞᆫ 欲爲資用ㅣ니라 ○ 臘月ㅣ 업서ᄆᆞ거늘 ᄒᆞᆫ곳기블 ᄉᆞ랑ᄒᆞ고 보미 도라오거늘 ᄒᆞᆫ金을 기드리노라

去年梅柳意還欲攬邊心 言梅柳ㅣ 欲開花葉也ㅣ라 ○ 니거힛 梅花와 버들ᄠᅳ디 도로혀 ᄀᆞᅀᆡ 왓ᄂᆞᆫ ᄆᆞᅀᆞ믈 어여고져 ᄒᆞᄂᆞ다

白帝城最高樓

城尖徑昃旌旆愁獨立縹緲之飛樓 城ㅣ ᄲᅩᄅᆞᆺ고 길히 기울오 旌旆ㅣ 시름ᄃᆞ외니 아ᄋᆞ라ᄒᆞᆫ ᄂᆞᆫᄃᆞᆺᄒᆞᆫ 樓에 ᄒᆞ오아 셔쇼라 峽拆雲

霾龍虎睡江清日抱黿鼉遊 峽ㅣ 뻬디고 구루미 븟텟ᄂᆞᆫ ᄃᆡ 龍虎ㅣ ᄌᆞ올오 ᄀᆞᄅᆞ미 ᄇᆞᆰ고 ᄒᆡㅅ 비치 ᄢᅴ엿ᄂᆞᆫ ᄃᆡ 黿鼉ㅣ 노ᄂᆞ다 扶桑西枝封

斷石弱水東影隨長流 此ᄂᆞᆫ 極言樓高之狀ᄒᆞ니라 ○ 扶桑ㅅ 西ㅅ녁 가지ᄂᆞᆫ 구ᄎᆞᆫ 돋ᄂᆞᆫ 해 얼깃고 弱水ㅅ 東녁 그르메ᄂᆞᆫ 기리 흐르ᄂᆞᆫ 므를 조차 가ᄂᆞ다

杖藜嘆世者誰子泣血迸空回白頭 도ᄐᆞ랏 막대 딥고 世를 嗟嘆ᄒᆞᄂᆞ니ᄂᆞᆫ 누고 피 ᄲᅮ티 우리 虛空애 ᄲᅮᆺ고 셴 머리를 회도로노라

陪諸公上白帝城樓宴越公堂之作

此堂存古制城上俯江郊 越公楊素之堂也ㅣ라 ○ 이 堂ㅣ 古

制ㅣ 잇ᄂᆞ니 城우희 서 江郊ᄅᆞᆯ 디렛도다 落構垂雲雨荒階蔓草茅 디논ᄃᆞᆺ 혼 집ᄀᆞ온 뎐 雲雨ㅣ 드렛고 거츤 階砌옌 草茅ㅣ 니ᅀᅥ렛도다 柱穿蜂溜蜜棧缺燕添巢 기동 ᄠᅮᆯ온 ᄃᆡᆫ 버리 ᄭᅮᆯ롤 흘렷고 棧道ㅣ ᄒᆞ야딘 뎐 져비 지블 더엇도다 坐接春盃氣心傷艷蘂梢 안자셔 봆숤잔 氣運을 相接ᄒᆞ고 ᄆᆞᅀᆞ문 고온 곳 픳논 가지예 슬노라 英靈如過隙宴衎願投膠 傷楊素의 英靈ㅣ 已逝호미 如白駒의 過隙之速也ㅣ라 衎은 樂也ㅣ니 言陪諸公宴樂ᄒᆞ야 願如以漆投膠而結綢繆之好也ㅣ라 ○ 넉시 ᄆᆞ리 ᄠᅳᆷ 디나가미 ᄲᆞᄅᆞ니 이바디ᄒᆞ야 즐겨셔 오ᄉᆞ로 갓부레 다ᄆᆞᆷ고져 願ᄒᆞ노라 莫問

東流水生涯未即抛이ᄂᆞᆫ 人生을 ᄌᆞ재 ᄇᆞ리디 몯ᄒᆞᆯ시 須當行樂ᄒᆞ리니 ᄆᆞᅀᆞᆷ 구틔여 歲月의 믈 흐르ᄃᆞᆺ 시수이가 믈 무르리오 ᄒᆞ니라 ○ 東녀그로 흘러가ᄂᆞᆫ 므를 묻디 말롤디니 人生을 곧 ᄇᆞ리디 몯거니ᄯᆞ녀

、城上

草滿巴西綠空城白日長 프른 巴西예 ᄀᆞᄃᆞᆨᄒᆞ야 프르고 븬 城에 ᄇᆞᆯᄀᆞᆫ 나리 기도다

風吹花片片春動水茫茫 ᄇᆞᄅᆞ미 부니 고지 片片이 오ᄇᆞᆯ리 ᄀᆞ리워니 므리 아ᄋᆞ라ᄒᆞ고 다

八駿隨天子群臣從

武皇 周穆王이 八駿ᄒᆞ야 巡行天下ᄒᆞ고 漢武帝ㅣ 而巡幸ᄒᆞ니 此ᄂᆞᆫ 北代宗之

幸陝ᄒᆞ니라 ○ 여듧 駿馬ㅣ 天子를 좃ᄌᆞᆸ고 羣臣ㅣ 武皇을 뫼ᅀᆞᆸ도다 遙聞出

巡守早晚遍遐荒 나가 巡守ᄒᆞ샤ᄆᆞᆯ 아ᄋᆞ라 히 든노니 어느 저긔 면셔 해 다 오시려뇨

江陵節度陽城郡王의 新樓成이어늘 王

ㅣ請嚴侍御判官ᄒᆞ야 賦七字句ㅣ어늘 同

作ᄒᆞ노라

樓上炎天氷雪生高飛燕雀賀新成 生氷雪ᄋᆞᆫ 言樓高而寒凉也ㅣ라 淮南子애 大厦ㅣ成而燕雀ㅣ相賀ㅣ라ᄒᆞ다 ○ 樓우희 더운 하ᄂᆞᆯ해

녀름과 눈괘 나ᄂᆞᆫ ᄃᆞᆺᄒᆞ니 노피 ᄂᆞᄂᆞᆫ 져비 새 새로 지어슈믈 慶賀ᄒᆞᄂᆞ다 碧窓宿

霧濛濛濕朱栱浮雲細細輕 ᄠᅳ른 窓ㅅ 자ᄂᆞᆫ 雲霧ᄂᆞᆫ 어득ᄒᆞ야 져젯고 블근 대공앳 ᄠᅳᆫ 구룸ᄋᆞᆫ ᄀᆞᄂᆞ라 가비얍도다 杖鉞褰帷瞻具

美投壺散帙有餘清 漢ㅅ 宗資ㅣ 杖鉞ᄒᆞ야 督州郡ᄒᆞ고 賈琮ㅣ 爲冀州刺史ᄒᆞ야 命褰帷裳ᄒᆞ니 皆比衛王ᄒᆞ다 ○鈇鉞을 딥고 帳ᄋᆞᆯ 거더 쇼매 다 아ᄅᆞᆷ다오ᄆᆞᆯ 보ᄂᆞ니 投壺ᄒᆞ며 書帙ㅣ 헤텨슈메 ᄆᆞᆯ고미 有餘ᄒᆞ도다 自公多暇延

叅佐江漢風流萬古情 구윗 일ᄒᆞ다가 한 餘暇애 叅佐ᄅᆞᆯ 延引ᄒᆞ시니 江漢앳 風流ᄅᆞᆯ 외요미 萬古앳 ᄠᅳ디로다

又作此奉衛王

西北樓成雄楚都遠開山岳散江湖西北녁긔樓를지어楚人都邑에雄壯ᄒᆞ니山岳ㅣ머리여렛고江湖ㅣᄒᆞ렛도다二儀淸濁還高下三伏炎蒸定有無言此樓ㅣ高壯ᄒᆞᆯᄉᆡ登望其上則愈見天高地下而三伏炎熱은有乎無乎아言其必無也ㅣ라○하ᄂᆞᆯ과ᄯᅡ희볼ᄀ며ᄒᆞ리요미도로노ᄑᆞ며ᄂᆞᆺ가오니三伏앳더위ᄂᆞᆫ一定히이실가업슬가推轂幾年唯鎭靜曳裾終日盛文儒古者애遣將ᄒᆞᄃᆡ跪而推轂ᄒᆞ더니言衛王之節鎭也ㅣ라鄒陽이何王之門에不可曳長裾ㅣ라ᄒᆞ다○술위ᄅᆞᆯ미리와몃

힘믈오직ᄂᆞᆯ릐安靜ᄒᆞ니오옷기술글금어나리모ᄃᆞ록글ᄒᆞᆯ션비하도다 白頭

授簡焉能賦媿似相如為大夫 梁王ㅣ授簡於司馬大夫

曰為寡人賦之라ᄒᆞ다此ᄂᆞᆫ甫ㅣ自謙也ㅣ라○센머리예글월을주ᄃᆞᆯ어느能히지으리오相如ㅣ大夫ᄃᆞ외닐고토믈붓그리노라

陪章留後侍御宴南樓得風字

絶域長夏晩茲樓淸宴同 먼ᄀᆞᆺ긴녀름나조히이樓에몰고이바디를同ᄒᆞ라

朝廷燒棧北鼓角滿天東 漢人高祖ㅣ入漢中而燒絶棧道ᄒᆞ니라蜀之西地多雨ᄒᆞᆯ쉬名漏天ㅣ라○朝廷은블브틴棧道ㅅ北

티기오鼓角ㅅ소리ᄂᆞᆫ셔ᄂᆞᆫ하ᄂᆞᆯ東녀기로다

屢食將軍第仍騎御史驄此ᄂᆞᆫ甫ㅣ自謂라○將軍의지븨와不조밥먹고御史의驄馬ᄅᆞᆯ지즈로ᄐᆞ노라

本無丹竈術那免白頭翁言無延年丹砂鍊服之術ᄒᆞᆯ시未免衰老也ㅣ라○本来로丹竈ᄒᆞᆯ術업거니엇데머리셰여늘구믈免ᄒᆞ리오

寇盜狂歌外形骸痛飮中盜賊은어려운놀앳밧긔잇ᄂᆞ니내얼구른ᄀᆞ장술머ᄂᆞᆫ조기로다

野雲低度水簷雨細隨風ᄅᆡ구ᄒᆡ루믄ᄂᆞ즈기믈로디나가고집기슬겟비ᄂᆞᆫᄀᆞᄂᆞ라ᄇᆞᄅᆞ몰조차ᄂᆞ다

出號江城黑題詩蠟炬紅夜傳號令은節度府人에리라○號令을내니ᄀᆞ름城ㅣ

어듭고 그를 ᄡᅳ니 말ᄋᆞ혼 보리ᄒᆞᆯ리로다 此身醒復醉不擬哭途

窮 言飮酔란 如阮籍ᄒᆞ고 哭途則不擬學也ㅣ니라 ○이 모미 ᄭᆡ락 ᄯᅩ 酔ᄒᆞ락ᄒᆞ야셔 窮途애 울오져 너기디 아니ᄒᆞ노라

、臺上得涼字

改席臺能迥留門月復光 改席은 自南樓로 移於臺上也ㅣ라 ○돗ᄀᆞᆯ고 디ᄂᆞ로매 臺ㅣ 能히 이ᄋᆞ라ᄒᆞ니 門의 머므리ᅀᅲ에 ᄃᆞ리 ᄯᅩ 빗나도다 雲霄遺暑濕山谷進風涼 구룸 ᄭᅵᆫ 하ᄂᆞᆯ해 더위예 축축호미 업스니 뫼ᄉ 고ᄅᆞᆫ ᄇᆞᄅᆞ미셔 ᄂᆞᆯ호ᄆᆞᆯ 나오ᄂᆞ다 老去一盃足誰憐屢舞長

늘거가매ᄒᆞᆫ잔술리足ᄒᆞ니ᄌᆞ조흠ᄎᆞ何須
가ᄅᆞᆯ기리ᄒᆞ몰뉘어엿비너기려뇨

把官燭似惱鬢毛蒼 言燭光ㅣ照鬢ᄒᆞ요미似惱之也ㅣ라○엿뎨
구틔여구윗춋브를자바ᄇᆞ리오그믿
ᄃᆡ리의셰유믈ᄒᆞ놀이ᄂᆞᆫ듯도가

登岳陽樓

昔聞洞庭水今上岳陽樓 녜洞庭ㅅ므를드른다니오ᄂᆞᆯ岳陽樓의올오라

吳楚東南坼乾坤日夜浮 吳楚ㅣ在洞庭東南ᄒᆞ니此ᄂᆞᆫ言洞庭闊遠之狀ᄒᆞ다○吳와楚왜東南녀기ᄠᅴ뎟고하ᄂᆞᆯ과ᄯᅡ콰ᄂᆞᆫ日夜애ᄠᅥᆺ도다

親朋無一字老去有孤舟 言朋友ㅣ無問訊而但乘孤舟

於此而已니라 ○ 親ᄒᆞᆫ 버디 ᄒᆞᆫ 字ㅅ 글월도 업스니 늘거 가매 외로왼 ᄇᆡ ᄲᅮᆫ 잇도다 戎馬關山北憑軒涕泗流사호맷 ᄆᆞ리 關山ㅅ 北녀긔 잇ᄂᆞ니 軒檻ᄋᆞᆯ 비겨셔 눉므를 흘리노라

、陪裴使君登岳陽樓

湖闊兼雲霧樓孤屬晚晴ᄆᆞᄅᆞ미 어위니 雲霧ㅣ 조치 잇고 樓ㅣ 외ᄅᆞ외니 나죗 개요매 브텃도다 禮加徐孺子詩接謝宣城徐孺子ᄂᆞᆫ 豫章人ㅣ니 陳蕃ㅣ 為太守ᄒᆞ야 設榻待之ᄒᆞ니 甫ㅣ 自比ᄒᆞ다 謝玄暉ㅣ 為宣城太守ᄒᆞ니 比裴使君也ㅣ라 ○ 禮ᄅᆞᆯ 徐孺子의게 ᄃᆞ으시ᄂᆞ니 그를 謝宣城을 接對

ᄒᆞ라
雪岸叢梅發春泥百草生 눈 깃ᄂᆞᆫ 두든헤 ᄂᆞᆫ들 굴 梅花ㅣ 퓌고 봆ᄒᆞᆯ긘 온가 짓프리 낫도다
敢違漁父問從此更南征 屈原ㅣ放逐江南이어ᄂᆞᆯ 漁父ㅣ問之ᄒᆞ니 甫ㅣ今南行ᄒᆞ면 漁父亦問也ㅣ니라 ○ 漁父의 무루믈 구틔여 違避ᄒᆞ야리 마ᄅᆞᆫ 일로브터 ᄯᅩ 南으로 가노라

送嚴侍郎ᄒᆞ야 到緜州ᄒᆞ야 同登杜使君의 江樓ᄒᆞ야 宴得心字ᄒᆞ라

野興每難盡江樓延賞心 ᄆᆡ햇 興心을 ᄆᆡ양 다ᄋᆞᄃᆞᆯ 몯ᄒᆞ야 ᄀᆞᄅᆞᆷ樓에 賞玩ᄒᆞᄂᆞᆫ ᄆᆞᅀᆞᄆᆞᆯ 혀노라
歸朝送使節落景惜登臨

朝廷으로 가ᄂᆞᆫ 使節을 보내노라 ᄒᆞ야 稍稍

디ᄂᆞᆫ ᄒᆡ예 登臨ᄒᆞ야 ᄉᆞ믈 앗가노라

烟集渚微微風動襟 ᄃᆞ티기 ᄂᆡ 믌ᄀᆞᅀᆡ 몯고 微微히 ᄇᆞᄅᆞ미 옷기즐

뮈우ᄂᆞ다 重船依淺瀨輕鳥度層陰 므거운 ᄇᆡᄂᆞᆫ 열가온 여흐

레 브텟고 가ᄇᆡ야온 새ᄂᆞᆫ 層層인 그ᄂᆞᆯ ᄒᆞᆫ ᄃᆡ 나가놋다 檻峻背幽谷窓

虛交茂林 軒檻ㅣ 노ᄑᆞ니 幽深ᄒᆞᆫ 고ᄅᆞᆯ 져ᄇᆞ고 窓ㅣ 뷔니 거츤 수프리 섯것도다

燈光散遠近月彩靜高深 블비ᄎᆞᆫ 遠近에 흐ᄐᆞ텟고 ᄃᆞᆯ비ᄎᆞᆫ 노ᄑᆞ

며 기픈 ᄃᆡ 寂靜ᄒᆞ얏도다 城擁朝來客天橫醉後參 城은 아ᄎᆞ

미 온 소ᄂᆞᆯ ᄢᅧᆺ고 하ᄂᆞᆯ핸 醉ᄒᆞᆫ 後엣 參星ㅣ 빗깃도다 窮途衰謝意苦

調短長吟 窮ᄒᆞᆫ 길헤 늘 깃브디 오ᄉᆞᆸᄅᆞ왼 曲調애엣 뎌ᄅᆞ며 긴 이푸미로다 此

會共能幾諸孫賢至今 甫ㅣ 自許 杜使君은 乃宗人ㅣ라 ○ 이 모

다슈믄다 몯 能히 ᄒᆞᆫ미 ᄒᆞᆫ리오 諸孫ᄋᆞᆫ 어디로ㅣ 이졔 니르도다 不勞朱戶

閒自待白河沉 謂不勞開戶ᄒᆞ야 뎌 已見銀河之沒也ㅣ라 ○ 블근 門다

도ᄅᆞᆯ 잇비 아니ᄒᆞ야셔 흰 河漢의 ᄃᆞ마가ᄆᆞᆯ ᄉᆞ싀로 기드리노라

七月一日題終明府水樓二首

高棟層軒已自涼秋風此日洒衣裳 노ᄑᆞᆫ 져 ᄆᆞᄅᆞ와

層層인 軒檻ㅣ ᄒᆞ마 절로 서늘ᄒᆞ니고 온 ᄇᆞᄅᆞ미 이 나래 옷ᄀᆞ외예 ᄲᅳ리ᄂᆞ다 翛然

欲下陰山雪不去非無漢署香 陰山ᄋᆞᆫ匈奴人地名ㅣ니 四時예常有氷雪ᄒᆞ니라漢制예尚書郎ㅣ 含鷄舌香ᄒᆞ더니라甫ㅣ爲工部郎ᄒᆞ니可以 含香이언마ᄅᆞᆫ오직滯於夔峽ᄒᆞ야不能去 耳니라○쉬눈히陰山앳누니ᄂᆞ리고뎌ᄒᆞ ᄂᆞ니가디몯ᄒᆞ란ᄃᆡ만뎡漢人 마ᄋᆞ랫香ㅣ업지아니ᄒᆞ니라

絶壁過雲開錦繡蹊松隔水奏笙簧 夔峽路애有錦繡岩 ᄒᆞ니라○ᄂᆞᆫ石壁 에디나가ᄂᆞᆫ구루믄錦繡ᄅᆞᆯ여리내엿고섯 권소ᄅᆞᆫ므를즈음ᄒᆞ야뎌피리ᄃᆞ를부ᄂᆞᆫᄃᆞᆺᄒᆞ 도다

看君宜著王喬履眞賜還疑出尚方 葉令王喬 ㅣ有神術ᄒᆞ더니每來朝애雙鳧飛來어늘 擧網得之ᄒᆞ니乃尚方所賜履也ㅣ러라言

終明府ㅣ如王喬也ㅣ라○그듸ᄅᆞᆯ본ᄃᆡᆫ王
喬ㅣ이시ᄂᆞᆯ시노미맛당ᄒᆞ니真實로주샨거
재尚方으로셔난거신
가도ᄅᆞᆯ疑心ᄒᆞ노라

宓子彈琴邑宰日終軍棄繻英妙時 宓子賤ㅣ彈琴
而治單父ᄒᆞ니라終軍ㅣ十八애入關ᄒᆞ거
ᄂᆞᆯ關吏與軍繻ᄒᆞᆫ대軍ㅣ棄之而去ᄒᆞ니라
○宓子ㅣ거믄고ᄂᆞᆯ오ᄀᆞ올히宰ᄒᆞ더얏ᄂᆞᆫ
나리오終軍ㅣ繻ᄅᆞᆯᄇᆞ리ᄂᆞᆫ뎌믄ᄢᅢ로다

承家節操尚不泯為政風流今在茲 風流ᄂᆞᆫ風美之
聲ㅣ流布天下ㅣ니라言明府ㅣ繼終軍家
業ᄒᆞ고為政之美ᄂᆞᆫ如子賤也ㅣ라○家風
을니엇ᄂᆞᆫ節操ㅣ오히려ᄃᆞ다아니ᄒᆞ니
政事ᄒᆞᄂᆞᆫ됴ᄒᆞᆫ소리ᄂᆞᆫ이제예잇도다可

憐賓客盡傾蓋何處老翁來賦詩 上句ᄂᆞᆫ言明府之愛客也ㅣ라 ○ 가히 돗오다 소ᄂᆞᆯ 다 盖ᄅᆞᆯ 기우리 對接ᄒᆞᄂᆞ니 어ᄂᆡ 늘근 한아비 와셔 그를 짓가 니오

楚江巫峽半雲雨清簟疎簾看弈碁 楚ㅅ ᄀᆞ롬과 巫峽에 半인 구룸과 비로소니 ᄆᆞᆯ근 삳과 설픈 비래셔 바독 쟝긔ᄅᆞᆯ 보노라

、春日梓州登樓二首

行路難如此登樓望欲迷 길ᄒᆡ ᄃᆞᆫ뇨매 어려우미 이 ᄀᆞᆮᄒᆞ니 樓의 올아 ᄇᆞ라오니 어즐홀 ᄃᆞᆺ도다

身無却少壯迹有但羈栖 모ᄆᆞᆫ 도로혀 져믈 주리 업도소니 자최ᄂᆞᆫ 오직 나그내로 브텨 슈미 잇도다

江水

流城郭春風入鼓鞞 ᄀᆞᄅᆞᆷ믈흐른城郭으로ᄒᆞᆫ 리가지늘봆ᄇᆞᄅᆞ미사 홇붑소리예 드럿도다

雙雙新燕子依舊已銜泥 雙雙 ᄒᆡᄂᆞ ᄂᆞᆫ새져비녜ᄅᆞᆯ브터 ᄒᆞ마흘ᄀᆞᆯ므놋다

天畔登樓眼隨風入故園 하ᄂᆞᆯᄀᆞᇫ이樓의올 맛ᄂᆞᆫ누니ᄇᆞᄅᆞᆷ 조차故園으로 드러가ᄂᆞ다

戰場今始定移柳更能存 言故 園에舊所移種之柳ㅣ今更能存乎아○사 호ᄃᆞᆫ仲ᄒᆡ아ᄃᆡ비르서安定ᄒᆞ니옮겨심곤 버드를또能 히잇ᄂᆞᆫ가

厭蜀交遊冷思吳勝事繁 蜀엣 사괴 야ᄂᆞᆫ사ᄅᆞᄆᆞᆫ冷호ᄆᆞᆯ아쳗고吳 앳됴ᄒᆞᆫ이리하ᄆᆞᆯᄉᆞ랑ᄒᆞ노라

應須理舟

揖長嘯下荊門당당이모로매비롤고텨기리휫ᄑᆞ람불오荊門으로ᄂᆞ리갈디로다

登樓

花近高樓傷客心萬方多難此登臨고지노ᄑᆞᆫ樓의갓가와나그내ᄆᆞᅀᆞᄆᆞᆯ슬케ᄒᆞᄂᆞ니萬方애難ㅣ하거늘예와登臨ᄒᆞ얫노라

錦江앳봆비ᄎᆞᆫ天地人ᄎᆡ엄브리왯ᄂᆞ니玉壘앳뜬구루믄古今에改變ᄒᆞ놋다

春色來天地玉壘浮雲變古今玉壘ᄂᆞᆫ山名ㅣ라○錦江

北極朝廷終不改西山寇盜莫相侵終不改ᄂᆞᆫ言國家ㅣ不亂

ᄂᆞ也ㅣ라○北極에朝廷이ᄆᆞᄎᆞ매고티디
아니ᄒᆞ리니西山앳盜賊ᄃᆞᆯᄒᆞᆫ서르侵犯ᄒᆞ
디말라 可憐後主還祠廟日暮聊爲梁甫吟 須溪
ㅣ云後主ᄂᆞᆫ亡國者ㅣ라何是祠이리오徒
使人ᄋᆞ로思諸葛의梁父之恨ㅣ니梁父吟
ㅣ亦興廢之感也ㅣ니라○可히슬프도다
後主ᄅᆞᆯ도로혀祭祀ᄒᆞᄂᆞ니나조ᄒᆡ梁甫
吟을ᄒᆞ노라

題新津北橋樓得郊字

望極春城上開筵近鳥巢 近鳥巢ᄂᆞᆫ樓高ᄒᆞᆯ
시라○봄城우희
셔ᄇᆞ라오ᄆᆞᆯᄀᆞ장ᄒᆞ노돗
골픠새기세갓가이호다 白花簷外朶青柳

檻前梢 힌고조집기ᄒᆡ밧긔벋기고ᄑᆞ 른데ᄃᆞ른軒檻말ᄭᅱ가지로다 池水

觀爲政廚烟覺遠庖 上句ᄂᆞᆫ言其澄淸ᄒᆞ야 不可撓也ㅣ라下句ᄂᆞᆫ 言見廚烟ᄒᆞ야知遠庖廚也ㅣ니라○못ᄆᆞ 레政治ᄒᆞ요ᄆᆞᆯ보리로소니브섭ᄂᆡ예庖廚 의머로ᄆᆞᆯ 말리로다

西川供客眼唯有此江郊 西ᄀᆡ예 셔나그 내누네올일거슨오직 이ᄀᆞᄅᆞᇝ郊野ㅣ잇도나

閣夜

歲暮陰陽催短景天涯霜雪霽寒宵 歲暮애 陰陽ㅣ 디ᄂᆞᆫ히ᄅᆞᆯ뵈아ᄂᆞ니하ᄂᆞᆳᄀᆞᆺ앳 霜雪에ᄎᆞᆫ하ᄂᆞᆯ히가얏도다

五更鼓角聲

悲壯三峽星河影動搖 東方朔曰星辰搖動은勞民之應ㅣ니라

○五更에鼓角소리ᄂᆞᆫ슬프며壯大ᄒᆞ고 三峽에별와銀河ᄂᆞᆫ그르메이어ᄂᆞᆫ다

野哭千家聞戰伐 夷歌數處起漁樵 ᄆᆡ해셔우ᄂᆞᆫ즈ᄆᆞᆫ지브란사혼대우ᄂᆞᆫ고ᄃᆞᆯ드르노니되놀애ᄂᆞᆫ몃고대셔고기자ᄇᆞ며나모뷔리니ᄂᆞ니오

臥龍躍馬終黃土 人事音書漫寂寥 臥龍ᄋᆞᆫ孔明ㅣ오躍馬ᄂᆞᆫ公孫述ㅣ라○龍ㅣ누어시며ᄆᆞᆯᄃᆞᆯ이던이리ᄆᆞᄎᆞ매누른ᄒᆞᆯ기ᄃᆞ욋도소니사ᄅᆞᆷ미일와音信글월ᄃᆡ쇽졀업시괴외ᄒᆞ도다

西閣二首 大曆元年에甫ㅣ寓居夔州之西閣ᄒᆞ니라

巫山小搖落碧色見松林 巫山앤ᄒᆞᆫ리ᄇᆡ려듀미져그니프른비츨소나모수플보리로다

百鳥各相命孤雲無自心 相命ᄋᆞᆫ相鳴也ㅣ라○온가짓새제여곰서르우ᄂᆞ니외ᄅᆞ왼구루믄제ᄆᆞᅀᆞ미업도다

層軒俯江壁要路亦高深 層層인軒檻ㅣ고ᄅᆞᆷ石壁을디렛ᄂᆞ니조ᅀᆞ로왼길히ᄯᅩ놉고깁도다

朱紱猶紗帽新詩近玉琴 朱紱ᄋᆞᆫ朝服ㅣ오紗帽ᄂᆞᆫ隱士之巾ㅣ니甫ㅣ雖爲郞而今處閑散也ㅣ라○朱紱ᄒᆞ고오히려紗帽를스니새그레玉琴을갓가이ᄒᆞ라

功名不早立衰疾謝知音 知音은ᄆᆞᅀᆞᆷ아ᄂᆞᆫ사ᄅᆞ미라○功名을일셰디몯ᄒᆞ니늘고病ᄒᆞ야知音

을愧謝ᄒᆞ노라 哀世非王粲終然學越吟 越人莊舃ㅣ在楚ᄒᆞ야思鄕而越吟ᄒᆞ니甫ㅣ以比思故鄕也ㅣ라ㅇ時世롤슬허호ᄆᆞᆫ王粲ㅣ아녀가ᄆᆞᄎᆞ매越吟을비호노라

懶心似江水日夜向滄洲 言欲優遊江海也ㅣ라ㅇ게으른ᄆᆞᅀᆞ미ᄀᆞᄅᆞᇝ믈ᄀᆞᆮᄒᆞ야日夜애滄洲로向ᄒᆞ야가ᄂᆞ다 不道含香賤其如鑷白休 含香ᄋᆞᆫ見前終明府詩註ᄒᆞ다言貟外郎ㅣ雖非賤ㅣ나其於不勝鑷白애何耶오ㅇ香ᄋᆞᆯ머굼ᄂᆞᆫ벼스리卑賤ᄒᆞᆫ니ᄅᆞ디몯ᄒᆞ련마ᄅᆞᆫ셴터리ᄲᅢ보믈가로만그엇뎨ᄒᆞ리오

經過淍碧柳蕭索倚朱樓 기나오매프른버드

리ᄢᅥ러디ᄂᆞ니 蕭索히
블근 樓를 바려 셋노라 畢娶何時竟消中得
自由 向子平曰男娶女嫁ᄅᆞᆯ畢ᄒᆞ고 斷家事
ᄒᆞ리라 自由ᄂᆞᆫ 猶自得ㅣ라 ○ 子息姻
娶ᄆᆞᆺᄎᆞᆫ 어느 지리다ᄒᆞ려뇨 消中 豪華者
ㅅ病ㅣ어니 시러곰 自由ᄒᆞ야리아
古往服食寄冥搜 服食은 服仙藥也ㅣ라 冥
搜ᄂᆞᆫ 搜尋山水冥幽之處
也ㅣ라 甫ㅣ 言豪華도 오직 古人의 이ᄅᆞᆯ 보
고 服食之術로 노뇨ᄆᆞᆯ 로 몯ᄒᆞ노라 ᄒᆞ니 皆
自嘆之詞ㅣ라 ○ 豪華ᄒᆞ모ᄆᆞᆫ 디나간 사
ᄅᆞᄆᆡ 이ᄅᆞᆯ 보고 藥ᄒᆞ야 머구므란 冥搜ᄒᆞ매
브텨노라 詩盡人間興兼須入海求 그를 人間애 興을 다 짓고
바ᄅᆞ래 드러 가 求호ᄆᆞᆯ
조쳐 모로매 호리라

夜宿西閣曉呈元二十一曹長

城暗更籌急樓高雨雪微 城ㅣ어드우니更漏ㅅ 사소리ᄲᆞᄅᆞ고樓ㅣ노픈ᄃᆡ눈 오미微微ᄒᆞ도다

稍通綃幕霽遠帶玉繩稀 綃幕ᄋᆞᆫ天霽之色ㅣ如綃也ㅣ라玉繩ᄋᆞᆫ星名ㅣ라 아ᄂᆞᆫ皆言樓之高也ㅣ라○져기 하ᄂᆞᆯ 갠ᄃᆡ通ᄒᆞ얏고 머리 玉繩의 ᄂᆞ므로 ᄆᆡ 드ᄆᆞᆯᄃᆞ다

門鵲晨光起檣烏宿處非 檣烏ᄂᆞᆫ檣上애刻爲烏形ᄒᆞ야以占風者ㅣ라○門의 갓치ᄂᆞᆫ 새뱃비체 ᄂᆞᆯ애고 빗대옛 가마괴ᄂᆞᆫ 잔 ᄯᅡ히 아니로다

寒江流甚細有意待人歸 이ᄂᆞᆫ ᄒᆞᄅᆞᄂᆞᆫᄃᆡ 루사ᄅᆞ미 도라오과뎌 여ᄒᆞᄂᆞᆫ 둣다 ᄒᆞ니라○서ᄂᆞᆯᄒᆞᆫ ᄀᆞᄅᆞ미

흘로이甚히ᄒᆞ나내사ᄅᆞ미
오ᄆᆞᆯ기ᄃᆞᆯ오ᄂᆞᆫᄠᅳ디잇도다

、西閣口號呈元二十一

山木抱雲稠寒空繞上頭 뫼햇남기구루믈아나히니치운虛空ᄋᆞᆫ머리우희횟돌엇도다 雲崖纔變石風幔不依樓 구룸ᄭᅵᆫ비레ᄂᆞᆫ아야라돌히改變ᄒᆞ고ᄇᆞᄅᆞᆷ부ᄂᆞᆫ帳ᄋᆞᆫ樓의븓디아니ᄒᆞ놋다 社稷堪流涕安危在運籌 言思社稷之危則堪為流涕니安危ᄂᆞᆫ在大臣의運籌如何耳니나○社稷은눉믈흘렴직ᄒᆞ니便安ᄒᆞ며바ᄃᆞ라오ᄆᆞᆫ運籌호매인ᄂᆞ니라 看君話王室感動幾消憂 그듸의王室人일ᄋᆞᆯ우믈보고

感動ᄒᆞ야몃버늘시르믈슬아니오

ㅣ西閣夜

恍惚寒山暮逶迤白霧昏逶迤ᄂᆞᆫ長遠也ㅣ라○어즐ᄒᆞᆫ치운뫼ㅅ나조히逶迤히ᄒᆡᆫ雲霧ㅣ어득ᄒᆞ도다

山虛風落石樓靜月侵門뫼히뷘ᄃᆡᄇᆞᄅᆞ미돌ᄒᆞᆯ디오樓ㅣ寂靜ᄒᆞᆫᄃᆡᄃᆞᆯ비치門의비취엿도다

擊柝可憐子無衣何處村擊柝ᄋᆞᆫ巡警夜者ㅣ니其勞苦ㅣ可哀也ㅣ라○柝두드리ᄂᆞᆫ번可히어엿븐사ᄅᆞ미로ᄃᆡ옷업스니어뒷ᄆᆞᄋᆞᆯ힌고

時危關百慮盜賊爾猶存時節ㅣ危亂ᄒᆞᆫ저긔온가짓혜아료미모ᄆᆡ매거리

偕ᄂᆞ니 盜賊아 네 오히려 잇ᄂᆞ다

、宿江邊閣

暝色延山徑高齋次水門 나죄비치 뫼길헤 머므럿ᄂᆞ니 노ᄑᆞᆫ 지븐 믌門에 머므렛도다 薄雲巖際宿孤月浪中翻 열운 구ᄅᆞ믄 바횟ᄀᆞ이셔 자고 외ᄅᆞ왼 ᄃᆞᆯ비촌 믌결 가온ᄃᆡ셔 두위이놋다 鸛鶴追飛盡豺狼得食喧 上句ᄂᆞᆫ 喩軍士ㅣ오 下句ᄂᆞᆫ 喩盜賊ㅣ라 ○ 鸛鶴ㅣ 조차 ᄂᆞᄅᆞ물 다ᄒᆞ니 豺狼ᄋᆞᆫ 바ᄇᆞᆯ 어더 서우ᄂᆞ다 不眠憂戰伐無力正乾坤 時有崔旰及吐蕃之亂ᄒᆞ니라 ○ ᄌᆞ오ᄅᆞᆯ 아니ᄒᆞ야셔 戰伐을 시름ᄒᆞ니 乾坤

올고 돌히 미엽세라

ㆍ西閣雨望

樓雨霑雲幔山寒著水城 樓읫비ᄂᆞᆫ구룸ᄐᆞᆫ帳ᄋᆞᆯ저지고묏치위ᄂᆞᆫ水城에브텃도다 徑添沙面出湍減石稜生 길헤믈흘러모래두프니길히더으고湍流ㅣᄀ올히셰니므렛돌모히내와ᄃᆞᆮ시라○길히더으니몰앳面ㅣ내밀오모리셰니돌모히나놋다 菊蘂淒疏放松林駐遠情 遠情은後凋不變ㅣ라○菊花ㅅ蘂ᄂᆞᆫᄂᆞᆫ므리펫ᄂᆞᆫ기시ᄂᆞᆯᄒᆞ고소나못수프른먼ᄠᅳ디머므럿도다 滂沲朱檻濕萬慮傍簷楹 滂沲ᄂᆞᆫ雨

負ㅣ라 ○ 滂沲ᄒᆞ매 블근 軒檻ㅣ 처ᄌᆞ니 한혜 아료ᄆᆞ로 簷楹을 비겨 쉬슈라

、不離西閣二首

江柳非時發江花冷色頻 ᄀᆞᄅᆞᆺ 맷 버들니피 ᄢᅵ니 아닌 저긔 펫고 ᄀᆞᄅᆞᆺ 맷 고지 서늘ᄒᆞᆫ 비치 ᄌᆞᆺ도다 地偏應有瘴臘近已含春 ᄯᅡ히 기ᄑᆞ니 당당이 더윗 病ㅣ 잇도다 臘日ㅣ 갓가오니 ᄒᆞ마 ᄇᆞᆷ 氣運을 머겟도다 失學從愚子無家住老身 ᄀᆞᆫ 비호기 그르ᄒᆞᄆᆞᆫ 어린 이ᄃᆞᄅᆞᆯ 조ᄎᆞ던 히 너기노니 지븐 늘근 몸 머므러 실 ᄃᆡ 업도다 不知西閣意肯別定留人 아지 몯ᄒᆞ리로다 西閣ㅅ ᄠᅳ든 여희요 ᄆᆞᆯ 즐길ㅣ 一定ᄒᆞ야 사ᄅᆞᄆᆞᆯ 머믈울가

西閣從人別人今亦故亭西閣도사ᄅᆞᆷ여희유믈므던히너기ᄂᆞ니사ᄅᆞᆷ도이제 在故亭ᄋᆞᆯ사모리라 江雲飄素練石壁斷空青空青은藥名ㅣ라○ᄀᆞᄅᆞᆺ구루믄힌기비부치ᄂᆞᆫᄃᆞᆺᄒᆞ고石壁은空青ㅣ버혀뎟ᄂᆞᆫᄃᆞᆺ도다

滄海先迎日銀河倒列星先迎日은初日ㅣ先照此閣也ㅣ니兩句ᄂᆞᆫ皆言西閣之高ㅣ라○바ᄅᆞ래돋ᄂᆞᆫ히ᄅᆞᆯ몬저맛ᄂᆞ니銀河앳버렛ᄂᆞᆫ벼리갓ᄀᆞ로비취엿도다 平生耽勝事吁駭始初經平生애됴ᄒᆞᆫ이ᄅᆞᆯ耽ᄒᆞ다니놀라온ᄃᆡ훌비르서처엄에ᄅᆞᆯ디내노라

、西閣三度期大昌嚴明府同宿不到

問子能來宿今疑索故要 子ᄂᆞᆫ指明府ㅣ라 이ᄂᆞᆫ明府ㅣ疑甫ㅣ의故要之人을보라 간가ᄒᆞ야오디아니ᄒᆞ도다ᄒᆞᄂᆞᆫ마리라 ○그ᄃᆡ 더브러能히아ᄂᆞᆫ곧다니 이제나ᄅᆞᆯ번어드라간가疑心ᄒᆞ도다

匣琴虛夜夜手板自朝朝 言期而不來故로夜夜애廢琴不撫ᄒᆞ니明府ᄂᆞᆫ持手笏而朝朝애入官也ㅣ라 ○匣읫거믄고ᄂᆞᆫ가지고밤마다虛히이슈니手板가지고스싀로아ᄎᆞᆷ마다ᄃᆞᆮ니ᄂᆞᆺ다

金吼霜鍾徹花摧蠟炬銷 鍾鳴而炬銷則夜向晨ᄒᆞ니明府ㅣ돌우믈ᄭᆡ도록ᄒᆞᆯ시라 ○쇠우르니서리엣붑소리ᄉᆞᄆᆞ차곳ᄂᆞᆺ나고지믈어디니밀로ᄒᆞᆫ브리ᄉᆞᄂᆞᆺ다

早鳧江檻底雙影漫飄飄 早鳧ᄂᆞᆫ用王喬

爲事ᄒᆞ니ᄡᅳ는明府ㅣ不來故로六邊飄颻ㅣ라ᄒᆞ다 ○ 이ᄅᆞᆯ 올히 ᄀᆞᄅᆞᆫ 軒檻ㅅ이뫼두그르메ᄉᆞᆨ절업시나빗ㅣ놋다

、草閣

草閣臨無地 柴扉永不關 플로니욘지비ᄯᅡ 업슨ᄃᆡ디렛ᄂᆞ니 셥나모門ᄋᆞᆯ기리 닷디아니ᄒᆞᄂᆞ다 魚龍回夜水 星月動秋山 고기와龍과ᄂᆞᆫ밤므레도라오고 별와ᄃᆞᄅᆞᆫ ᄀᆞᅀᆞᆳ뫼헤뮈옛도다 久露晴初濕 高雲薄未還 나쇠이슬ᄅᆞᆫ개ᄂᆞᆫᄃᆡᄀᆞᆺ저지고 놉ᄂᆞᆫ구루믄열ᄐᆡ도라가디아니ᄒᆞ놋다 泛舟慙小婦 飄泊損紅顏 慙小婦ᄂᆞᆫ ᄒᆞᆫ고대사

디몯호ᄆᆞᆫ 븟그릴시라 ○ 비ᄠᅴ워 ᄃᆞᆫ뇨매 거
지블 븟그리노니 두루 ᄃᆞᆫ녀 브터 슈메 져근
ᄂᆞᆺ치 더ᄂᆞ다

眺望 律詩九首

陪鄭公秋晚北池臨眺 嚴武ㅣ 封鄭國公ᄒᆞ니라

北池雲水闊 華館闕秋風 北녁 모새 구루멧 므리 어위니 빗난 지비 ᄀᆞᅀᆞᆳ ᄇᆞᄅᆞ매 여렛도다

獨鶴元依渚 衰荷且映空 ᄒᆞ오ᅀᆞᆺ 鶴ᄋᆞᆫ 본ᄃᆡ 믌ᄀᆞᅀᆡ 브텟고 衰ᄒᆞᆫ 蓮ᄋᆞᆫ 虛空애 비취엿도다

採菱寒刺上 踏藕野泥中 刺ᄂᆞᆫ 卽菱之刺也ㅣ라 ○ ᄆᆞᆯ와ᄆᆞᆯ ᄎᆞᆫ 가ᄉᆡ 우희 가 ᄏᆡ오

蓮으란 미햇ᄒᆞ리 나온 ᄃᆡ 볿노라 素樺分曹往金盤小徑通 言分曹乘之而採菱ᄒᆞ고金盤애盛饌ᄒᆞ야通小徑而來也ㅣ라○흰 비ᄎᆞ로 편 ᄲᅡ가ᄂᆞ니金盤ᄋᆞᆫ ᄌᆞᄂᆞᆫ 길ᄒᆞ로 ᄉᆞᄆᆞ차 오놋다 萋萋露草碧片片晩旗紅 旗ᄂᆞᆫ鄭公의旌旗ㅣ니라○ᄂᆞ저ᄂᆞᆫ 이스렛 프리 프르고 片片ᄒᆞᆫ 나ᄌᆡᆺ 旗ㅣ 블ᄀᆞ도다 盃酒霑津吏衣裳與釣翁 此ᄂᆞᆫ言津吏釣翁을皆有恩賜也ㅣ라○자내 술란 津吏ᄅᆞᆯ 지지고 옷ᄀᆞ과란 釣翁을 주놋다 異方初豔菊故里亦高桐 다ᄅᆞᆫ 따해 처엄 고온 菊花ㅣ로소니 녯 ᄆᆞ올 히도 ᄯᅩ ᄂᆞᆫ 프른 머귀 잇ᄂᆞ니라 搖落關山思淹留戰伐功 이어 ᄇᆡ러듀매 關山애 ᄠᅳ디로소니 머므

兵馬他鄉亦鼓鼙 故國에 오히려 兵馬ㅣ 잇고 他鄉애도 ᄯᅩ 鼓鼙 소리로다

江城今夜客還與舊烏啼 此ᄂᆞᆫ 感天下之亂ᄒᆞ야 與烏俱啼ᄒᆞ니 其憂國之心ㅣ 深矣라 ○ ᄀᆞᄅᆞᆷ城엣 오ᄂᆞᆯ 밤 나그내 도로 녯 가마괴와 다ᄆᆞᆺ 우ᄂᆞ니라

、瀼西寒望

水色含群動朝光切大虛 믌 비치 뭀 뮈ᄂᆞᆫ 거슬 머구멋ᄂᆞ니 아ᄎᆞᆷ 비ᄎᆞᆫ 큰 虛空애 그랏도다

年侵頻悵望興遠一蕭踈 上句ᄂᆞᆫ 늘구미 올ᄉᆡ 故鄉애 가고져 ᄒᆞ야 ᄇᆞ라ᄂᆞ니라 ○ 나히 侵逼거ᄂᆞᆯ ᄌᆞ조 슬허 ᄇᆞ라노니 興

霜露晩凄凄高天逐望低遠烟鹽井上斜景雪峰西故國猶

心ㅣ머니흔디에蕭踈ᄒᆞ도다猿掛時相學鷗行炯自如自如논猶自得也ㅣ라○나비 남기 ᄃᆞ라 ᄣᅢ를 ᄠᆞ로 서르 비호ᄂᆞ니 ᄀᆞᆯ며기 ᄃᆞᆫ뇨ᄆᆞᆯ 번ᄃᆞ기 自如ᄒᆞ도다瞿塘春欲至定卜瀼西居瞿塘애 보미 니르려 오고져 ᄒᆞᄂᆞ니 一定ᄒᆞ야 瀼西에 사ᄅᆞᆯ ᄯᅡ홀 ᄃᆞ 卜ᄒᆞ오리라

、曉望白帝城盐山

徐步移斑杖看山仰白頭날회야 거러 이르누근 마대ᄅᆞᆯ 옮기고 뫼ᄒᆞᆯ 보노라 ᄒᆞ야 ᄒᆡᆫ 머리ᄅᆞᆯ 울워노라翠深開斷壁紅遠結飛樓프른 비치 기프니 그츤 石壁ㅣ 여렷고 블근 비치 머니 ᄂᆞᄂᆞᆫ 樓ㅣ 지엇도다日

出清江望暄和散旅愁 ᄆᆞᆯ곤ᄀᆞᄅᆞᆷ몰ᄇᆞ라오니히돗ᄂᆞ니덥고溫和ᄒᆞᆫ마ᄂᆞ니그내시ᄅᆞᆷ믈ᄒᆞᆺ디ᄇᆞ리노라 春城見松雪始擬進歸舟 봄城에소남긧눈을보고도라갈ᄇᆡᄅᆞᆯ나오고져비르서혀기노라

、野望因過常少仙

野橋齊度馬秋望轉悠哉 ᄂᆡ엣ᄃᆞ리ᄀᆞ족ᄒᆞᆫᄃᆡᄆᆞᄅᆞᆯ건내야ᄀᆞᄀᆞᆯ히ᄇᆞ라오니ᄀᆞ장머도다 竹覆青城合江從灌口來 대ᄂᆞᆫ青城山ᄋᆞᆫ두퍼ᄆᆞᆺ고ᄀᆞᄅᆞᆷᄆᆞᆫ灌口도셔조차오ᄂᆞ다 入村樵徑引嘗果栗園開 ᄆᆞᄋᆞᆯ히ᄃᆞ로리나모지ᄂᆞᆫ길ᄒᆞ고ᄂᆞ서가고果實를맛보노다ᄒᆞ야밤

나못 위안 ᄒᆞᆯ이ᄂᆞ다 落盡高天日幽人未遣回 노ᄑᆞᆫ 하ᄂᆞᆯ햇 ᄒᆡ 디거ᄂᆞᆯ 幽人ㅣ ᄒᆡ여곰 도라 보내지 아니ᄒᆞᄂᆞ다

、野望

清秋望不極迢遞起層陰 ᄆᆞᆯᄀᆞᆫ ᄀᆞᄋᆞᆯ히 ᄇᆞ라오미 그지 업스니 아ᄋᆞ라히 여러 ᄇᆞᆳ 어드우미 니렛도다 遠水兼天淨孤城隱霧深 먼 므른 하ᄂᆞᆯ와 兼ᄒᆞ야 조코 외ᄅᆞ왼 城은 雲霧에 그ᄋᆞᆨᄒᆞ야 김폇도나 葉稀風更落山迴日初沉 九月에 秋風ㅣ 落ᄒᆞᄂᆞ니라 ◎ 닙피 드므러늘 ᄇᆞᄅᆞ미 가시야 ᄠᅥ러디고 뫼히 바ᄋᆡ라ᄒᆞᆫ 나 ᄒᆡ 처엄 디놋다 獨鶴歸何晩

昏鴉已滿林此ᄂᆞᆫ 喻君子退而小人ㅣ競進ᄒᆞ다 ○ ᄒᆞᆫ 오ᄋᆞᆺ 鶴ᄋᆞᆫ ᄂᆞ라오ᄆᆞᆯ 엇뎨 더듸 ᄒᆞ니오 어스름에 가마괴ᄂᆞᆫ ᄒᆞ마 수프레 ᄀᆞᄃᆞᆨᄒᆞ얏도다

野望

金華山北涪水西仲冬風日始淒淒金華山ㅅ 北과 涪水西ㅅ녀긔 仲冬애 ᄇᆞᄅᆞᆷ과 ᄒᆡ와 비르서 서늘토다 山連越巂蟠三蜀水散巴渝下五溪巂ᄂᆞᆫ 音髓ㅣ라 ○ 뫼ᄒᆞᆫ 越巂ㅅ ᄀᆞ올해 니엇 三蜀애 서렛고 므른 巴渝에 흐러 五溪로 ᄂᆞ려가ᄂᆞ다 獨鶴不知何事舞飢烏似欲向人啼ᄒᆞᆫ낫 鶴ᄋᆞᆫ 아디 몯ᄒᆞ리로다 므스 일로 춤츠ᄂᆞ니

오조ᄋᆞ린가마괴ᄂᆞᆫ사ᄅᆞᄆᆞᆯ向ᄒᆞ야울오져ᄒᆞᄂᆞᆫ듯도다

射洪春酒寒仍綠極目傷神誰為携 射洪縣엣봆수리ᄎᆞ고프르건마ᄂᆞᆫ가ᄂᆞᆯ고장ᄇᆞ라매精神ᄋᆞᆯ슬허ᄒᆞ노니뉘為ᄒᆞ야가져오려뇨

野望

西山白雪三城戍南浦清江萬里橋 西山과萬里橋ᄂᆞᆫ在蜀ᄒᆞ니此ᄂᆞᆫ野望ᄋᆞ로所見ㅣ라○西山흰눈비세城에셔防戍ᄒᆞ고南浦ㅅ므른江은萬里ㅅᄃᆞ리로다

海內風塵諸弟隔天涯涕淚一身遙 四海안해ᄇᆞᄅᆞᆷ드트레아ᅀᆞ들히ᄀᆞ리져ᄋᆞᆺ더니하ᄂᆞᆯᄀᆞᅀᆡ이셔우루매ᄒᆞ오ᅀᅡ모미

아ᄋᆞ라히 깃노다 唯將遲暮供多病 未有涓埃荅聖朝 涓ᄂᆞᆫ 小流ㅣ 涓埃ᄂᆞᆫ 喩細小也ㅣ라 ○오직 늘구믈 디뎌 한 病에 올이노니 涓埃마도 聖朝ᄅᆞᆯ 對答ᄒᆞᆫ 미 잇디 몯호라

跨馬出郊時極目 不堪人事日蕭條 ᄆᆞᆯ 타 ᄆᆡ해 나가 時로 눈 ᄀᆞ장 ᄇᆞ라보니 사ᄅᆞᄆᆡ 이리 나날 蕭條호ᄆᆞᆯ 이긔디 몯ᄒᆞ리로다

亭榭 古詩三首 律詩八首

陪李北海宴歷下亭 亭ㅣ在齊州ᄒᆞ니라

東藩駐皁蓋 北渚凌淸河 東藩ᄋᆞᆫ 指靑齊라 二千石이 皁蓋朱

轄ᄒᆞᄂᆞ니 駐蹕蓋ᄂᆞᆫ 謂李邕ㅣ留治于此也
ㅣ라 北渚ᄂᆞᆫ 卽北海니 淸河와 갇ᄒᆞᆫ니라
이 東藩에 거믄 蓋ᄅᆞᆯ 머믈우시니 北녁
믈ᄀᆞᄋᆞᆫ 믈곤 河水에 凌犯ᄒᆞ얏도나 海右
此亭古 濟南名士多ㅣ 甫自註 邑人蹇處士等 在坐ᄒᆞ다 ○ 바ᄅᆞᆺ 右
ㅅ 녀긘 이 亭子ㅣ 녜로오니 濟
水南 앤 딜ᄒᆞᆷ 난 士ㅣ 하도다 雲山已發興
玉佩仍當歌 구룸 낀 뫼히 ᄒᆞ마 興을 베프거
늘 玉 ᄎᆞᆫ 사ᄅᆞ미 지즐오 놀애 브르
토 믈 當ᄒᆞ얏도다 脩竹不受暑交流空湧波 이 ᄂᆞᆫ 대 수프리
서늘ᄒᆞᆯ시 ᄎᆞᆫ 므른 ᄲᅳᆯ 뒤 덥다 ᄒᆞᆯ 시리 ○ 긴 대
수픐 더위를 받디 아니ᄒᆞᄂᆞ니 섯거 흐르ᄂᆞᆫ
므리 혹 절 업시 믌 미 리 ᄂᆞᆺ 놋다 蘊眞愜所遇落日將如何 言此

亭ㅣ藏蓄眞趣ᄒᆞ야 從愜甫의所遇ᄒᆞ니其如興未盡而日已西頹엔何오 ○眞趣ᄅᆞᆯ ᄡᅳ려셔 내 만나매 마ᄌᆞ니 디ᄂᆞᆫ ᄒᆡ란 將次ㅅ 엇뎨 ᄒᆞ려뇨 貴賤俱物後從

公難重過 貴ᄒᆞ며 賤ᄒᆞᆫ 사ᄅᆞ미 다 物에 브리 어ᄃᆞ니ᄂᆞ니 그 시를 조차 더시예 디나오미 어렵도다

登歷下古城員外孫ᄋᆡ 新亭ᄒᆞ니 亭ㅣ對

鵲湖ᄒᆞ니라 時예 李之芳ㅣ自尙書郞으로

出齊州ᄒᆞ야 制此亭ᄒᆞ다 北海太守李邕

吾宗固神秀體物寫謀良 吾宗ᄋᆞᆫ 指之芳ᄒᆞ니 ㅣ言能體物景ᄒᆞ니

아寫謀之良而作此亭也ㅣ리오우리宗
族ㅣ써ᄆᆞᆺ棹秀ᄒᆞ이物을體ᄒᆞ야ᄢᅧ뎍들
丘히ᄒᆞ얏도다 形制開古迹曾永延樂方 此亭의凉冷ㅣ
如積氷然ᄒᆞ니延引懽樂ᄒᆞᆯ方術ㅣ로다○形制ᄂᆞᆫ녯자최에여럿ᄂᆞ니層層안이
로ᄆᆞᆫ즐거우믈혀ᄂᆞᆫ法이로다 太山雄地理巨壑眇雲
莊 雲莊은雲氣屯聚如莊也ㅣ라○큰미ᄒᆞᆫ地理ㅣ雄壯ᄒᆞ고큰뫼고린구룸지
비야ᄆᆞᆯ라ᄒᆞ도다 高興逈煩促永懷清典常 煩促은惡
逈也ㅣ라下句ᄂᆞᆫ言懷之芳이化良清肅典常之道也ㅣ라○노픈興ㅣ煩促애다
ᄒᆞᆺᄂᆞ니몰고典常을기리ᄉᆞ랑ᄒᆞᄂᆞ라 含弘知四大出入見三

光四大ᄂᆞᆫ言四方ㅣ廣大也ㅣ라見三光ᄋᆞᆫ言亭高ᄒᆞ야見日月星辰之迭為出入也ㅣ라○含容ᄒᆞ미어위ᄒᆞ니四方ㅣ그믈알리로소니나미드ᄂᆞᆫ세비ᄎᆞᆯ보리로다

負郭喜粳稻安時歌吉祥見負郭粳稻之稔ᄒᆞ고知為安樂之祥而歌咏之也ㅣ가ㅣ○城郭을젓ᄂᆞᆫ배믈깃노니便安ᄒᆞᆫ時節의吉祥ᄒᆞᆫ믈ㅂ르노라

同李太守登歷下古城員外新亭

新亭結構罷隱見清湖陰새亭子ㅣ지ᅀᅮ믈ᄆᆞᄎᆞ니ᄆᆞᆯᄀᆞᆫᄀᆞᄅᆞᆷᄀᆞ놀해그르메隱現ᄒᆞ야뵈도다

迹籍臺觀舊氣溟海岳深此ᄂᆞᆫ

之芳ㅣ녜臺觀터헤지으니海岳之氣ㅣ어
득ᄒᆞ니라 ○자회ᄂᆞᆫ臺觀녯터ᄒᆞᆯ依籍ᄒᆞ고
氣運은海岳ㅣ어득ᄒᆞ야기펏도다 圓荷想自昔遺堞感至今
두려운蓮은안녜로브터이슈믈ᄉᆞ치고기
튼城堞으란이제니르리이슈믈感歎ᄒᆞ노
라 芳宴此時具哀絲千古心 됴ᄒᆞᆫ이바디를
이ᄢᅵᄀᆞ초ᄒᆞᄂᆞ니슬픈실소리ᄂᆞᆫ千ᄂᆞᆷ앳ᄆᆞᄋᆞ미로다 主稱壽尊客筵秩宴北
林 主人ㅣ尊ᄒᆞᆫ손ᄃᆡ獻壽ᄒᆞ노라닐ᄀᆞ라ᄒᆞᆺ
ᄀᆞᄅᆞᆫ秩秩히ᄒᆞ야北녁수프레셔이바디ᄒᆞᄂᆞ
다 不阻蓬蓽興得兼梁甫吟 此ᄂᆞᆫ言雖得與於高宴ㅣ나不
忘貧賤幽隱之情故로燕爲葛亮이草廬之
吟也ㅣ라 ○다ᄇᆞᆺ지밋興을ᄂᆞᆷ으리왓디몯ᄒᆞ

흘시梁甫吟을시리곰蕪ᄒᆞ노라

滕王亭子二首

君王臺榭枕巴山萬丈丹梯尚可攀 君王臺榭ㅣ 巴山을벼엿ᄂᆞ니萬丈인블근ᄃᆞ리로오히려可히ᄃᆡ위자ᄇᆞ리로다 春日鶯啼脩竹裏仙家犬吠白雲間 봄나래긴대수플안해셔곳고리울오神仙의지븨흰구룸ᄉᆞ이예셔가히즛ᄂᆞ다 清江碧石傷心麗嫩蘂濃花滿目班 ᄆᆞᆯᄀᆞᆫᄀᆞᄅᆞᆷ파ᄅᆞᆫ돌히佳麗ᄒᆞ매ᄆᆞᅀᆞᄆᆞᆯ슬흐니브두라온곳부리와둘ᄂᆡ온고ᄌᆞᆫ르누근거시눈에ᄀᆞ독ᄒᆞ얏도다 人到于今

歌出牧來遊此地不知還 謂滕王任閬州刺史也ㅣ라○사ᄅᆞ미 이제 니르리 出牧ᄒᆞ딘 이ᄅᆞᆯ 놀애 브르ᄂᆞ니 이 사해와 노라셔 도라 가ᄆᆞᆯ 아디 몯ᄒᆞᄂᆞ니라

寂寞春山路君王不復行 寂寞ᄒᆞᆫ 봄뫼 길헤 君王ㅣ 다시 녀디 몯ᄒᆞ시놋다

古墻猶竹色虛閣自松聲 녯 다매 오히려 댓 비치오 뷘 閣앤 절로 소나못 소리로다

烏雀荒村暮雲霞過客情 言見雲霞而思王也ㅣ라○재 ᄃᆞᆯᄒᆞᆫ 거츤 ᄆᆞᅀᆞᆯ 나조히오 雲霞앤 디나가ᄂᆞᆫ 나그내 ᄠᅳ디로다

尚思歌吹入千騎把霓旌 놀애와 뎌 피리 소리 이어긔 드던 이ᄅᆞᆯ 오히려 ᄉᆞ랑ᄒᆞ노니 千騎ㅣ 旌旗ᄅᆞᆯ 자밧더니라

、章梓州水亭

城晚通雲霧亭深到芰荷 城ㅅ나조히雲霧ㅣᄉᆞᄆᆞᆺ찻ᄂᆞ니亭子ㅣ기퍼芰荷ㅅ서리예니르럿도다 吏人橋外少秋水席邊多 吏人이ᄃᆞ리밧기젹고ᄀᆞᅀᆞᆳ므른돗ᄀᆞ애하도다 近屬淮王至高門薊子過 甫ㅣ自註漢中王과道士席謙ㅣ在會ᄒᆞ니라○族屬애갓가온淮王이왯고門地노ᄂᆞᆫ薊子ㅣ디나왓도다 荊州愛山簡吾醉亦長歌 山簡으로比章梓州ᄒᆞ니라○荊州셔山簡을ᄉᆞ랑ᄒᆞ더니나도醉ᄒᆞ야셔ᄯᅩ기리놀래브르노라

登牛頭山亭子

路出雙林外亭窺萬井中 井은市井也ㅣ라 ○길히 두 수픐 밧ᄀᆞ로 낫고 亭子ᄂᆞᆫ 萬井 가온대를 여어 보ᄂᆞ다 江城孤照日山谷遠含風 ᄀᆞᄅᆞᇝ 城에 외ᄅᆞ이 ᄒᆡ 비취엿고 묏고ᄅᆞᆫ 머리 ᄇᆞᄅᆞᆷ 머겟도다 兵革身將老關河信不通 兵革 서리예 모미 將次ㅅ 늘거니 關河애 書信ㅣ 通티 아니ᄒᆞ놋다 猶殘數行淚忍對百花叢 오히려 두어 줈 눉므리 기텟ᄂᆞ니 온가짓 곳 퍼기를 ᄎᆞ마 對ᄒᆞ야리아

題鄭縣亭子

鄭縣亭子澗之濱户牖憑高發興新 鄭縣人亭子ㅣ
시내ㅅ ᄀᆞ이로소니 户牖ㅣ 노ᄑᆞᆫ 디 브텨 셔니 興心 다 미 새롭도다 雲斷嶽蓮
臨大道天晴宮柳暗長春 嶽蓮은 蓮花峯也ㅣ오 長春은 宮名
ㅣ라 ○구루미 그츠니 蓮곧ᄒᆞᆫ 모히 큰 길헤 디렛고 하ᄂᆞᆯ히 개니 宮잇 버드리 長春에 어
드ᄋᆞᆺ도다 巢邊野雀群欺燕花底山蜂遠趁人 자랏
ᄀᆞ앳 미햇 새는 모다 져비를 欺淩ᄒᆞ고 곳 미틧 뫼햇 버른 머리 사ᄅᆞᄆᆞᆯ 조차 오ᄂᆞ다 更
欲題詩滿青竹晚來幽獨恐傷神 이 머므리 논다 시 서
글 서다가 나조히 傷神홀가 저헤니라 ○ 또 그를 서 프른 대예 ᄀᆞᄃᆞ기 고져 간마ᄅᆞᆫ 나조

히 幽深ᄒᆞᆫ 뒤ᄒᆡ 오이 이셔도
精神을 ᄂᆞᆯ흘 가젼노라

重題鄭氏東亭

華亭入翠微 秋日亂晴暉 山不及上曰翠微라 ○ 빗난 亭子ㅣ 翠微예 드럿ᄂᆞ니 ᄀᆞᅀᆞᆳ 히ᄂᆞᆫ ᄆᆞᆯᄀᆞᆫ 비체 어즈러 빗도다

山崩石欹 山樹淸 連曳水衣 水ㅣ 戍文曰 連ㅣ라 水衣ᄂᆞᆫ 苔也ㅣ라 ○ 뫼헤 진 돌ᄒᆞᆫ 뫼ᄭ 남ᄀᆞᆫ 기유리혀거늘 ᄆᆞᆯᄀᆞᆫ 믌겨ᄅᆞᆫ 이ᄂᆞᆯ엳도다

紫鱗衝岸躍 蒼隼護巢歸 블근 비ᄂᆞᆯ은 두들글 다딜어 ᄠᅱ놀오고 ᄅᆞᆫ 매ᄂᆞᆫ 가ᄎᆞᆯ 救護ᄒᆞ라 도라오ᄂᆞᆺ다

向晚尋征路 殘雲傍馬飛 나조ᄒᆞᆯ 向ᄒᆞ야 날 길ᄒᆞᆯ ᄎᆞ조니 殘ᄒᆞᆫ

구루미ᄆᆞᄅᆞᆫ브티ᄂᆞᄂᆞ다

、泊松滋江亭

紗帽隨鷗鳥扁舟繫此亭 紗帽스고갈며기ᄅᆞᆯ조차와져근비로이亭子애ᄆᆡ요라

江湖深更白松竹遠還青 江과湖괘깁고가ᄉᆡ야ᄒᆡ니솔와대ᄂᆞᆫ멀오도ᄯᅩ프르도다

一柱全應近高唐莫尋經 一柱觀ᄋᆞᆫ在江陵ᄒᆞ고高唐觀ᄋᆞᆫ在巫峽ᄒᆞ다○一柱ㅣ소ᄒᆡ당당이갓가오니高唐ᄋᆞᆯ다시디나가디몯ᄒᆞ리로다

今宵南極外甘作老人星 此老人星ᄋᆞᆫ甫ㅣ自謂也ㅣ라○오ᄂᆞᆳ밤南極ㅅ밧긔와老人星ᄃᆞ외야슈믈ᄃᆞᆯ히

너기노라

江亭

坦腹江亭暖長吟野望時 ᄇᆡᄅᆞᆯ헤혀이쇼매ᄀᆞᄅᆞᆷ亭子ㅣ더우니기리이펴셔드르흘ᄇᆞ라논ᄢᅵ로다

水流心不競雲在意俱遲 므른흐르기ᄂᆞᆯ내ᄆᆞᅀᆞᄆᆞ로ᄃᆞ토디아니ᄒᆞ느니구루미이시니ᄠᅳ디다ᄆᆡ더듸도다

寂寂春將晩欣欣物自私 괴외ᄒᆞᆫ봄이將次ㅅ나조ᄒᆡ깃거ᄒᆞ나ᄂᆞᆫ萬物은제여곰아ᄅᆞᆷᄃᆞ외도다

故林歸未得排悶強裁詩 ᄐᆡ수고래도라가ᄆᆞᆯ得디몯ᄒᆞ니ᄇᆞᆸ가온ᄆᆞᆫᄋᆞ믈미러ᄇᆞ리노라고ᄃᆞᆯ파그를짓노라

分類杜工部詩卷之十四